

농업·농촌경제동향

2005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국내외농업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정보화팀(이용선 yslee@krei.re.kr/심승보 simsb@krei.re.kr)

연락처: 3299-4220 / 팩스: 964-5631

차 례

<요 약>

I. 국제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

1. 경제성장	1
2. 환율 및 원유가격	3
3. 세계 농축산업 동향	5
4. 세계 곡물 전망	7

II. 국내경제 동향

1. 경기	21
2. 소비 및 투자	24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27
4. 고용	28
5. 물가	29
6. 금융 및 외환	33

III.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36
2. 농가교역조건	39
3. 농업인력	40
4. 농산물 수출입	41

I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47
2. 채소류	51
3. 과일	68
4. 과채류	80
5. 축산	92

V. 특별주제

1. 소비자의 과채류 구매행태 분석과 시사점	107
2.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이후 양계산물 소비 변화	127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 미국 경제는 소비부진이 회복되며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됨.
- 일본 경제는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증가로 완만한 회복을 보임.
- 유로 경제는 일본과 비슷한 양상의 회복을 보임.
- 미 달러화의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는 12월 중 약세로 반전됨.
- 12월 중 원유재고 감소, 연료소비 증가 예상으로 소폭 상승함.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일본은 경영단위로 지원하는 새로운 직불제를 2007년부터 실시할 계획임.
- 10월 제출된 협상 그룹별 제안서에서 G10을 제외한 협상국들 간에 관세구간과 관세 상한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뤄냄.
- 미국은 최상위 구간 감축률 90%, 관세상한 75%를 제안하였으며 EU는 평균 감축률 24%를 제안함.
- G20은 미국과 EU의 의견을 절충한 형태의 감축안을 제시함.

Ⅲ. 국내 경제 동향

- 2005년 3/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4.5% 성장함.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의 성장률(7.3%)이 상승하였고 농림어업(1.8%)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5.6%)은 증가율이 둔화됨.
- 3/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여 4%대로 확대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3/4 분기 설비투자(추계)는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하여 1/4분기(3.1%)보다 상승폭이 확대됨.
- 3/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하며 전분기(9.0%)에 비해 증가율이 상승함. 10~11월 중 수출은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비IT품목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함.
-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8.0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전월 대비 0.7% 하락함.

Ⅳ. 농촌경제 동향

- 11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6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0.2%로 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 2.3% 하락함.
- 8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한 126.2를 기록함.

- 11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7% 상승한 125.4를 기록해 3/4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
- 2005년 1~11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0억 18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함.
- 2005년 11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107억 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함.

I. 국제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¹⁾

1. 경제성장

-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유로지역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됨.
 - 허리케인피해와 고유가로 우려되었던 소비부진은 회복되고 있음. 10월중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11월중 비농업부분 취업자수도 증가함.
 - 주요 전망기관들은 미국경제의 금년 성장률을 3.5~3.6%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중에 3.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을 보임.
 - 소비지표는 뚜렷한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엔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
 - 주요 기관들은 올해 2%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내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로 경제 역시 일본과 비슷한 양상의 회복을 보임.
 -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화 약세로 9월중 수출이 큰 폭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심송보 연구원(simsb)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의 증가세를 유지해가며 3/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6%로 확대됨. 주요 전망 기관들은 금년 중 1.2~1.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내년 중에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¹

단위: %

	2003	2004	2005	2006
전 세계 ²	2.6(4.0)	4.0(5.1)	3.3(4.3)	3.2
선진국	2.1	(3.3)	(2.5)	
미국	2.7	4.2	3.5(3.5)	3.2
일본	1.4	2.7	1.8(2.0)	1.8
영국	2.5	3.2	1.9(1.9)	2.2
유로지역	0.8	1.8	1.3(1.2)	1.7
독일	△0.2	1.1	1.0(0.8)	1.6
프랑스	0.9	2.0	1.5(1.5)	1.7
개도국	(6.5)	(7.3)	(6.4)	
아시아 ³	6.1(8.1)	6.9(8.2)	6.1(7.8)	6.1
중국	9.5	9.5	9.3(9.0)	8.5
중남미	1.9	5.7	4.2(4.1)	3.5
중동	4.9	6.6	6.5(5.4)	5.4
아프리카	4.6	4.9	4.9(4.5)	5.2
중앙·동유럽	4.5	6.6	4.5(4.3)	5.0
러시아	7.3	7.2	6.0(5.5)	5.3

주: 1.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05 2/4, 2005.

2. ()안의 수치는 IMF자료로 PPP방식의 추정치

3.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분류에서 Global Insight는 일본만을 제외하지만, IMF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선진국에 포함)함.

원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3Q 2005;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5;

OECD, *Economic Outlook*, No. 78, Nov. 2005.

- 중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은 물론 소비지출도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소매판매가 10월 중 12.8%증가하고 수출은 29.7% 증가함. 3/4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9.4%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 주요 기관들은 금년 성장률을 9.3~9.5%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동남아시아경제는 3/4분기 중 전기보다 확대됨.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각각 8.2%, 4.4%, 7.0%, 5.3% 성장하였으며 이는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2. 환율 및 원유가격

2.1. 환율

- 미국 달러화는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임. 이는 주요 선진국들과의 금리, 성장률 격차에서 비롯된 것임.
 - 엔/달러 환율은 12월말 현재 달러 당 117.8엔임.
 - 유로/달러 환율은 12월말 현재 달러 당 0.845유로임.
- 주요 투자 은행들은 최근의 달러강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 주요 통화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12월 중 달러화 강세는 약세로 반전됨. 올해 금리를 인상한 미국과 EU,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내년 중 줄어들고 미국의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환율 동향 (기말 기준)

	2002	2003	2004	2005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엔/달러	118.79	106.95	103.76	110.6	113.0	116.4	119.8	117.8
유로/달러	0.953	0.794	0.738	0.810	0.831	0.834	0.848	0.845

자료: 한국은행

2.2. 원유가격

- 11월 중 국제유가는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 증가, 멕시코만 피해 복구 진전 등에 따른 수급안정 기대로 3개월 연속 하락함.
- 12월 중 원유재고 감소, 연료소비 증가 예상으로 소폭 상승함.
- Dubai 국제 유가는 12월 30일 현재 배럴당 53.49달러임.

원유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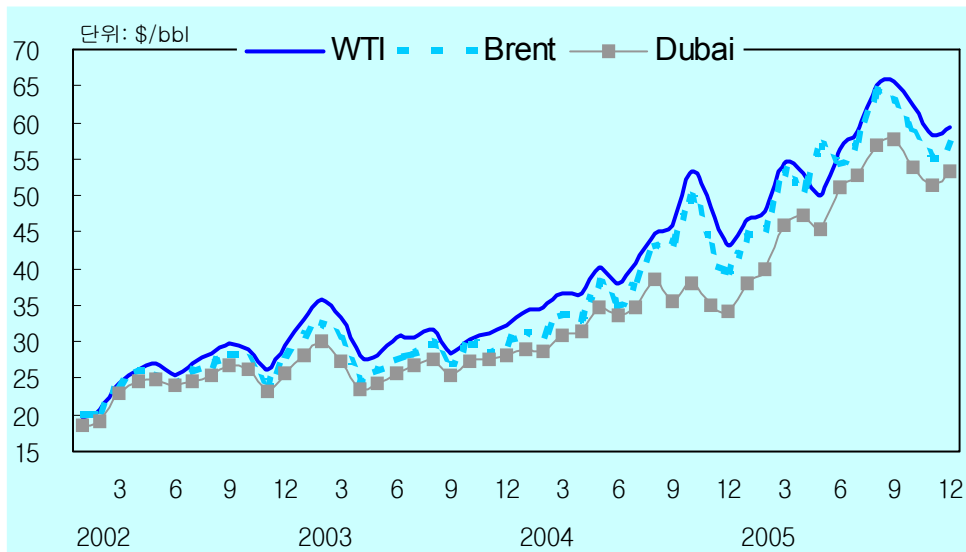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2003	2004	2005			
			9월	10월	11월	12월
WTI (텍사스 중질류)	31.12 (19.2)	41.44 (33.2)	65.60 (30.0)	62.30 (14.5)	58.28 (16.9)	59.42 (27.3)
Brent (북해산)	28.82 (14.6)	38.32 (33.0)	62.82 (30.9)	58.53 (14.9)	55.14 (22.0)	56.81 (30.1)
Dubai (중동산)	26.82 (12.5)	33.67 (25.6)	57.78 (38.4)	53.95 (29.6)	51.47 (31.9)	53.27 (35.7)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유 가격 동향



3. 세계 농축산업 동향²⁾

1.1. 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 일본은 품목별로 실시하던 경영안전대책을 경영단위로 통합하여 직접지불하는 새로운 직불제를 2007년부터 실시할 계획임.
-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제도와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도의 주 특징임.
- 여기서 일정 규모란 홋카이도에서 10ha, 도부현에서 4ha, 부락영농조직은 20ha임.

2)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62호~제64호(농정연구센터 김태곤 연구위원(taegon@krei.re.kr)등 작성)에서 발췌하였음.

- 최근 일본의 농정개혁을 보면 다른 선진국, 즉 미국이나 EU등에 비해 모범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국제 정세를 고려하고, WTO 농업협정에서 규정하는 국제규율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음.

1.2. 세계 농축산업 협상동향

- 10월 제출된 협상 그룹별 제안서에서 관세구간 4개 분할과 선형 감축방식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됨. 관세 상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포함된 G10을 제외하고는 의견 일치함.
- 미국은 최상위 구간 감축률 90%, 관세상한 75%의 지금까지 제시된 제안 중 가장 급진적인 제안을 내놓음.
- EU는 평균 감축률 24%를 제시해 수출국의 반발을 얻음. 감축률 24%는 UR협상 당시의 선진국 평균 감축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 G20은 미국과 EU의 의견을 절충한 형태의 감축안을 제시함.
- G10은 유일하게 관세상한 설정을 제시하였으나 협상이 주요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큰 반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은 세 번의 단 1%만으로 제한하자는 급진적인 제안을 제시하였으나 EU는 8~30%정도를 제시함.

4. 세계 곡물 전망³⁾

- 2005/’06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19억 5,48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7,965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8	2005.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59.11	2,034.50	1,946.29	1,954.85	△3.9	0.4
공 급 량	2,302.99	2,388.45	2,342.00	2,348.82	△1.7	0.3
소 비 량	1,949.04	1,994.48	1,990.50	1,996.14	0.1	0.3
교 역 량	240.62	236.66	232.18	235.27	△0.6	1.3
기말재고량	353.95	393.97	351.50	353.18	△10.4	0.5
기말재고율	18.2	19.8	17.7	17.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6, September 12, 2005.

- 2005/06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9,397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4,882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5/06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1% 증가한 19억 9,61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고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음. 2005/06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였으나

3)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세계농업정보”의 ‘세계 곡물수급 동향’(농산업경제연구센터 김혜영 연구원(hykim@krei.re.kr)작성)에서 발췌하였으며, 가격자료는 세계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Pinksheet, April, 2005. 내용과 미 농무부(USDA)에서 매월 발표하는 「Rice Outlook」April, 2005에서 발췌하였음.

2005/06년도는 다시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0.6% 감소한 2억 3,52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4,129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5/06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0.4% 감소한 3억 5,318만 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4/05년도 19.8%에서 17.7%로 2.1%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톤

품 목	2004년				2005년			
	1/4	2/4	3/4	4/4	9월	1/4	2/4	3/4
대 두	377.0	323.0	268.0	258.0	263.0	270.0	291.4	278.3
수 수	126.0	121.0	99.8	92.3	96.4	92.9	95.4	101.9
소 맥	164.7	161.7	147.6	153.5	159.7	151.9	142.1	151.0

주: 대두는 U.S. c.i.f Rotterdam, 수수는 U.S. Gulf No.2, Yellow, f.o.b. 소맥은 U.S. Gulf No.1 HRW 가격임.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Pinksheets), July, 2005.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백만 톤, %

구 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80/81	1,446.90	1,642.30	1,463.20	215.20	190.90	13.0
1981/82	1,496.10	1,687.00	1,462.80	209.70	229.00	15.7
1982/83	1,547.70	1,776.70	1,499.90	200.60	354.70	23.6
1983/84	1,485.30	1,840.00	1,537.80	207.80	302.40	19.7
1984/85	1,646.60	1,949.00	1,585.80	218.70	364.30	23.0
1985/86	1,664.10	2,028.40	1,596.00	180.60	433.30	27.1
1986/87	1,663.20	2,096.50	1,633.00	186.50	465.20	28.5
1987/88	1,594.70	2,059.90	1,652.10	211.60	410.60	24.9
1988/89	1,546.10	1,956.70	1,637.00	211.80	319.40	19.5
1989/90	1,670.80	1,990.20	1,688.60	220.10	296.60	17.6
1990/91	1,768.90	2,065.50	1,726.50	202.10	338.90	19.6
1991/92	1,708.00	2,046.90	1,722.00	221.10	325.00	18.9
1992/93	1,789.60	2,114.60	1,751.60	220.10	362.80	20.7
1993/94	1,712.40	2,075.20	1,753.30	204.40	473.10	27.0
1994/95	1,758.90	2,232.00	1,772.00	220.60	459.80	25.9
1995/96	1,712.20	2,172.00	1,761.60	206.70	410.60	23.3
1996/97	1,870.90	2,281.50	1,827.80	213.20	450.60	24.7
1997/98	1,880.80	2,331.40	1,835.90	217.50	495.30	27.0
1998/99	1,872.70	2,368.00	1,839.70	223.40	528.40	28.7
1999/00	1,871.60	2,400.00	1,869.70	240.10	530.40	28.4
2000/01	1,839.80	2,370.20	1,868.30	231.60	501.90	26.9
2001/02	1,870.11	2,414.04	1,899.90	238.82	514.15	27.1
2002/03	1,817.65	2,353.60	1,910.40	241.21	443.21	23.2
2003/04	1,859.11	2,302.99	1,949.04	240.62	353.95	18.2
2004/05	2,034.50	2,388.45	1,994.48	236.66	393.97	19.8
2005/06	1,954.85	2,348.82	1,996.14	235.27	353.18	17.7

주 : 2004/05년은 추정치, 2005/06년은 전망치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1985~2003(1980/81~2001/02).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2003/04~2005/06).

4.1. 쌀

- 2005/06년도 쌀 생산량은 2004/05년 보다 1.2% 증가한 4억 683만 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전월대비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태국, 터키는 생산량이 증가 전망됨.
- 2005/06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4억 1,388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47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7.3% 감소한 2,54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전월대비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한국은 수출량이 증가할 전망이고, 태국은 감소될 전망됨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전망됨.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6,582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월전망치 보다 1.8% 높기는 하나 여전히 1982/83년 이후 최저치임. 중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2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전체 재고량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 2005/06년도 기말재고율은 15.9%로 2004/05년도의 17.5%보다 약 1.6%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11	2005.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1.51	402.07	406.07	406.83	1.2	0.2
공 급 량	501.83	488.22	478.86	479.71	-1.7	0.2
소 비 량	415.67	415.35	414.21	413.88	-0.4	-0.1
교 역 량	27.41	27.40	25.35	25.41	-7.3	0.2
기말재고량	86.15	72.88	64.65	65.82	-9.7	1.8
기말재고율	20.7	17.5	15.6	15.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9, December 9, 2005.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11	2005.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 급 량	501.83	488.22	478.86	479.71	-1.7	0.2
기 초 재 고 량	110.32	86.15	72.79	72.88	-15.4	0.1
생 산 량	391.51	402.07	406.07	406.83	1.2	0.2
미 국	6.42	7.40	7.01	7.01	-5.3	0.0
태 국	18.01	17.07	17.80	17.90	4.9	0.6
베 트 남	22.08	22.63	22.50	22.50	-0.6	0.0
인도네시아	35.02	34.25	34.90	34.90	1.9	0.0
중 국	112.46	125.36	127.40	127.40	1.6	0.0
일 본	7.09	7.94	8.00	8.00	0.8	0.0
수 입 량	24.86	25.70	24.46	24.91	-3.1	1.8
인도네시아	0.65	0.50	0.70	0.80	60.0	14.3
중 국	1.12	0.50	0.60	0.60	20.0	0.0
일 본	0.70	0.68	0.70	0.70	2.9	0.0
소 비 량	415.67	415.35	414.21	413.88	-0.4	-0.1
미 국	3.66	3.84	4.02	4.02	4.7	0.0
태 국	9.47	9.48	9.49	9.49	0.1	0.0
베 트 남	18.00	18.50	19.00	19.00	2.7	0.0
인도네시아	36.00	35.85	35.60	35.60	-0.7	0.0
중 국	135.00	135.10	135.20	135.20	0.1	0.0
일 본	8.36	8.30	8.25	8.25	-0.6	0.0
수 출 량	27.41	27.40	25.35	25.41	-7.3	0.2
미 국	3.31	3.54	3.84	3.84	8.5	0.0
태 국	10.14	7.25	7.50	7.00	-3.4	-6.7
베 트 남	4.30	5.10	4.50	4.50	-11.8	0.0
기 말 재 고 량	86.15	72.88	64.65	65.82	-9.7	1.8
미 국	0.76	1.21	0.83	0.80	-33.9	-3.6
태 국	1.71	2.05	2.79	3.46	68.8	24.0
인도네시아	4.02	2.92	3.32	3.02	3.4	-9.0
중 국	44.93	34.99	27.14	27.19	-22.3	0.2
일 본	1.70	1.82	2.07	2.07	13.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6, September 12, 2005.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쌀 가격 동향

단위: \$/톤

품 종 ¹	2003/04	2004/05	2005/06 ²	2003/04			2004/05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립종	533	404	432	375	367	370	397	444	474	474
장립종	220	278	288	291	281	288	291	292	283	284

주: 1.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

2. 추정치임.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5j, oct 13, 2005.

USDA 계산 세계시장 쌀 가격 (rough basis)

단위: \$/cwt

월	2003/04		2004/05		2005/06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8월	3.79	3.85	5.40	5.47	5.17	5.19
9월	3.72	3.77	5.46	5.54	5.24	5.26
10월	3.74	3.79	5.35	5.50	5.36	5.38
11월	3.80	3.86	5.61	5.69	5.65	5.67
12월	3.94	4.00	5.82	5.90	5.78	5.80
1월	3.91	3.96	5.76	5.84		
2월	4.19	4.21	5.79	5.83		
3월	4.72	4.74	5.67	5.71		
4월	5.35	5.38	5.69	5.73		
5월	5.64	5.67	5.70	5.74		
6월	5.64	5.67	5.52	5.56		
7월	5.73	5.77	5.20	5.24		
평균 ¹	4.40	4.44	5.59	5.65	5.26	5.28

주: 1. 세계시장 주 단위가격 단순평균

단위: Rice Conversions 1 cwt = 100 pounds = 2.22 bushels = .0453 metric ton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5j, oct 13, 2005.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5년산이 거래되는 8월부터 상승추세가 이어져 12월 기준 1cwt당 5.78\$를 기록함.
-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추세이며 2005/06년 예상가격은 톤당 288달러로 예상됨.

4.2. 소맥

- 2005/06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1,533만 톤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5/06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4/05년 6억 875만 톤보다 약 1,333만 톤 증가한 6억 2,20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1999/00년 1억 1,413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5/06년에는 1억 1,009만 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전월대비 수출 증가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브라질이고 수출 감소 국가는 시리아임.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17.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됨.
- 2005/06년 기말재고량은 1억 4,335만 톤으로 전년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과 유럽의 재고량이 각각 전년대비 10.3%와 17.0% 감소할 전망임.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24.7에서 23.0%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11	2005.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54.59	626.63	610.58	615.33	-1.8	0.8
공 급 량	720.70	758.85	759.76	765.43	0.9	0.7
소 비 량	588.48	608.75	620.23	622.08	2.2	0.3
교 역 량	109.38	110.45	109.29	110.09	-0.3	0.7
기말재고량	132.22	150.10	139.53	143.35	-4.5	2.7
기말재고율	22.5	24.7	22.5	23.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9, December 9, 2005.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11	2005.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 급 량	720.70	758.85	759.76	765.43	0.9	0.7
기 초 재 고 량	166.11	132.22	149.18	150.10	13.5	0.6
생 산 량	554.59	626.63	610.58	615.33	-1.8	0.8
미 국	63.81	58.74	57.11	57.11	-2.8	0.0
호 주	26.13	22.60	22.50	24.00	6.2	6.7
캐 나 다	23.55	25.86	25.50	26.80	3.6	5.1
E U 2 5	106.88	136.76	122.67	122.52	-10.4	-0.1
중 국	86.49	91.95	95.00	96.00	4.4	1.1
러 시 아	34.10	45.30	48.00	48.00	6.0	0.0
수 입 량	102.25	109.95	107.06	107.36	-2.4	0.3
E U 2 5	5.91	7.20	7.20	7.20	0.0	0.0
브 라 질	5.18	5.30	5.50	5.70	7.5	3.6
북아프리카	15.48	18.41	18.60	18.60	1.0	0.0
파 키 스 탄	0.05	1.42	0.50	0.80	-43.7	60.0
인 도	0.01	0.02	1.00	1.00	4900.0	0.0
러 시 아	1.03	1.20	1.00	1.00	-16.7	0.0
소 비 량	588.48	608.75	620.23	622.08	2.2	0.3
미 국	32.51	31.91	32.33	32.33	1.3	0.0
E U 2 5	107.90	115.00	119.50	119.50	3.9	0.0
중 국	104.50	102.00	101.00	101.00	-1.0	0.0
파 키 스 탄	18.90	19.50	20.00	20.30	4.1	1.5
러 시 아	35.50	37.40	38.80	38.80	3.7	0.0
수 출 량	109.38	110.45	109.29	110.09	-0.3	0.7
미 국	31.52	28.92	27.22	27.22	-5.9	0.0
캐 나 다	15.79	14.97	16.00	16.50	10.2	3.1
E U 2 5	10.93	14.37	14.50	14.50	0.9	0.0
기 말 재 고 량	132.22	150.10	139.53	143.35	-4.5	2.7
미 국	14.87	14.70	14.43	14.43	-1.8	0.0
E U 2 5	10.60	25.20	21.04	20.92	-17.0	-0.6
중 국	43.29	38.82	34.32	34.82	-10.3	1.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6, September 12, 2005.

4.3. 옥수수

- 2005/06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7,765만 톤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 EU25,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국 등 주요 옥수수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5/06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6억 8,55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0년 이후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으나 2004/05년은 생산량이 소비량을 2,694만 톤 정도 초과하였고 2005/06년도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789만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5/06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2.5% 감소한 7,495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가 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4.4%, 16.0%로 이들 두 국가가 80.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5/06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2% 감소한 1억 1,87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790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임. 2005/06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1.3% 포인트 감소한 17.3%가 전망됨.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11	2005.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23.04	708.33	671.88	677.65	-4.3	0.9
공 급 량	746.42	808.02	798.37	804.28	-0.5	0.7
소 비 량	646.73	681.39	684.15	685.54	0.6	0.2
교 역 량	77.34	76.85	74.79	74.95	-2.5	0.2
기말재고량	99.69	126.63	114.21	118.73	-6.2	4.0
기말재고율	15.4	18.6	16.7	17.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9, December 9, 2005.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백만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11	2005.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 급 량	746.42	808.02	798.37	804.28	-0.5	0.7
기 초 재 고 량	123.38	99.69	126.49	126.63	27.0	0.1
생 산 량	623.04	708.33	671.88	677.65	-4.3	0.9
미 국	256.28	299.92	280.23	280.23	-6.6	0.0
아르헨티나	15.00	19.50	17.30	17.30	-11.3	0.0
E U 2 5	39.88	53.35	46.94	46.94	-12.0	0.0
멕시코	21.80	22.63	20.50	20.50	-9.4	0.0
동남아시아	15.42	15.62	16.32	16.32	4.5	0.0
중 국	115.83	130.29	126.00	130.00	-0.2	3.2
수 입 량	76.51	75.19	74.66	74.23	-1.3	-0.6
E U 2 5	5.75	2.50	2.50	2.50	0.0	0.0
일본	16.78	16.48	16.50	16.50	0.1	0.0
멕시코	5.74	5.92	6.70	6.70	13.2	0.0
동남아시아	3.89	3.07	3.20	3.20	4.2	0.0
한국	8.78	8.64	8.40	8.40	-2.8	0.0
소 비 량	646.73	681.39	684.15	685.54	0.6	0.2
미 국	211.64	224.80	224.42	224.42	-0.2	0.0
E U 2 5	46.81	52.50	50.60	50.60	-3.6	0.0
일본	16.90	16.70	16.60	16.60	-0.6	0.0
멕시코	26.40	27.90	28.40	28.40	1.8	0.0
동남아시아	17.90	18.40	19.15	19.15	4.1	0.0
한국	8.72	8.62	8.45	8.45	-2.0	0.0
중 국	128.40	131.50	134.00	134.00	1.9	0.0
수 출 량	77.34	76.85	74.79	74.95	-2.5	0.2
미 국	48.26	46.08	50.80	48.26	4.7	-5.0
아르헨티나	10.94	14.00	12.00	12.00	-14.3	0.0
중 국	7.55	7.59	3.00	6.00	-20.9	100.0
기 말 재 고 량	99.69	126.63	114.21	118.73	-6.2	4.0
미 국	24.34	53.65	58.91	61.45	14.5	4.3
아르헨티나	0.22	0.53	0.43	0.43	-18.9	0.0
E U 2 5	3.18	6.33	4.57	4.57	-27.8	0.0
중 국	44.85	36.06	25.26	26.26	-27.2	4.0

4.4. 대두 및 대두박

- 2005/06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171만 톤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생산량은 전년대비 14.7%인 약 750만 톤이 증가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59만 톤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분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시켰음.
-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4.2% 증가한 6,80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0.8%, 브라질이 36.8%, 아르헨티나가 14.3%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4,811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4,675만 톤과 비교하여 14.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1.9% 포인트 높은 22.3%가 될 것으로 전망됨.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11	2005.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6.26	213.33	221.55	221.71	3.9	0.1
공 급 량	226.76	248.51	263.64	263.80	6.2	0.1
소 비 량	189.97	205.98	216.14	215.43	4.6	-0.3
교 역 량	55.86	65.25	68.48	68.01	4.2	-0.7
기말재고량	35.18	42.09	46.75	48.11	14.3	2.9
기말재고율	18.5	20.4	21.6	22.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9, December 9, 2005.

- 2005/06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4,598만 톤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5.5% 늘어난 1억 4,52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7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4,73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브라질이 29.5%, 아르헨티나가 45.5%의 비중을 차지, 이들 2국의 수출비중이 7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두박의 기말 재고량은 404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80만 톤과 비교하여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2.8%가 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11	2005.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28.74	138.28	146.64	145.98	5.6	-0.5
공 급 량	133.17	141.98	150.41	149.78	5.5	-0.4
소 비 량	128.95	137.65	145.49	145.28	5.5	-0.1
교 역 량	45.41	46.01	47.88	47.31	2.8	-1.2
기말재고량	3.70	3.80	4.15	4.04	6.3	-2.7
기말재고율	2.9	2.8	2.9	2.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9, December 9, 2005.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11	2005.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 급 량	226.76	248.51	263.64	263.80	6.2	0.1
기 초 재 고 량	40.50	35.18	42.09	42.09	19.6	0.0
생 산 량	186.26	213.33	221.55	221.71	3.9	0.1
미 국	66.78	85.01	82.82	82.82	-2.6	0.0
아르헨티나	33.00	39.00	40.50	40.50	3.8	0.0
브 라 질	50.50	51.00	58.50	58.50	14.7	0.0
중 국	15.39	17.40	17.00	17.00	-2.3	0.0
수 입 량	54.25	64.81	67.71	67.74	4.5	0.0
E U 2 5	14.64	15.80	15.95	15.95	0.9	0.0
일 본	4.69	4.30	4.50	4.40	2.3	-2.2
중 국	16.93	25.80	27.50	27.50	6.6	0.0
소 비 량	189.97	205.98	216.14	215.43	4.6	-0.3
미 국	44.60	51.26	51.11	51.11	-0.3	0.0
아르헨티나	26.62	29.05	30.60	30.60	5.3	0.0
브 라 질	32.16	31.88	32.88	32.15	0.8	-2.2
E U 2 5	15.46	16.53	16.71	16.71	1.1	0.0
일 본	4.93	4.50	4.69	4.59	2.0	-2.1
중 국	34.38	40.21	44.75	44.75	11.3	0.0
수 출 량	55.86	65.25	68.48	68.01	4.2	-0.7
미 국	24.13	30.01	29.26	27.76	-7.5	-5.1
아르헨티나	6.71	9.60	9.70	9.70	1.0	0.0
브 라 질	19.82	20.54	24.00	25.00	21.7	4.2
기 말 재 고 량	35.18	42.09	46.75	48.11	14.3	2.9
미 국	3.06	6.95	9.52	11.02	58.6	15.8
아르헨티나	12.68	13.64	14.39	14.39	5.5	0.0
브 라 질	14.88	14.00	16.11	15.84	13.1	-1.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5.11	2005.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 급 량	133.17	141.98	150.41	149.78	5.5	-0.4
기 초 재 고 량	4.43	3.70	3.77	3.80	2.7	0.8
생 산 량	128.74	138.28	146.64	145.98	5.6	-0.5
미 국	32.95	36.94	37.12	37.12	0.5	0.0
아르헨티나	19.76	21.47	22.52	22.52	4.9	0.0
브 라 질	22.78	22.03	23.64	22.86	3.8	-3.3
E U 2 5	11.10	11.90	12.04	12.04	1.2	0.0
중 국	20.19	24.03	27.50	27.50	14.4	0.0
수 입 량	44.89	45.48	47.10	46.85	3.0	-0.5
미 국	0.26	0.13	0.15	0.15	15.4	0.0
브 라 질	0.27	0.20	0.23	0.28	40.0	21.7
E U 2 5	21.91	22.60	22.85	22.75	0.7	-0.4
소 비 량	128.95	137.65	145.49	145.28	5.5	-0.1
미 국	28.53	30.45	31.12	31.12	2.2	0.0
브 라 질	8.28	8.60	9.10	9.10	5.8	0.0
인 도	1.12	1.96	2.17	2.17	10.7	0.0
E U 2 5	32.64	34.13	34.49	34.39	0.8	-0.3
중 국	19.54	23.43	26.83	26.83	14.5	0.0
수 출 량	45.41	46.01	47.88	47.31	2.8	-1.2
미 국	4.69	6.66	6.08	6.08	-8.7	0.0
아르헨티나	18.95	20.35	21.52	21.52	5.7	0.0
브 라 질	14.76	14.04	14.54	13.95	-0.6	-4.1
기 말 재 고 량	3.70	3.80	4.15	4.04	6.3	-2.7
미 국	0.19	0.16	0.23	0.23	43.8	0.0
아르헨티나	0.54	0.90	0.95	0.95	5.6	0.0
브 라 질	0.78	0.37	0.60	0.45	21.6	-25.0
E U 2 5	0.85	0.86	0.86	0.86	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21, April 8, 2005.

II. 국내경제 동향⁴⁾

1. 경기

- 2005년 3/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4.5% 성장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함.
- 설비투자는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운수장비 투자가 증가로 전환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함.
-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함.
 - 재화 수출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통신기기, 산업용기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함.
 - 서비스 수출은 여객 및 화물운임이 늘어났으나 외국인의 국내여행경비 지출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함.
-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함.
 - 재화 수입은 원유 및 천연가스,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산업용기계 등의 수입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함.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심송보 연구원(simsb)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서비스 수입은 여객운임, 용선료 등의 지급과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 지출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함.

경제성장률 추이(2000년 실질가격기준, 원계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4 ^p					2005 ^p		
	연간	1/4	2/4	3/4	4/4	1/4	2/4	3/4
G D P 성장률	4.6	5.3	5.5	4.7	3.3	2.7	3.3	4.5
최종 소비지출 (민 간)	△0.5	△0.5	0.4	△0.1	0.9	1.7	3.0	
총고정자본형성 (건 설)	1.1	△1.3	△0.5	△0.8	0.6	1.4	2.8	4.0
(설 비)		2.2	4.3	3.0	△1.2	0.1	2.1	
총 수 출	19.7	4.9	3.6	1.3	△3.4	△2.9	1.7	0.4
총 수 입		0.3	6.2	6.8	2.5	3.1	2.9	4.2
		26.9	26.9	17.7	9.8	7.4	5.5	11.5
		12.3	20.7	12.0	11.1	5.2	5.5	10.7

주: 2004^p, 2005^p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의 성장률(7.3%)이 상승하였고 농림어업(1.8%)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5.6%)은 증가율이 둔화됨.
- 제조업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석유화학, 산업용기계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함.
- 건설업은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함.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2000년 가격기준, 원계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4년				2005		
	연간	2/4	3/4	4/4	1/4	2/4	3/4
전 산 업	4.6	5.5	4.7	3.3	2.7	3.3	4.5
농 립 어 업	7.4	3.1	5.3	10.4	2.6	4.6	1.8
제 조 업	11.4	13.7	12.0	8.0	5.3	5.2	7.3
건 설 업	1.7	3.7	2.2	△2.2	△3.0	△1.7	0.6
서 비 스 업	1.3	1.7	1.3	0.6	2.2	2.5	3.4

자료: 한국은행

- 산업생산은 금년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10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여 금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부문별로는 반도체, IT 부문의 생산 증가세가 금년 3/4분기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동차 부문도 전분기 중의 파업에 따른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세가 소폭 확대됨.
-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79.3%를 기록함.
- 10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23.0로 섬유제품, 영상음향통신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제1차 금속,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였음.

산업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4		2005				
	연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생 산	10.4	6.7	3.8	4.0	6.9	7.3	8.0
출 하	9.1	5.8	3.5	3.5	6.1	6.3	5.5
(수 출)	20.0	15.0	10.9	6.7	8.0	9.2	10.4
(내 수)	2.9	0.3	-1.2	1.4	4.6	2.9	2.5
재 고	9.4	9.4	9.4	7.9	6.8	6.8	6.7
평균가동율	80.3	80.4	80.0	79.0	79.4	79.0	79.3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2. 소비 및 투자

- 3/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여 4%대로 확대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9월 소비관련 지표들은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여 전분기 감소세에서 전환된 상승세를 이어감. 내구재의 경우 증가세가 크게 확대 되었으며 비내구재는 감소세가 상승세로 전환됨.
- 서비스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여 증가세가 다소 확대됨.
- 해외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51.9% 증가하여 2/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됨.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4		2005				
	연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도소매 판매	△0.9	△1.4	△1.0	2.6	3.6	5.1	2.7
내수용 소비재출하	△2.4	△4.0	△5.0	1.2	6.2	6.7	5.7
(내 구 재)	△7.0	△6.4	△6.7	7.1	16.7	14.2	15.5
(비내구재)	△0.2	△2.9	△4.2	△1.5	1.7	3.4	1.6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3/4 분기 설비투자(추계)는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하여 1/4분기 (3.1%)보다 상승폭이 확대됨.
- 9월 중 설비투자는 자동차 및 특수산업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2.0% 감소함.
- 향후 설비투자는 내수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선행지표 등의 추이를 감안할 때 당분간 큰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을 반영하여 0.4% 증가하는데 그침.
- 향후 건설투자는 선행지표를 감안할 때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판단됨.

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4		2005			
	연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설비투자	3.8	2.5	3.1	2.8	4.2	-
기계류내수출하	△1.3	△0.9	△0.4	△1.4	2.2	△3.9
국내기계수주	6.8	△5.4	△6.8	△12.2	13.6	0.9
건설투자	1.1	△3.4	△2.9	1.7	0.4	-
건설투자수주	△5.3	28.8	24.8	40.5	16.7	△34.8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05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1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여 전분기(4.7%)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경상소득은 318만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 12만4천원으로 4.5% 감소함.
-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고, 사업소득은 13.8% 증가하였음.
- 2005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15만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여 전분기(2.9%)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됨.
- 비목별 소비지출을 보면 주거(11.0%), 가구가사용품(9.8%), 보건의료(14.9%), 교육(8.2%), 교양오락(9.5%)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식료품, 광열수도, 통신등이 부진하였음.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소 득	7.6	5.0	6.5	4.4	5.2	4.7	3.0
소비 지출	8.0	2.5	6.2	4.8	4.5	2.9	4.0
(식료품)	9.3	7.3	8.7	5.1	4.1	1.7	△1.0
(교 육)	18.3	0.7	4.8	△1.8	5.2	1.0	8.2

자료: 통계청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10~11월 중 수출은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비IT품목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함.
 - 전년 동기 수출호조에에도 불구하고 12.7%의 견실한 증가율을 기록함.
 - 11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한 260.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일평균 수출액으로는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함. 엔화약세 등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상최고치를 갱신함.
- 10~11월중 수입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전기에 비해 증가세가둔화됨.
- 무역수지 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전년 동기(월)대비), 억달러

	2003	2004		2005			
		연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수 출(FOB)	1,938.2	2,538.4	689.4	668.16	697.30	711.20	260.70
(증감율)	19.3	31.0	21.2	12.7	9.0	15.4	13.0
수 입(CIF)	1,788.3	2244.6	616.9	605.35	635.45	660.50	239.40
(증감율)	17.5	25.5	23.6	14.7	15.0	20.7	17.9
무역수지	149.9	293.8	72.5	62.7	60.9	50.6	21.3

자료: 한국은행, 산업자원부

4. 고용

- 11월 중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2,397만6천, 2,319만1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35만5천, 38만9천명(1.5%, 1.7%) 증가함.
-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월대비 6.1%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에 그침.
- 11월 중 실업자는 78만5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전월보다 9.7% 감소함.

고 용 활 동

단위: 천명, %

	2004	2005				전년동기비 증감률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경 제 활 동 인 구 (경 제 활 동 참 가 율)	23,370 62.0	23,159 60.9	24,004 62.7	23,893 62.2	23,976 62.3	1.5
취 업 자	22,557	22,247	23,126	23,026	23,191	1.7
· 농 림 어 업	1,825	1,525	2,018	1,965	1,842	0.7
· 광 공 업	4,306	4,278	4,276	4,216	4,212	△2.5
(제 조 업)	4,290	4,260	4,257	4,200	4,197	△2.5
·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 타 서 비 스	16,427	16,443	16,832	16,845	17,137	2.9
(건 설 업)	1,820	1,692	1,897	1,836	1,871	△0.3
실 업 자	813	912	831	810	785	△4.1
실 업 륜 (계 절 조 정)	3.5	3.5	3.7	3.8	3.6	

자료: 통계청

5. 물가

- 2005년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8.0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전월대비 0.7% 하락함.
- 광열·수도, 기타잡비 부문등은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과일 출하 증가등의 이유로 식료품, 석유가격 하락으로 교통·통신부문이 하락함.

품목별 소비자물가 지수(2000년=100)

	2004			2005		
	연간	3/4	4/4	2/4	3/4	11월
총 지 수	114.7 (3.6)	115.6 (4.3)	115.5 (3.4)	117.6 (3.0)	118.3 (2.3)	118.0 (2.8)
상 품	114.5 (4.3)	115.8 (5.9)	115.1 (3.7)	117.9 (3.6)	119.0 (2.8)	117.8 (2.8)
농 축 수 산 물	130.3 (8.9)	134.3 (13.0)	129.5 (3.8)	133.3 (3.6)	134.0 (△0.2)	127.0 (-0.5)
공 업 제 품	109.5 (2.6)	110.0 (3.5)	110.7 (3.7)	113.1 (3.7)	114.3 (3.9)	114.9 (3.9)
서 비 스	114.8 (3.1)	115.4 (3.0)	115.8 (3.1)	117.4 (2.4)	117.8 (2.1)	118.2 (2.1)
집 세	115.8 (1.6)	116.0 (1.3)	115.9 (0.7)	115.5 (△0.3)	115.5 (△0.4)	115.5 (-0.3)
공 공 서 비 스	111.4 (2.5)	111.9 (2.5)	113.2 (4.1)	114.2 (3.3)	115.1 (2.9)	115.9 (2.6)
개 인 서 비 스	116.3 (4.1)	117.0 (4.1)	117.3 (3.8)	120.1 (3.2)	120.4 (2.9)	120.8 (3.1)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통계청

○ 2005년 11월중 생산자 물가지수는 110.3로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해 전월(1.6%) 보다 증가세가 둔화됨.

- 농림수산품이 채소류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인데다, 공산품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0.5% 하락하였기 때문임.

품목별 생산자 물가 지수(2000년=100)

	2004			2005		
	연간	3/4	4/4	2/4	3/4	11월
총 지 수	107.6 (6.1)	108.5 (7.3)	108.9 (6.5)	109.6 (2.2)	110.3 (1.7)	110.4 (1.1)
농 립 수 산 품	126.0 (12.1)	131.4 (16.7)	116.0 (3.4)	124.9 (△2.5)	122.5 (△6.7)	109 (-5.3)
광 산 품	119.2 (7.6)	120.5 (8.5)	128.8 (17.4)	127.5 (9.1)	128.2 (6.4)	123.2 (-5.2)
공 산 품	105.5 (7.5)	106.5 (9.2)	108.1 (9.6)	108.4 (3.1)	109.3 (2.7)	110.2 (1.6)
전력/수도/가스	109.0 (0.9)	108.6 (0.6)	111.3 (3.9)	108.9 (1.1)	110.3 (1.6)	112.4 (0.4)
서 비 스	108.5 (2.8)	108.8 (3.1)	109.1 (2.5)	109.4 (1.1)	110.1 (1.2)	110.7 (1.4)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은행

○ 11월 중 수출물가지수는 86.4로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함.

- 이는 공급증가로 농수산품이 하락하였으며 국제유가 하락과 더불어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등 대부분의 공삼품도 하락하였기 때문임.

수출물가지수(2000년=100)

	2004		2005		
	연간	4/4	2/4	3/4	11월
농 수 산 품	120.4 (16.9)	115.8 (△1.1)	101.8 (△14.7)	105.1 (△16.0)	104.11 (△11.5)
공 산 품	92.7 (6.1)	92.5 (5.1)	85.3 (△7.5)	87.6 (△76)	86.22 (△7.0)
원 자 재	94.5 (12.3)	96.5 (12.8)	89.2 (△4.2)	92.2 (△5.8)	90.41 (△6.8)
자 본 재	81.6 (△4.6)	77.0 (△8.4)	70.9 (△15.2)	72.4 (△11.9)	72.73 (△5.0)
소 비 재	94.7 (△1.9)	91.1 (△6.0)	83.4 (△12.3)	84.7 (△10.8)	83.33 (△8.4)
총 지 수	92.9 (6.2)	92.7 (5.0)	85.4 (△7.6)	87.8 (△7.7)	86.38 (△7.0)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 11월 중 수입물가지수는 116.4로 전년동기대비 3.2% 하락함.

- 국제유가 하락, 재고증가에 따른 수요부진 및 원화환율 하락등으로 원자재, 자본재 및 소비재가 각각 2.7%, 1.6%, 3.2% 하락함.

수입물가지수(2000년=100)

	2004		2005		
	연간	4/4	2/4	3/4	11월
농림수산물	128.0 (9.3)	120.8 (△3.7)	112.8 (△14.7)	116.3 (△8.9)	116.42 (△3.2)
광산품	129.8 (21.3)	135.9 (25.3)	162.6 (26.7)	187.7 (33.8)	181.95 (35.5)
공산품	101.5 (6.5)	101.0 (3.9)	93.6 (△7.4)	95.5 (△6.8)	95.7 (△5.5)
원자재	110.5 (12.2)	111.8 (11.1)	113.4 (3.2)	121.7 (6.8)	120.8 (8.2)
자본재	98.1 (△0.6)	94.8 (△5.8)	87.1 (△11.8)	86.9 (△11.5)	85.88 (△9.4)
소비재	112.0 (5.1)	110.9 (2.6)	105.6 (△6.3)	109.6 (△3.4)	106.51 (△4.1)
총지수	108.9 (10.2)	109.5 (8.4)	109.5 (0.9)	116.5 (4.2)	115.49 (5.6)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6. 금융 및 외환

- 11월 중 M1 증가율은 전월보다 낮아진 8% 후반으로 추정됨.
- M3 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6% 중반 수준으로 추정됨.

통화지표 증감률(평잔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연간	3/4	4/4	1/4	2/4	3.4	11월 ^P
M1 ¹	8.1	8.6	7.2	7.4	9.1	12.9	8후반
M2 ²	4.2	5.0	5.3	5.3	5.7	6.6	6초반
M3	5.8	6.2	6.2	5.7	5.7	6.4	6중반
본원통화	4.3	2.4	3.3	1.5	2.5	6.1	5.7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11월중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확산으로 10월보다 상승함. 미국과의 장기금리 격차는 지난달보다 확대됨.

금 리

단위: %

	2005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콜 금 리	3.24	3.26	3.25	3.22	3.23	3.24	3.44	3.51
C D 유통 수익률	3.52	3.51	3.51	3.51	3.50	3.70	3.93	3.96
회사채유통수익률	4.28	4.12	4.18	4.52	4.75	4.92	5.20	5.50

자료: 재정경제부

- 11월말 원.달러 환율은 1033.5원으로 전월말대비 6.7원 하락하여 0.6% 절상됨. 월중 달러화 강세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유입등으로 하락세로 반전됨.
- 원/엔환율(100엔당)은 11월말 866.6원으로 10월말에 비해 32.8원 하락하여 월중 3.8% 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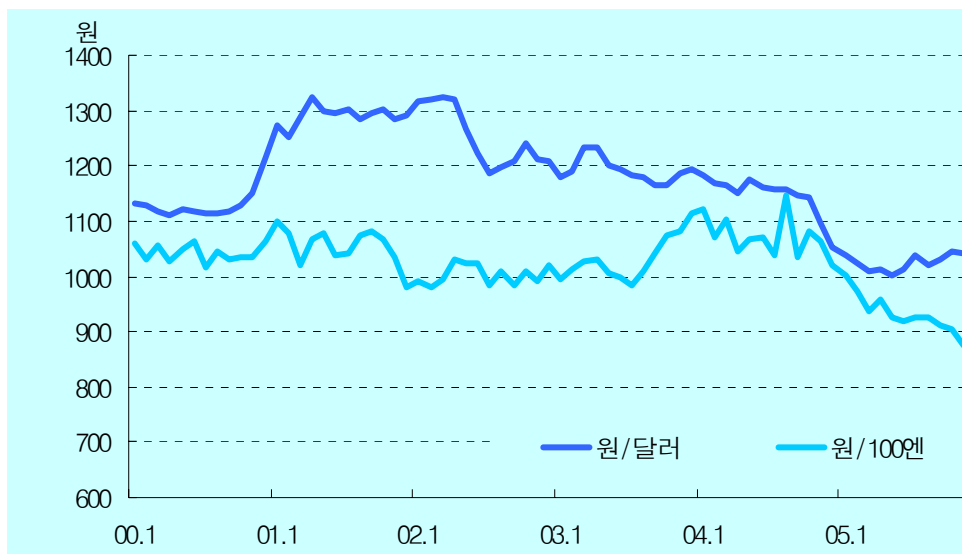
달러 환율

단위: 원(기말 기준)

	2003	2004	2005						
	-	-	5	6	7	8	9	10	11
원/달러	1192.6	1035.10	1007.70	1025.40	1026.80	1038.50	1041.00	1040.20	1033.50
원/100엔	1114.7	1009.46	930.23	930.49	915.31	932.72	919.04	898.74	865.58

자료: 한국은행

환율 추세



Ⅲ. 농촌경제 동향⁵⁾

1. 농촌물가

- 2005년 11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6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0.2%로 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 2.3%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00년=100)

	가중치	2004		2005		등락률(%)	
		10월	11월	10월	11월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총 지 수	1000	109.6	108.8	111.2	108.6	△0.2	△2.3
곡 물	388	100.8	99.5	89.1	87.3	△12.3	△2.0
미 곡	349.6	97.8	96.8	88.3	86.5	△10.6	△2.0
맥 류	10.4	104	104	101.9	101.9	△2.0	0.0
잡 곡	4.2	108.6	108.5	107.5	107.3	△1.1	△0.2
두 류	8.4	123.1	122	107.2	100.3	△17.8	△6.4
서 류	15.4	153.4	142.8	83.5	81.9	△42.6	△1.9
청 과 물	328.2	99.7	97	103.2	100.1	3.2	△3.0
채 소	207.2	98	93.2	111.8	106.8	14.6	△4.5
과 실	121	102.5	103.4	88.5	88.5	△14.4	0.0
축 산 물	225.2	139.5	141.6	158.5	154.5	9.1	△2.5
가 축	196.5	142.3	144.9	165	160.5	10.8	△2.7
유 란	28.7	120.7	119.3	114.1	113.7	△4.7	△0.4
기 타	58.6	108.4	110.1	121.2	121.1	10.0	△0.1
특 작	45.3	115.7	116.4	126.9	126.3	8.5	△0.5
화 화	12.7	80.6	86.1	99.6	101.4	17.8	1.8
부 산 물	0.6	142.8	142.8	149.9	149.9	5.0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심송보 연구원(simsb)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이 12.3%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출하량 증가로 과실 역시 14.4% 하락하였음.
- 곡물 중 두류와 서류의 하락폭이 컸으며 곡물 판매가격의 하락은 3/4분기에 이어 지속됨.
- 청과물중 과일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채소는 14.6% 상승함.
- 11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7% 상승한 125.4를 기록해 3/4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
- 가계용품은 광열수도(9.2%), 교육비(5.2%) 등이 상승하여 전년 대비 4.1% 상승함.
- 농업용품은 비료(10.0%), 영농광열(6.2%), 가축(8.8%) 등이 상승하였으나 사료(11.1%)와 영농자재(4.4%)비가 하락하여 1.0% 상승에 그침.
- 농촌임료금은 농업노동임금(0.6%)이 소폭 상승하고 도정료(1.4%)가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00년=100)

	가중치	2004		2005		등락률(%)	
		10월	11월	10월	11월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총 지 수	1000	122.7	122.1	126.6	125.4	2.7	△0.9
가 계 용 품	559.3	119.8	118.5	124.9	123.4	4.1	△1.2
식 료 품	100.7	133.2	126.9	137.3	130.4	2.8	△5.0
피 복 및	27.6	107.8	105.1	111.6	111.6	6.2	0.0
가 구 집 기 및	42.2	95.8	96.1	94.7	94.8	△1.4	0.1
광 열 수 도	50	129.2	128.8	142.7	140.7	9.2	△1.4
보 건 의 료	79.5	117.2	117.2	120.5	120.5	2.8	0.0
교 육	111.1	128	128	134.7	134.7	5.2	0.0
교 양 오 락	7.9	104.1	104.1	104.7	104.7	0.6	0.0
교 통 통 신	109.4	111.1	111	114.9	114.5	3.2	△0.3
기 타 잡 비	30.9	116.2	116	125.3	125.4	8.1	0.1
농 업 용 품	359.4	127.7	128.1	130.5	129.4	1.0	△0.8
종 자	19.6	97.1	97.1	97.6	97.6	0.5	0.0
비 료	34.2	113.7	121	133.1	133.1	10.0	0.0
농 약	39.8	100.7	100.7	95.1	95.1	△5.6	0.0
농 기 구	93.3	101.2	101.7	105.8	105.8	4.0	0.0
영 농 광 열 비	28	134.5	135.1	150.1	143.5	6.2	△4.4
가 축	45.8	198.6	200.1	215.7	217.7	8.8	0.9
사 료	63.4	145.6	139.8	126.2	124.3	△11.1	△1.5
영 농 자 재	35.3	129.1	133.3	133.3	127.5	△4.4	△4.4
농 촌 임 료 금	81.3	120.6	120.7	121.1	120.9	0.2	△0.2
농업노동임금	36.8	122.7	122.9	123.7	123.6	0.6	△0.1
기 타 임 금	2.2	125.2	125.5	125.7	126.3	0.6	0.5
도 정 료	7.4	119.7	119.5	118	117.8	△1.4	△0.2
농기계임차료	34.9	118.3	118.3	118.7	118.3	0.0	△0.3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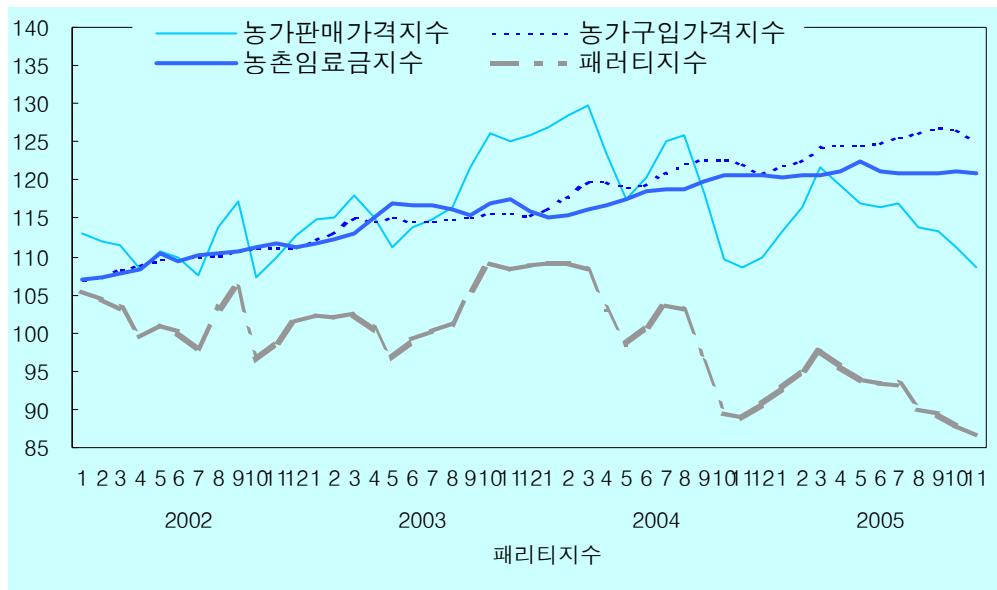
- 11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08.6, 구입가격지수가 125.4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은 86.6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9% 포인트 악화됨.

농가교역조건 변화

	2004		2005		등락률(%P)	
	10월	11월	10월	11월	전년동월	전월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09.6	108.7	111.2	108.6	-0.1	-2.3
농가구입가격지수(B)	122.7	122.1	126.6	125.4	2.7	-0.9
농가교역조건(A/B*100)	89.3	89.0	87.8	86.6	-2.7	-1.4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농업인력

- 2005년 11월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84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함.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 및 임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반면 어업은 15.0% 감소하였음.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2004		2005		증감률(%)	
		3/4	11월	3/4	11월	전년 동기대비	전월 대비
경제활동인구		23,482	23,621	23,893	23,976	1.5	△0.3
취업자	전 산업	22,647	22,802	23,026	23,191	1.7	△6.1
	농림어업	1,933	1,829	1,965	1,842	1.7	0.7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4. 농산물 수출입

4.1. 수출동향

- 2005년 1~11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0억 18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함.
- 신선농림축산물은 김치를 제외하고 호조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해 5억3700만 달러를 기록함.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실류(26.6%)와 돼지고기(61.9%), 가금류(207.4%)가 3/4분기에 이어 크게 증가함.
- 가공 농림축산물은 목재류의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식품의 수출호조로 전년동기대비 4.8%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4	2004. 1~11	2005. 1~11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농 립 축 산 물	2,085.0	1869.4	2001.8	7.1
농 산 물	1,758.5	1,574.5	1,702.8	8.1
축 산 물	162.7	140.0	156.2	11.6
임 산 물	163.9	154.9	142.8	△12.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품목의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품 목	2003	2004	2005 (목표)	2004. 1~11	2005. 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채 소	100.6	127.0	132.0	110.6	123.3	11.5
김 치	93.2	102.7	112.0	92.4	87.4	△5.4
인 삼	66.6	89.2	100.0	67.0	72.9	8.8
화 휘	45.3	48.5	54.0	39.4	43.9	11.4
과 실	70.5	85.7	85.0	74.3	94.1	26.6
돼 지 고 기	31.3	27.3	27.0	20.2	32.7	61.9
가 금 육	5.7	3.5	5.0	2.7	8.3	207.4
산림부산물	96.2	67.0	85.0	65.2	74.4	14.1
가 공 식 품	1,269.5	1,437.2	1,605.0	1,308.0	1,396.4	6.8
목 재 류	80.9	96.9	95.0	89.6	68.4	△23.7
합 계	1,859.8	2,085.0	2,300.0	1869.4	2001.8	7.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일수출은 주요수출품목인 김치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침. 대중국 수출은 가공식품과 화훼류 수출호조로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함.

4.2. 수입동향

- 2005년 11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107억 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함. 김치(67.5%), 돼지고기(78.2%), 닭고기(118.1%) 등이 크게 증가하고 곡물류, 대두박 등 박류는 각각 10.4%, 9.4%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4. 1~11	2005. 1~11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농 립 축 산 물	11204.8	10,178.4	10,744.8	5.6
농 산 물	7,444.6	6,741.5	6,661.2	△1.2
축 산 물	1,755.3	1,582.2	2,142.0	35.4
임 산 물	2,004.9	1,854.7	1,941.6	4.7

자료: 농림부

주요 품목의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2003	2004	2004. 1~11	2005. 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 수 수	1,054.6	1,437.5	1307.1	1096.6	△16.1
밀	612.1	665.2	604.5	608.6	0.7
대 두	410.7	487.4	449.8	333.3	△25.9
쇠 고 기	1,177.0	600.4	542.9	665.6	22.6
돼지고기	195.9	352.5	316.6	563.5	78.1
닭 고 기	95.0	55.5	48.0	104.7	118.1

자료: 농림부

- 11월까지 열대과일 수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오렌지를 제외한 키위, 포도, 파인애플, 포도, 바나나 등이 증가함. 오렌지 수입은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13.1% 감소함.

열대과일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2003	2004	2004. 1~11	2005. 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오렌지	112.6	136.7	176.5	153.3	△13.1
키위	22.5	44.7	43.0	50.9	18.2
포도	17.7	16.9	38.9	50.1	28.8
파인애플	16.4	24.4	34.8	45.5	31.0
바나나	90.7	86.7	82.0	108.4	32.1
레몬	3.9	4.4	4.8	5.9	22.4

자료: 한국무역협회

4.3. 지역별 수출입동향

가.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동향

- 2005년 1~11월 중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금액 기준으로 29.1%, 물량기준으로 60.6% 증가함.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04. 1~11		2005.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5953.2	2412.1	9559.9	3113.2	60.6	29.1
농산물	3356.8	981.1	7032.2	1573.9	109.5	60.4
축산물	20.0	33.3	35.9	63.1	79.2	89.7
임산물	2132.5	578.1	2028.7	628.6	△4.9	8.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대중국 수출 품목의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품 목	2003	2004	2004. 1~11	2005. 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과 자 류	12.5	25.1	21.8	37.4	71.4
면 류	18.0	16.8	15.9	13.1	△17.5
당 류	24.3	30.2	26.0	32.4	24.6
화 화 류	10.0	8.0	5.4	11.4	112.9
커 피 류	7.6	11.6	10.2	12.7	24.5
합 관	15.3	20.9	19.2	4.3	△77.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11월까지 중국으로 주 수출품목인 가공식품과 화훼류가 호조를 보였으나 증가폭은 작아져 과자류 71.4%, 화훼류 112.9% 증가함.

나. 대일본 농산물 수출입동향

- 11월까지 대일 수출은 6억 524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20만불 감소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신선농림축산물은 김치와 산림부산물이 각각 5.5%, 4.5% 감소해 총 1.1% 감소함.
 -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출금액 증가폭도 크게 둔화되어 각각 7.2%, 3.9% 증가에 그침.
 - 가공농림축산물 역시 목재류의 수출부진이 지속되어 0.9% 증가에 그침.

대일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3	2004	2004.1~11	2005.1~11	비중 (%)	전년동기비 증감률(%)
채 소	76.0	97.0	84.2	91.4	74.1	8.6
김 치	87.2	96.9	87.1	81.6	93.4	△6.3
인 삼	29.2	32.8	26.9	26.5	36.4	△1.5
화 훼	29.7	36.2	30.5	27.8	63.3	△8.9
과 실	7.0	11.4	9.4	13.3	14.1	41.5
돼 지 고 기	0.9	4.5	4.5	0.5	1.5	△88.9
가 금 육	4.5	2.2	1.5	6.4	77.1	326.7
산림부산물	66.8	36.1	35.7	31.2	41.9	△12.6
가 공 식 품	329.1	385.7	349.5	352.9	25.3	1.0
목 재 류	27.1	25.8	23.3	20.8	30.4	△10.7
합 계	657.5	728.6	652.6	652.4	32.6	0.0

주: 비중은 전체 수출 중 일본 수출비중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I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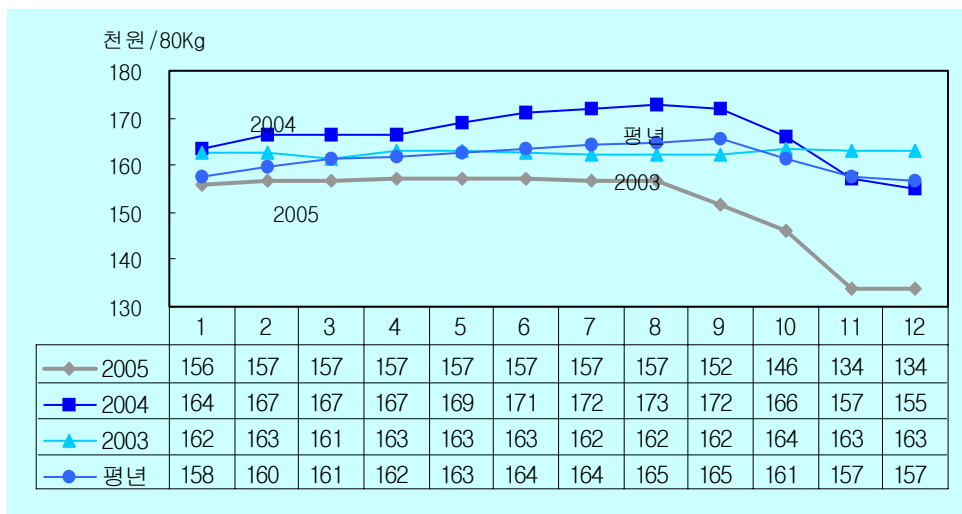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⁶⁾

1.1. 쌀

- 2005년도 쌀 재배면적은 97만 9,717ha로 전년도 재배면적 100만 1,158ha에 비해 2.1% 감소하였으며, 쌀 생산량은 477만 톤으로 전년도 생산량 500만 톤에 비해 4.6% 감소함.

- 논면적이 전년도보다 2만ha 감소하였으며 10a당 수확량 역시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감소하였기 때문임.

쌀 도매가격 동향 (전라미, 상품 기준)



주: 평년은 2000~04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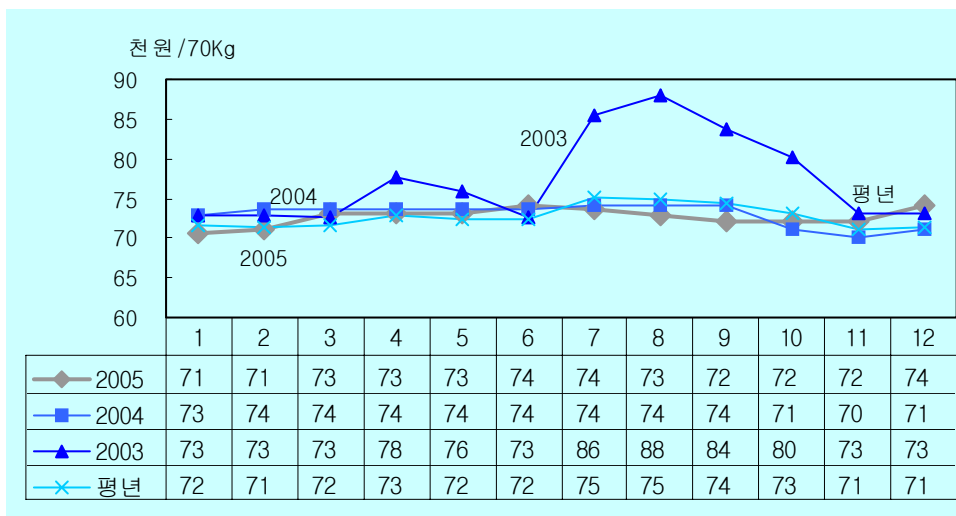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심송보 연구원(simsb@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 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9월 들어 하락한 쌀가격은 이후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음. 12월 현재 쌀 도매가격은(전라미, 상품기준) 80kg 당 13만 4천으로 전년 동월대비 13.5% 하락하였으며, 평년 대비 14.6% 하락함.

1.2. 보리

- 2005년도 보리(쌀보리) 재배면적은 2만 8,362ha로 전년도 2만 6,552ha에 비해 6.8%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14만 1,000톤으로 전년도 12만톤에 비해 18.1% 증가함.
- 쌀보리는 주산지인 전북에서 겉보리 대체작물로 경작이 확대되고 계약재배 증가로 면적이 2004년에 이어 증가함. 작황역시 좋아 대부분 지역의 10a당 수확량도 증가함.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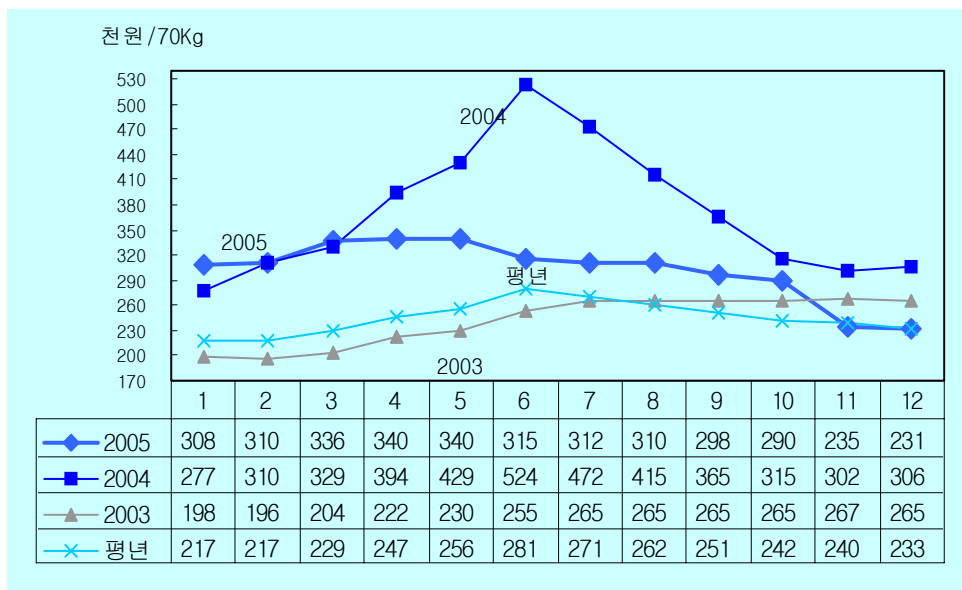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0~04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3/4 분기 들어 소폭 하락한 보리(쌀보리, 상품기준) 평균 도매가격은 12월 들어 70kg당 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2%, 평년대비 3.8% 상승함.

1.3. 대두

- 2005년도 콩 재배면적은 10만 5,421ha로 전년도 8만 5,270ha에 비해 23.6%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18만 3,338톤으로 전년도 13만 8,570톤에 비해 32.3% 증가함.
 - 재배면적과 10a당 수확량이 늘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
- 대두 평균 도매가격(국산 백태, 상품기준)은 3/4분기에 하락세를 이어가 12월 가격은 2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4.5%하락함.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주: 평년은 2000~04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4. 사료곡물

- 2004년도 사료곡물 수입량은 723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1.3% 증가한 12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함.
- 2005년 1~11월중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은 605만 6,000톤으로 전년 동기의 567만 톤에 비해 6.3% 증가하였으나 단가하락으로 수입액은 12.7% 감소함. 사료용 밀 수입량은 113만 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수입액 또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함.

주요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구 분			2003	2004	2004.1~8	2005.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수수	수입량	천톤	6,605	6,279	5,673	6,056	6.3
	수입액	백만US\$	773	1,047	958	850	△12.7
밀	수입량	천톤	1,372	953	869	1,138	23.6
	수입액	백만US\$	150	165	151	165	8.2
계	수입량	천톤	7,977	7,232	6,542	7,194	10.0
	수입액	백만US\$	923	1,212	1,109	1,015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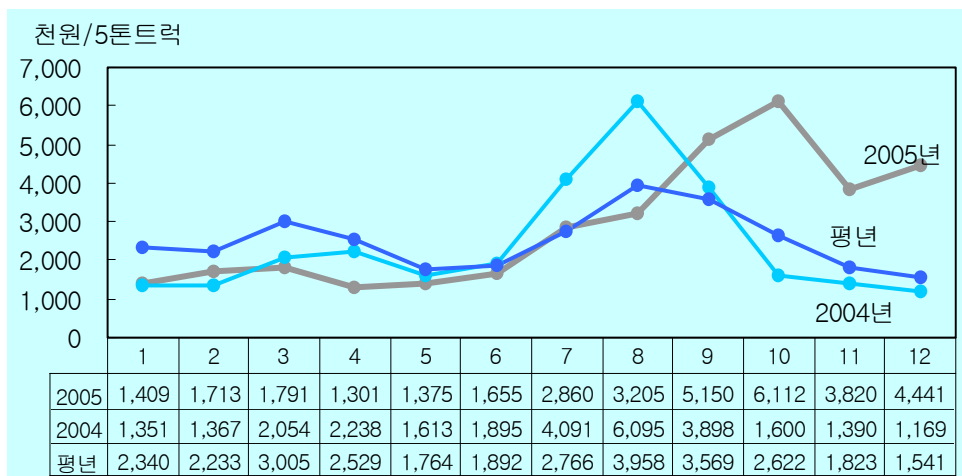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

2.1. 배추

- 배추의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5톤트럭당 479만원으로 3/4분기보다 28%, 평년 동기보다는 140% 높은 수준이었음.
- 가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20% 내외 감소하였고, 중국산 김치의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김치 수입도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도 나빴기 때문임. 12월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3배 이상, 평년보다는 2배 높았음.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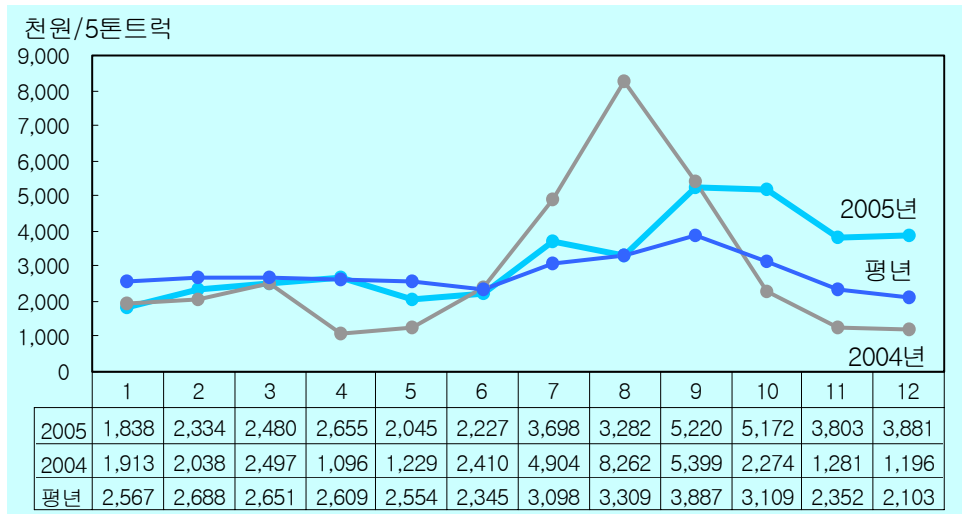
- 월동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월동배추 생육상황은 정식이후 기상 호조로 작년 동기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예상단수는 작황이 좋았던 작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조사됨.

- 월동배추 재배면적과 예상단수 고려할 경우, 금년 월동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5%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내년 1~3월의 도매가격은 상품 5톤트럭당 200~250만원으로 가격이 낮았던 금년 동기보다 30% 내외 높으나, 평년 동기와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나빠질 경우 가격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내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금년 봄배추 가격은 낮았으나, 현재 가을배추 가격이 높아 봄배추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늘리려 하기 때문임.

2.2 무

- 무의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5톤트럭당 429만원으로 3/4분기보다 5%, 평년 동기보다 70% 높은 수준이었음.
 - 가을무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하여 9월 중순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고, 12월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3배 이상, 평년보다는 85% 높았음.
- 가을무 저장량은 저장계획면적은 작년보다 63% 적을 것으로 추정됨.
- 제주도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기상여건이 없는 한 생산량은 작년보다 8% 적을 것으로 추정됨.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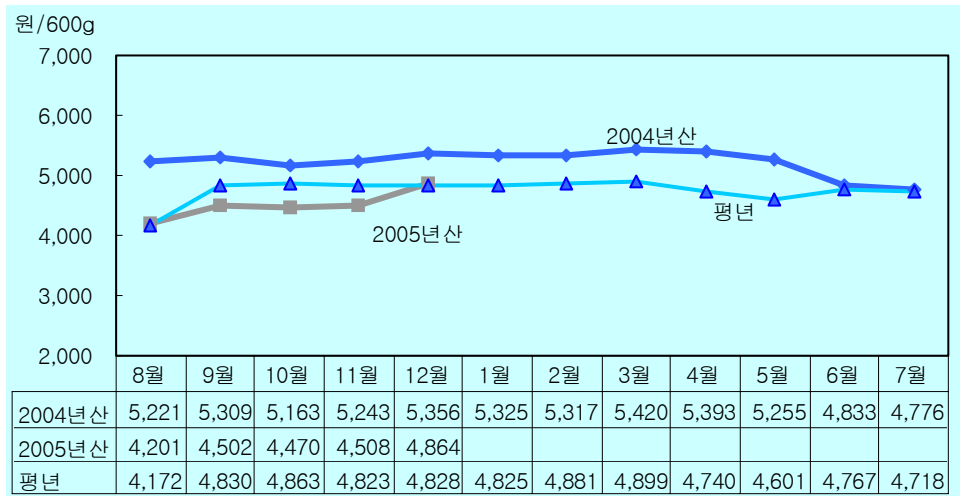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따라서 내년 1~3월 저장·월동무 총공급량은 금년보다 18%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 1~3월의 도매가격은 상품 18kg당 6,000~7,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0%, 평년 동기보다는 20%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나빠질 경우 가격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내년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금년 재배면적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금년 가을무 가격이 높아, 봄무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늘리려 하기 때문임.

2.3 고추

- 화건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600g당 4,61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5%, 작년 동기보다 12% 낮았지만, 3/4분기보다는 3%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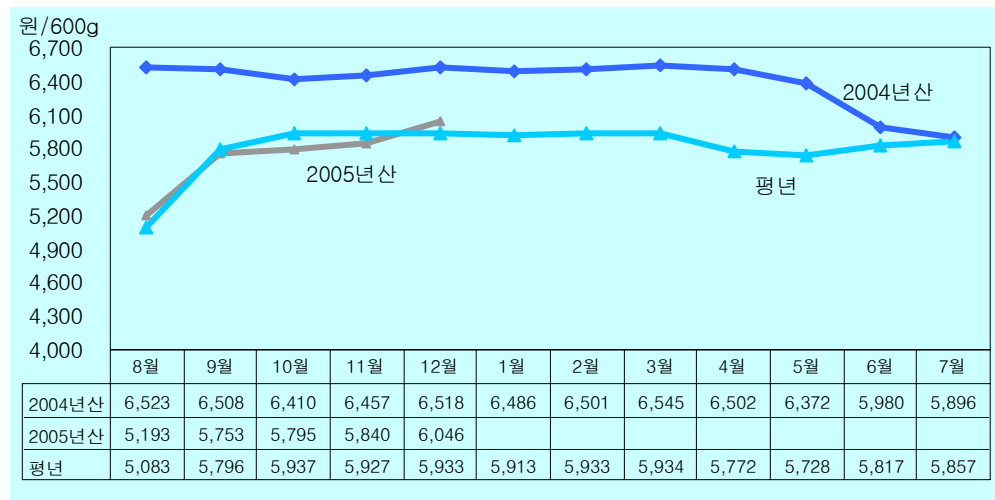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0.8~2005.7월 평균이며, 12월 가격은 1~6일까지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양건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600g당 5,89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1%, 작년 동기보다 9% 낮았지만, 3/4분기보다는 5% 높은 수준.
- 이처럼 고추가격이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낮은 이유는 작황호조로 작년보다 생산량이 4% 증가하였고, 수입량도 평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1%, 평년보다는 10% 감소한 61,299ha, 10a당 수량은 작년산보다 5%, 평년보다는 3% 많은 263kg이어서 생산량은 작년산보다 4% 많은 반면, 평년보다는 7% 적은 16만 1,213톤으로 확정 발표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추 도매가격 동향 (양건,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0.8~2005.7월 평균이며, 12월 가격은 1~6일까지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금년 중국 고추 생산량은 중국 익도산 고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작년보다 증가하였음.
- 11월말 현재 중국 산둥성의 익도산 고추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30% 많은 4,000톤 수준. 산지 가격은 톤당 6,000元으로 작년 동기 10,000元보다 40% 낮은 수준.
- 중국산 건고추 민간수입 가능원가는 600g당 4,430원, 도매원가는 4,79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11% 낮은 것으로 추정.
- 냉동고추(꼭지제거) 창고보관가격은 톤당 2,200元으로 작년 동기 3,500元보다 59% 낮은 수준. 냉동고추 600g당 민간수입원가는 387원으로 작년보다 4% 낮고, 건조후 판매원가는 3,049원으로 작년 동기 보다 3% 낮은 것으로 추정.

- 11월말 현재 이월량은 2,568톤으로 작년 동기 1,000톤보다 1,568톤 많음. 금년 8~11월말까지 고추수입량은 건고추 수입량과 고추관련품목을 건고추로 환산하여 더한 결과 2만 3,693톤으로 작년 동기 2만 5,290톤보다 6% 적은 수준. 금년 8~11월말까지의 이월 및 수입량은 2만 6,261톤으로 작년 동기 2만 6,290톤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추정.
- 금년 8~11월말까지의 고추 공급량은 18만 7,474톤으로 작년 동기 18만 1,252톤보다 3% 많고, 소비량도 13만 7,350톤으로 작년 동기 13만 1,740톤보다 4% 많은 것으로 추정. 11월말 현재 재고량은 5만 124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동기 4만 9,512톤보다 1% 많은 수준.
- 12월 이후 고추 수입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 12월 이후 화건 상품 600g당 평균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는 낮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4,700~5,000원으로 전망.

고추 공급량 추정 (11월말 현재)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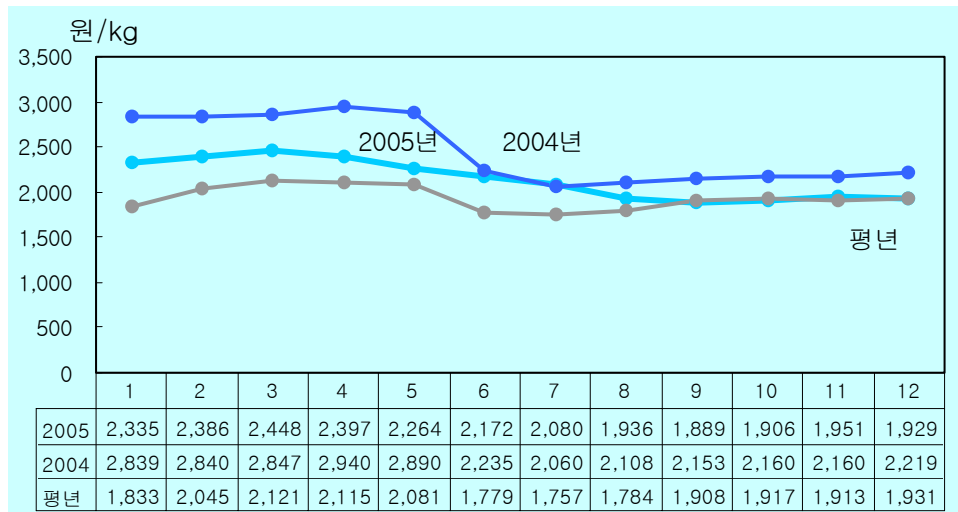
연산	생산량 (A)	8~11월 이월·수입량 (B)	공급량 (C=A+B)	8~11월 소비량(D)	11월말 재고량 (E=C-D)
2004	154,962	26,290	181,252	131,740	49,512
2005	161,213	26,261	187,474	137,350	50,124
증감률(%)	4.0	-0.1	3.4	4.3	1.2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2.4. 마늘

- 마늘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930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3/4분기 및 평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작년산보다 5% 많은 37만 4,980톤이며, 이중 민간저온저장량은 2% 적은 7만 2,900톤으로 조사되었음. 민간저온저장량 중 11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보다 23% 적은 1만 6,000톤, 재고량은 7% 많은 5만 6,900톤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늘 저온저장량 추정

단위: 톤

연산	저장량	11.20일까지 출고량	11.20일 현재 재고량	11.20일 현재 정부비축물량	조정재고량 (부패율적용)
2004	74,000	20,700	53,000	5,950	48,900
2005	72,900	16,000	56,900	2,400	48,800
증감률(%)	-1.5	-22.7	6.8	-59.7	-0.2

주: 조정재고량은 작년 부패율은 19.4%, 금년은 18.8%를 적용하여 환산.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출고량이 작년 동기보다 적었던 것은 중국산 마늘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우려로 저장업체들이 출하를 늦춰 매기가 부진하였기 때문임. 민간저온저장량 5만 6,900톤에 정부비축물량 2,400톤을 포함한 금년산 마늘의 11월말 현재 조정재고량은 부패율을 적용할 경우 작년 동기와 비슷한 4만 8,800여 톤으로 추정됨.
- 11월 현재 저온저장량은 작년과 비슷하고, 민간수입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5년 MMA 물량(1만 4,467톤) 잔여분 8,000여톤(작년 3,000톤)이 신선·냉장마늘로 수입되면 재고량은 작년보다 10%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12월 이후 내년 4월까지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은 2,000~2,2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금년산보다 4% 가소한 3만 500ha로 조사되었음.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금년과 비슷하고, 난지형은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내년산 재배면적에 최근 3개년 평균단수를 적용한 내년산 마늘 생산량은 35만 7,000톤(재배면적 3만 500ha, 평균 단수 1,169kg)으로 금년산 생산량37만 5,000톤보다 5% 적을 것으로 추정됨.

내년산 마늘 재배면적의 금년산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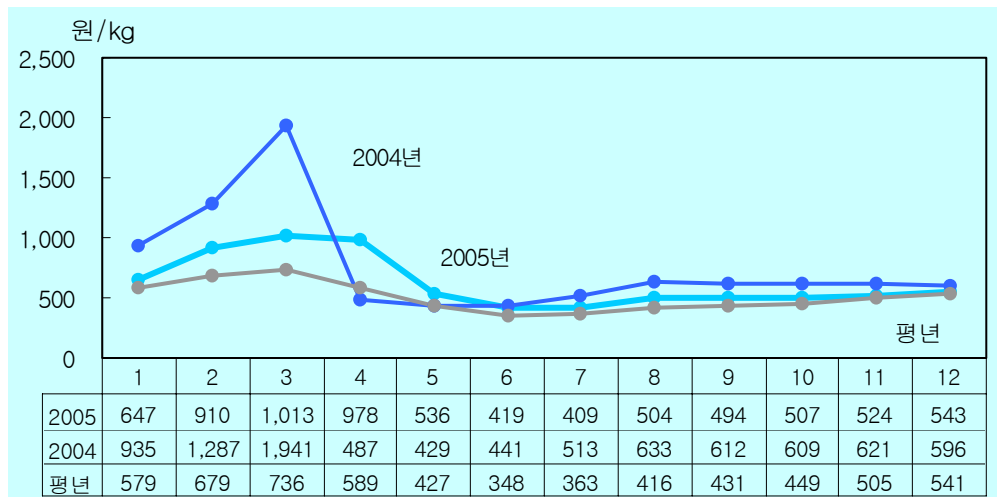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한지형	1.8	0.6	5.0	-	-1.1	-	-	0.0
난지형	-	-0.8	3.4	-8.3	-0.6	-3.9	1.9	-4.8
전체	6.0	-0.1	3.9	-8.3	-1.0	-3.9	1.9	-3.8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5. 양파

- 양파의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530원(상품 기준)으로 3/4분기보다 12%, 평년 동기보다는 5% 높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14% 낮은 수준이었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8% 많은 102만 3,331톤이며, 이중 민간저온저장량은 작년보다 8% 많은 47만 8,200톤으로 조사되었음. 민간저온저장량 중 11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5% 많은 19만 6,600톤, 재고량은 11% 많은 28만 1,600톤으로 조사되었음.
- 출고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았던 것은 금년산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저온저장량 증가로 시장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았기 때문임.
- 금년산 양파의 평균부패율은 작년산 부패율(11%)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패율을 감안한 금년산 양파의 11월말 현재 조정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12% 많은 25만 2,000톤으로 추정됨.

양파 저온저장량 추정

단위: 톤

연산	저장량	11.20일까지 출고량	11.20일 현재 재고량	조정재고량 (부패율 적용)
2004	441,000	188,000	253,000	225,500
2005	478,200	196,600	281,600	252,100
증감률(%)	8.4	4.6	11.3	11.8

주: 조정재고량은 작년 부패율은 11.0%, 금년은 10.5%를 적용하여 환산.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양파 수입량이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온저장량도 작년 동기보다 많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양파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금년산보다 3% 증가한 1만 7,200ha로 조사되었음.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1% 감소하는 반면, 중만생종은 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내년산 재배면적에 최근 3개년 평균 단수를 적용한 내년산 양파 생산량은 104만 4,000톤(재배면적 1만 7,200ha, 평균 단수 6,079kg)으로 금년산 생산량 102만 3,000톤보다 2% 많을 것으로 추정됨.

내년산 양파 재배면적의 금년산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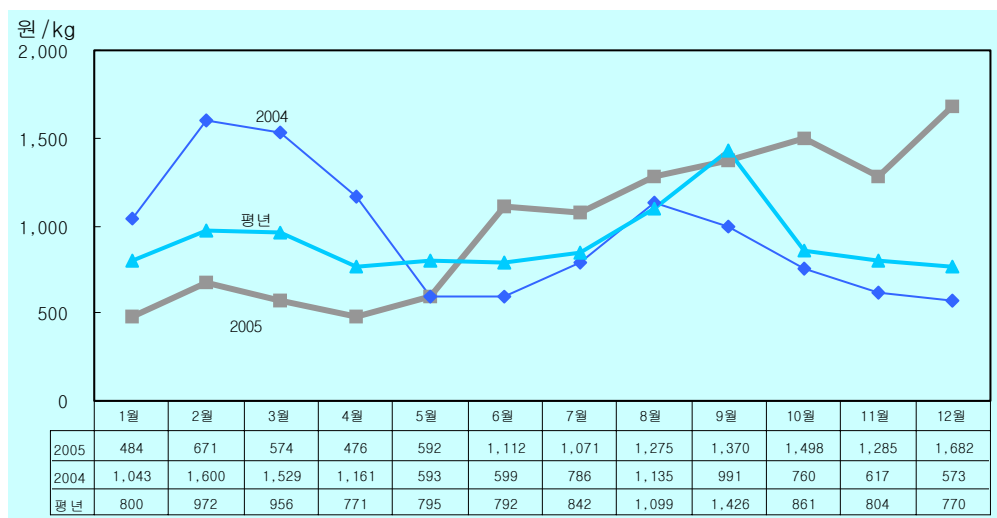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조생종	-	1.9	-	-	-7.3	-0.7
중만생종	-4.2	7.2	3.8	-2.7	1.9	3.7
전체	-4.2	6.2	3.8	-2.7	-5.6	3.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6 대파

- 대파의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49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두배 이상, 평년 동기보다 83%, 3/4분기보다 20% 높은 수준임. 이는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작황도 나빠 출하량이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적었기 때문. 특히, 12월에는 호남 지역 폭설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0~2004의 월 평균이며, 12월 가격은 1~6일까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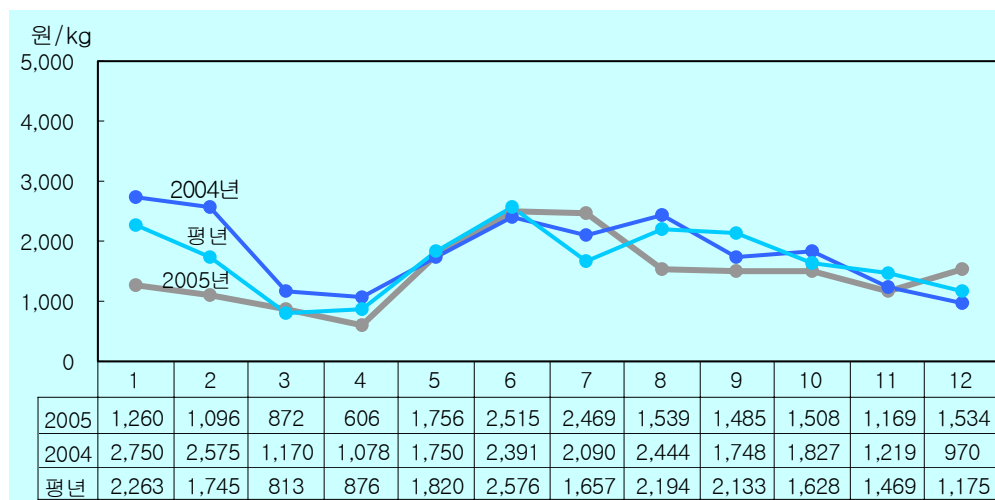
- 12월 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육상황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내년 1~4월 겨울대파 출하예상면적은 금년 동기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포전거래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높고, 포전거래 비율도 작년의 29%보다 크게 높은 53% 수준.

- 내년 겨울대와 출하예상면적이 금년보다 14% 감소하여 내년 1~4월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000원 내외로 전망.
- 내년 3월 이후에 출하될 하우스 월동대와 재배의향면적은 지난달조사치(11% 감소)와 반대로 금년 동기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2.7 쪽파

- 쪽파 4/4분기 상품 kg당 평균도매가격은 1,404원(중품 1,119원)으로 3/4분기보다는 23%, 평년 동기보다 1% 낮았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5% 높은 수준이었음.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 평균임. 1~3월 가격은 10kg(박스) 가격을 1kg으로 환산한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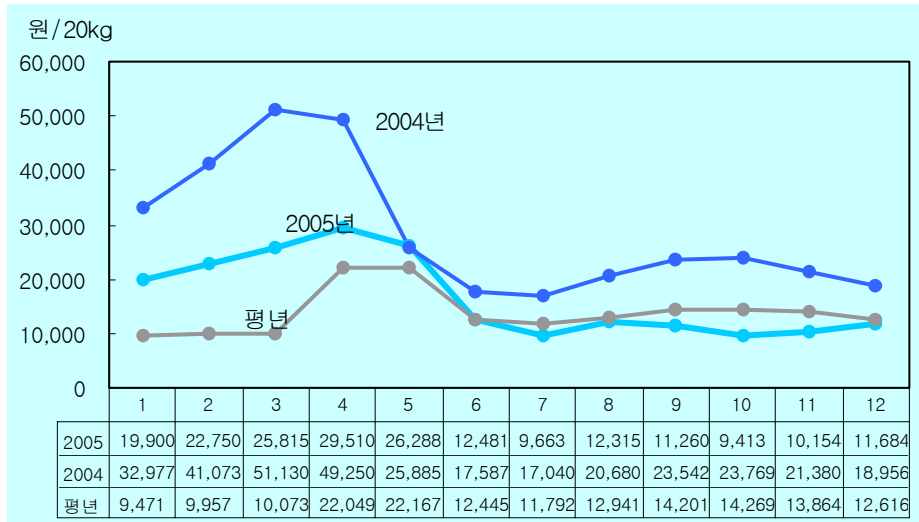
- 4/4분기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높았던 것은 12월 남부지방의 폭설로 인해 주 출하지인 전남, 제주에서 출하가 되지 않아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12월 쪽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예상단수는 6%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12월 쪽파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3% 적어,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상품 kg당 1,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1~4월 쪽파 출하예상면적은 금년 동기보다 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충청과 호남이 각각 2% 증가하는 반면 제주는 15%, 영남 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이는 8월 이후 쪽파 가격이 하락하였고, 금년 1~4월 가격도 낮아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였고, 특히 제주는 쪽파 농가들이 브로컬리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임.

2.8 감 자

- 수미 4/4분기 상품 20kg당 평균도매가격은 1만 417원(중품 5,878원)으로 3/4분기보다 6%, 작년 동기보다 51%, 평년 동기보다 23% 낮은 수준이었음.
- 4/4분기 가격이 2/4분기,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공급 과잉된 봄·고랭지감자의 출하가 계속 밀렸고, 부패율이 높아져 상품성도 나빠진 때문임.
- 12월 이후 고랭지 저장감자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70% 이상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많았던 데다 7월이후 가격도 낮아, 고랭지감자 출하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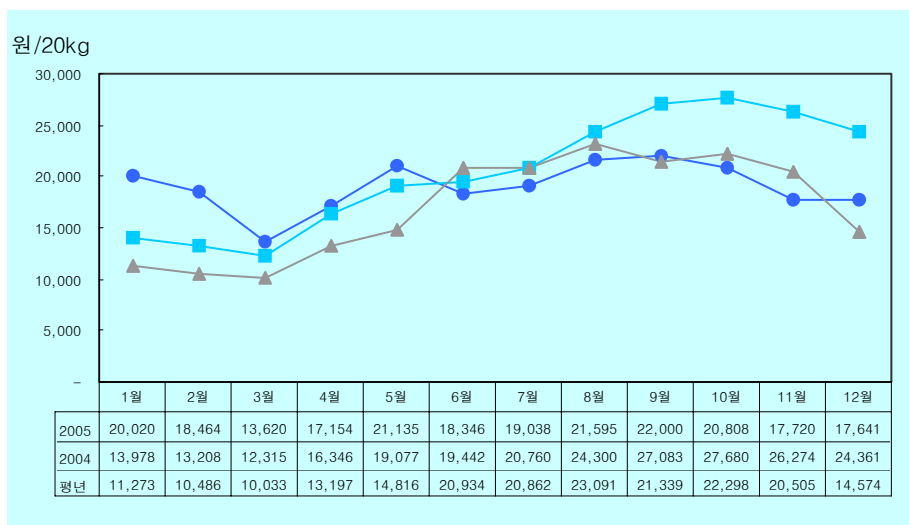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2월 이후 고랭지 저장감자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70% 이상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많았던 데다 7월이후 가격도 낮아, 고랭지감자 출하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 12월 이후 수미 출하예상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아, 평균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45% 이상 낮고 지난달과 비슷한 상품 20kg당 10,000원 내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시설감자를 제외한 금년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작년(4,179ha)보다 44% 증가한 6,035ha로 확정발표 되었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가을감자 예상단수는 기상여건의 호조로 주산지인 제주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14% 증가한 10a당 2,400kg 내외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2.9 당근

- 4/4분기 당근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17,640원으로 작년 동기(25,930원)보다 32% 낮고, 평년 동기보다도 3% 낮은 수준임.
- 4/4분기 가격이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작년 9월 제주 지역의 집중호우로 당근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출하물량이 적었기 때문임. 이에 비해 금년에는 상반기 중국당근 수입량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부산당근과 고랭지당근 출하 지연,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겨울당근의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인해 전체적인 당근물량이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임.

당근 도매가격(상품 기준)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 1~2월 당근 국내 출하예상면적은 풍수피해를 크게 입었던 금년과 달리 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 1월에는 작년 동기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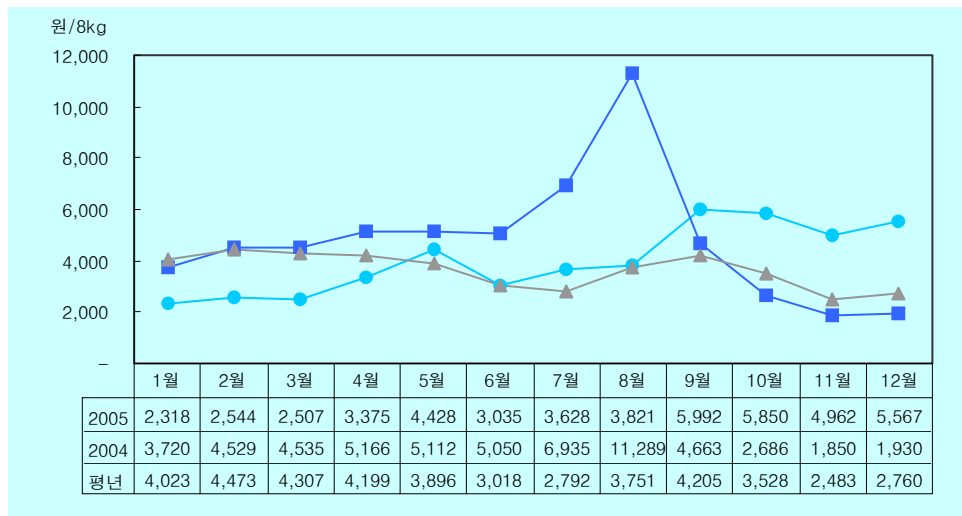
43%, 2월에는 71%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내년 1~2월 당근예상단수는 제주지역의 기상여건 호조로 금년 동기보다 21%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출하예상면적에 예상 단수를 적용한 내년 1~2월의 당근출하예상량은 60%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됨. 내년 1~2월의 당근 수입량은 제주지역 당근 생산량 증가로 금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당근 물량은 작년보다 크게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내년 1~2월의 당근 20kg 도매가격은 산지물량의 감소가 있지 않는 한 금년 동기보다 크게 낮고, 12월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제주 당근의 작황호조로 당근가격을 우려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려 하기 때문임.

2.10 양배추

- 4/4분기 양배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5,57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8%, 평년보다는 71% 높은 수준임.
- 3/4분기의 가격은 낮았으나, 4/4분기 가격이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크게 높았던 것은 주산지인 충청과 호남, 제주지역의 양배추 재배면적이 10% 내외 감소한데다, 충청지역의 양배추 작황도 좋지 않아 출하가능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적었던 것으로 조사됨. 또한, 양상추를 비롯한 타 채소류의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수요의 일부가 양배추로 대체되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임.

양배추 도매가격(상품 기준)



평년가격은 2000년 1월~2004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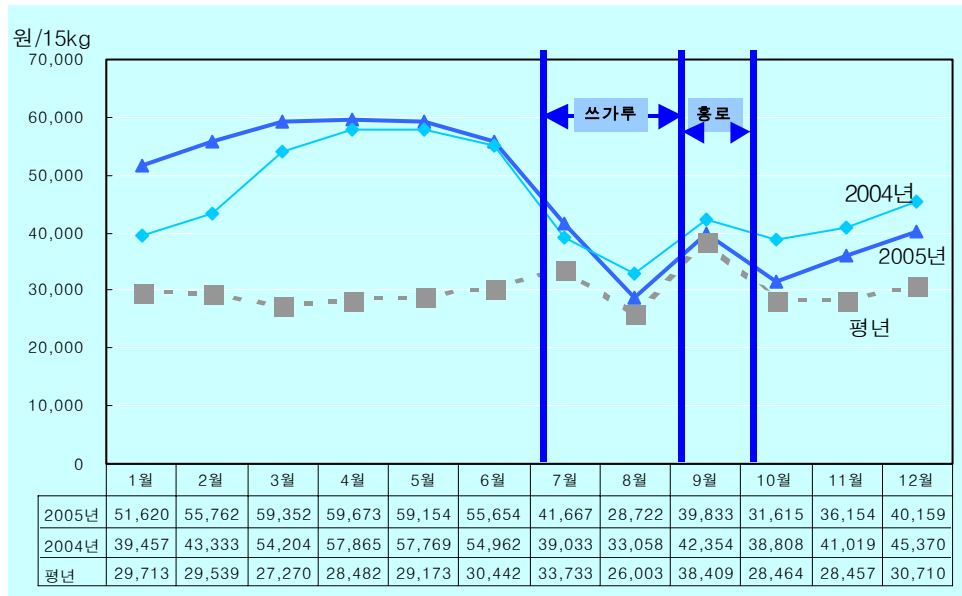
- 내년 1~2월의 양배추 출하예상면적은 1월에 6%, 2월에는 10% 적을 것으로 조사됨.
- 내년 1~2월 출하될 양배추의 작황은 적절한 강수와 일조량으로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예상단수는 6% 많을 것으로 조사됨.
- 출하예상면적에 예상단수를 고려한 내년 1~2월의 양배추 출하예상량은 내년 1월은 비슷하고, 2월에는 4% 적을 것으로 조사되어, 상품 8kg당 가격은 금년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금년 동기보다 5% 많을 것으로 조사됨. 이는 금년 봄양배추 가격은 낮았으나, 정식기인 현재 양배추의 가격이 높아 농가들이 재배면적이 늘리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충청이 2%, 호남 4%, 제주 6% 많을 것으로 조사됨.

3. 과일⁷⁾

3.1. 사과

- 4/4분기 사과 후지(상품 15kg) 가격은 10월 평균 3만 2천원, 11월 3만 6천원, 12월 4만원으로 작년보다 12~19% 낮지만 평년보다는 11~31% 높은 수준을 유지함. 이처럼 가격이 낮은 것은 생산량이 작년보다 3% 많고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임.

사과 도매가격 (상품)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0. 1~2004.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경필 부연구위원(kkphil@krei.re.kr), 박재홍(jhpark) 전문연구원, 이원진(wjlee), 박미성(mspark)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람.

- 내년 사과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440ha) 늘어난 2만 7,350ha가 될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로는 충청과 경북 지역이 각각 1%, 경남 지역이 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품종별로는 쓰가루 7%, 홍월 9% 감소하지만, 후지 3%, 기타 품종은 5% 증가하고 홍로는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임. 기타 품종으로는 후지 착색계통과 조숙계통 등 추석에 출하 가능한 중생종 위주로 신규식재가 활발할 것으로 보임.

사과 재배의 향면적

단위: ha, %

	충청	경북	경남	전체
'04년	5,536	16,846	2,522	26,676
'05년	5,852	16,852	2,524	26,907
'06년	5,912	17,077	2,667	27,347
증감률('06/'05)	1.0	1.3	5.7	1.6

주: '06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11월 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 시지역은 인근도에 포함.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과 품종별 재배의 향면적

단위: ha, %

	후지	쓰가루	홍로	홍월	기타	전체
'04년	18,392	2,254	2,073	835	3,122	26,676
'05년	18,271	2,177	2,120	746	3,593	26,907
'06년	18,727	2,030	2,125	679	3,785	27,347
증감률('06/'05)	2.5	-6.7	0.2	-9.0	5.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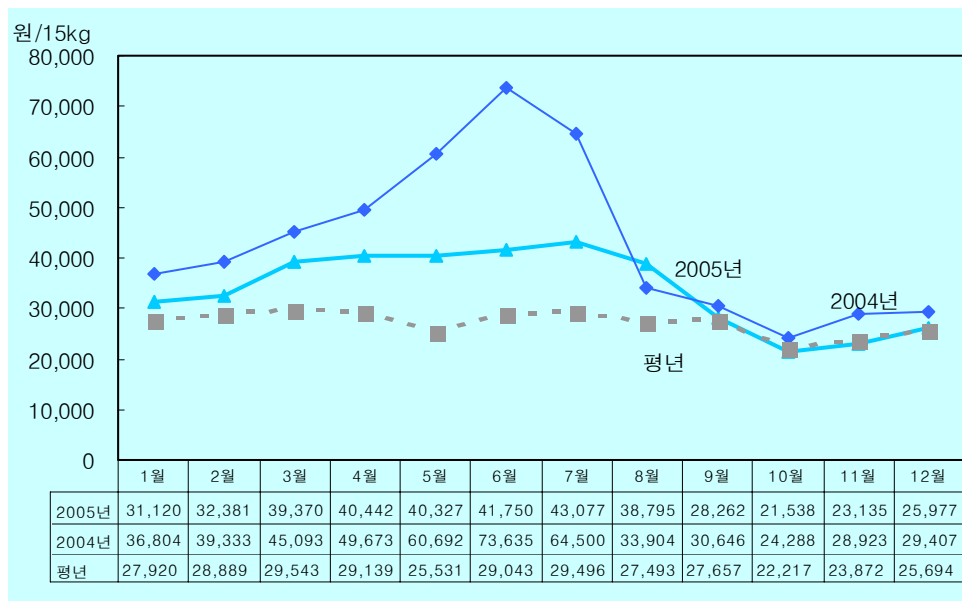
주: 각 연도 품종별 면적과 '06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11월 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2. 배

- 4/4분기 배 신고(상품 15kg) 가격은 10월 평균 2만 2천원, 11월 2만 3천원, 12월 2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11~20% 낮지만 평년과는 -3~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이처럼 가격이 낮은 것은 당도 등 품질이 작년보다 떨어지기 때문임.

배 도매가격 (신고, 상품)



주: 평년은 2000.1~2004.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 배 재배면적은 금년과 비슷한 2만 1,720ha가 될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과 영남 지역이 각각 1% 감소하고,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임.
- 품종별로는 장십랑 4%, 황금배 3%, 원황과 기타 품종이 1% 감소하지만, 신고 면적이 늘어 전체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보임.

배 재배의 향면적

단위: ha, %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체
'04년	4,261	6,189	5,303	6,660	22,982
'05년	4,205	5,609	5,150	6,297	21,807
'06년	4,172	5,586	5,168	6,244	21,721
증감률('06/'05)	-0.8	-0.4	0.4	-0.8	-0.4

주: '06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11월 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 시지역은 인근도에 포함.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배 품종별 재배의 향면적

단위: ha, %

	신고	장십량	황금배	원황	기타	전체
'04년	17,396	871	614	1,298	2,803	22,982
'05년	16,538	799	539	1,270	2,661	21,807
'06년	16,551	765	521	1,255	2,629	21,721
증감률('06/'05)	0.1	-4.2	-3.2	-1.2	-1.3	-0.4

주: 각 연도 품종별 면적과 '06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11월 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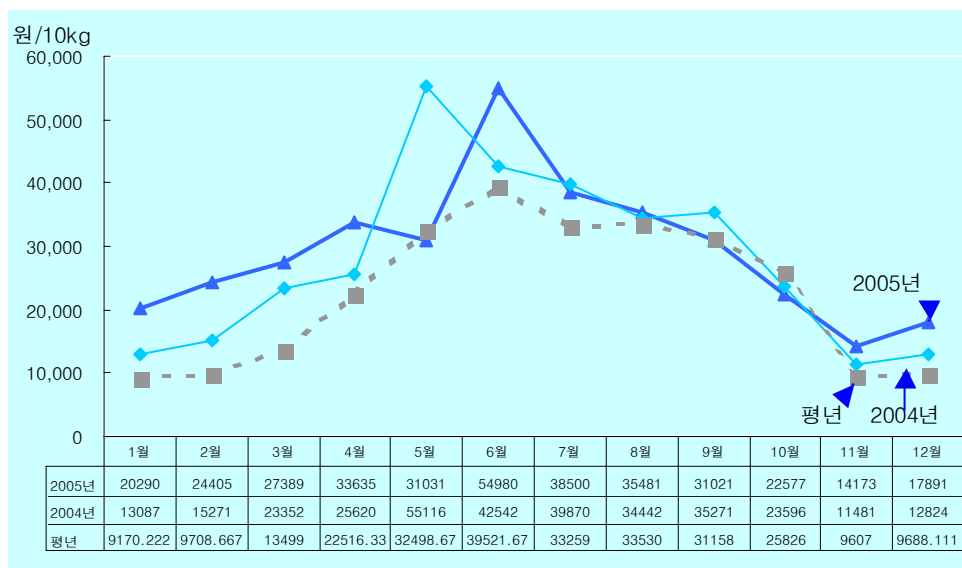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3. 감귤

- 10월 노지온주감귤 도매가격(상품 10kg)은 2만 2,6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 평년보다 12% 낮았음. 그러나 11월에는 1만 4,200원, 12월에는 1만 7,9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3~40%, 평년보다 48~85% 높은 수준이었음. 11~12월 감귤가격이 작년 및 평년보다 높았던 것은 공급량이 작년보다 적었고, 품질이 양호했기 때문임.
- 금년 노지온주감귤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3%, 성목단수도 2% 감소하여 작년보다 5% 감소한 5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노지온주감귤의 품질조사결과, 극소과 및 소과 비율은 작년과 평년보다 줄었으나, 극대과 비율은 늘었음. 또한 태풍피해가 없었고 장마가 짧아 중결점과 발생이 적었음. 상품 규격과 비율은 작년보다는 낮고 평년보다는 높은 편임. 당산비는 9.2(당도 9.7°Bx, 산도 1.05%)로 지난해의 9.8(당도 9.8°Bx 산도 1.0%)보다 낮지만 평년의 9.1(당도 9.8°Bx, 산도 1.07%)보다는 약간 높은 편임.

감귤 도매가격(상품)



주: 4~9월까지는 월동 및 하우스온주 5kg을 15kg으로 환산한 가격임. 평년은 1999. 1~2004.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산 월동온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0%(86ha)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작년산 1월 이후 감귤가격이 좋아 금년에는 노지에서 월동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크기 때문임. 단수는 작년보다 3% 감소하여 생산량은 16%(1,800톤) 증가한 1만 3천톤일 것으로 전망됨.

- 한라봉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증가한 1,182ha 수준으로 추정됨. 단수는 성목면적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생산량은 작년보다 20%(2,600톤) 증가한 1만 6천톤 일 것으로 전망됨.
- 내년 감귤 재배면적은 금년과 비슷한 2만 1,400ha 일 것으로 전망됨. 이중 노지온주는 1%, 하우스온주는 6% 감소하지만, 월동온주는 8%, 한라봉 및 만감류는 2~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노지온주는 우량품종으로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가온하우스온주감귤의 일부가 월동온주와 만감류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됨.
- 내년 가온하우스온주감귤 면적은 유류비인상 등의 이유로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가온시기별로는 극조기 15%, 보통과 후기는 5% 감소하지만, 조기가온은 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10~11월 오렌지 수입량은 산지가격 상승과 국내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작년 동기보다 42%, 평년동기보다 27% 감소한 2,157톤이었음.

감귤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증감률

단위: %

	온주			만감류		전체
	노지	하우스	월동	한라봉	기타	
증감률 (’06/’05)	-0.6	-5.9	8.0	2.7	2.2	-0.3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1~31일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에 의한 추정치.

하우스온주의 가온시기별 재배의향 면적

단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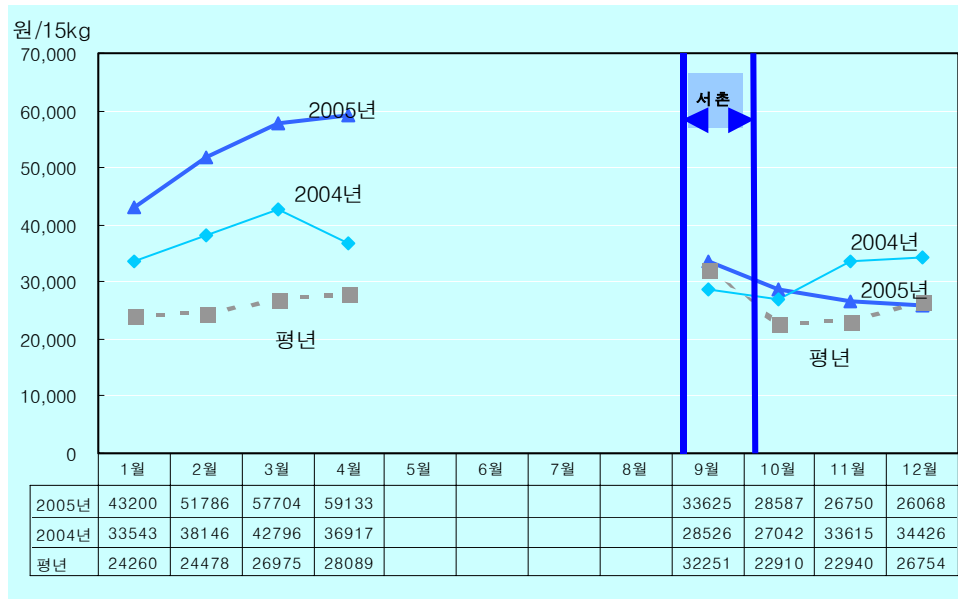
	극조기	조기	보통	후기	소계
'05	49	57	136	166	409
'06	42	59	129	158	387
증감율(%)	-15.0	2.1	-5.4	-4.9	-5.3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1~31일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치.

3.4. 단감

- 10월 단감 가격(부유 상품 15kg)은 2만 8,6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 높았음. 그러나 11월에는 2만 6,800원, 12월에는 2만 6천으로 작년 동기보다 20~25% 낮음. 11~12월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단감공급량과 사과 등 대체과일 공급량이 늘었으며, 당도, 외관 등 품질이 좋은 것은 대부분 저장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 위주로 출하되었기 때문임.
- 단감 생산량은 성목단수가 5% 증가하지만 성목면적이 6% 감소하여 작년보다 1% 감소한 19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는 경남이 6% 증가하지만, 경북은 4%, 전남은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단감(부유)의 당도는 생육 후반기의 일조량부족으로 작년보다 0.6°Bx 낮은 14.6°Bx로 조사되었음. 과중은 작년보다 4g 증가한 209g으로 조사되었음. 외관은 병해충피해가 많지 않아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

단감 도매가격(상품)



주: 9월은 서춘조생, 10월 이후는 부유 기준임. 평년은 2000. 1~2004.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 단감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1%(86ha) 감소한 1만 7,11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과수원 정비사업과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폐원 등으로 나타남.
- 품종별로 차랑과 서춘조생은 1~2% 감소하지만, 부유는 작년 수준, 상서와 기타품종은 1~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경남은 작년 수준이지만 전남은 1%, 경북은 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단감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부유	차랑	서촌	상서	기타	전체
'05	14,184	1,653	834	118	409	17,199
'06	14,126	1,634	816	119	417	17,113
증감률(%)	-0.4	-1.1	-2.2	0.9	2.0	-0.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1~31일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에 의한 추정치.

단감 지역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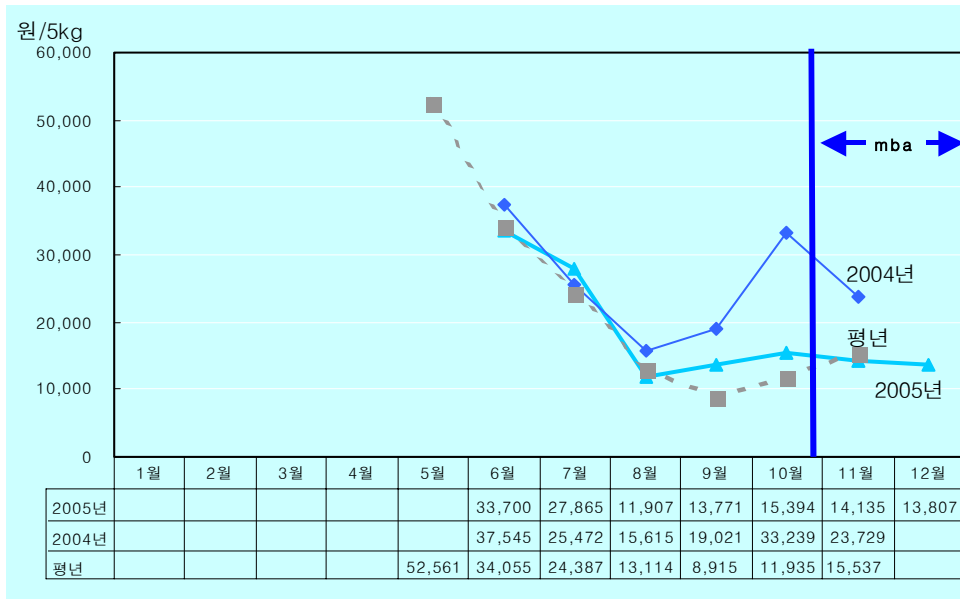
	경남	경북	전남	전체
'05	9,126	1,965	5,655	17,199
'06	9,103	1,916	5,607	17,113
증감률(%)	-0.3	-2.5	-0.8	-0.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1~31일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에 의한 추정치.

3.3. 포도

- 국내산 포도 상품가격은 10월과 11월에 작년보다 38~54%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7~24% 높았음. 작년 노지포도 가격은 성목면적의 감소(8%)로 인해 공급량이 적었고 기상 호조로 당도 등 품질이 좋아서 상당히 높았음. 반면, 금년 10월과 11월 포도 가격이 낮았던 것은 노지포도 작황이 좋아 포도 반입량이 작년보다 115~186%, 평년보다 13~17%나 많아졌기 때문임.
-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7%(1,444ha) 감소하지만 성목단수가 9% 증가하여 포도 생산량은 작년보다 1% 증가한 37만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포도 도매가격(상품)



주: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평균치임. 평년가격은 '00~'04년 일별 가격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5~6월 중순은 델라웨어, 6월 중순~10월은 캠벨, 11~12월은 MBA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 포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1%(290ha) 감소한 2만 1,770ha일 것으로 전망됨. 재배방법별로는 노지면적이 금년보다 2%(340ha) 감소하는 반면, 하우스면적은 2%(50ha)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원 폐업지원사업으로 인해 감소하는 하우스면적도 있지만 출하시기 조절 및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무가온 하우스면적을 중심으로 한 하우스면적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경기·강원은 FTA지원사업으로 무가온 시설 면적이 증가하여 금년보다 1% 증가하는 반면, 호남은 5%, 충청은 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품종별 면적은 캠벨얼리가 금년보다 2% 감소하고 거봉은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새단의 면적은 내년에도 9% 감소하겠고 새

단면적 감소분의 일부가 MBA로 갱신되어 MBA 면적은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포도 재배방법별 의향면적

		노지	하우스			전체
			가온	무가온	합계	
면적 (ha)	'05	20,106	470	1,481	1,951	22,057
	'06	19,769	470	1,526	1,996	21,765
증감률(%)		-1.7	0.0	3.1	2.3	-1.3

주: '05년 가온 및 무가온 하우스면적과 '06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년 면적).

포도 지역별 재배의향면적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전체
면적 (ha)	'05	3,528	10,861	1,751	5,919	22,059
	'06	3,569	10,826	1,672	5,697	21,765
증감률(%)		1.2	-0.3	-4.5	-3.7	-1.3

주: '06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시 지역은 인근도에 포함됨.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년 면적).

포도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캠벨얼리	거봉	MBA	새단	텔라웨어
면적 (ha)	'05	16,026	3,083	1,401	746	110
	'06	15,718	3,112	1,445	679	112
증감률(%)		-1.9	0.9	3.1	-9.0	1.8

주: 각 년도 품종별 면적 및 '06년 전체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년 전체면적).

3.4. 복숭아

- 10월 황도 가격(상품 4.5kg)은 지난해보다 17% 낮은 수준임. 이는

만생종 황도가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면적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공급량이 많아졌기 때문임.

- 복숭아 성목면적과 성목단수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복숭아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2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복숭아의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내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5%(730ha) 감소한 1만 4,290ha일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경기·강원은 금년보다 1%, 영남은 6%, 호남은 7%, 충청은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중·만생종 주산단지인 중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의 감소세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남.
- 내년 유모계 복숭아 면적은 금년보다 4%, 유모계에 비해 가격이 낮은 천도계는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조생종 복숭아 면적은 금년보다 7%, 중생종은 5%, 만생종은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수확기와 장마기가 겹치며 당도가 다소 떨어지는 조생종의 면적 감소율이 중만생종의 면적 감소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만생종 중 가격이 안정적인 장호원황도, 천중도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소폭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복숭아 지역별 재배의향면적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전체
면적 (ha)	'05	2,175	7,052	1,392	4,378	15,014
	'06	2,157	6,608	1,291	4,213	14,287
증감률(%)		-0.8	-6.3	-7.2	-3.8	-4.8

주: '06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시 지역은 인근도에 포함됨.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년 면적).

복숭아 품종별 재배의 향면적

		유모	천도	전체
면적 (ha)	'05	12,980	2,34	15,014
	'06	12,432	1,855	14,287
증감률(%)		-4.2	-8.8	-4.8

주: 각 품종별 면적 및 '06년 전체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년 전체면적).

복숭아 숙기별 재배의 향면적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면적 (ha)	'05	3,224	5,172	6,618
	'06	3,005	4,914	6,369
증감률(%)		-6.8	-5.0	-3.8

주: 각 숙기별 면적 및 '06년 전체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년 전체면적).

4. 과채류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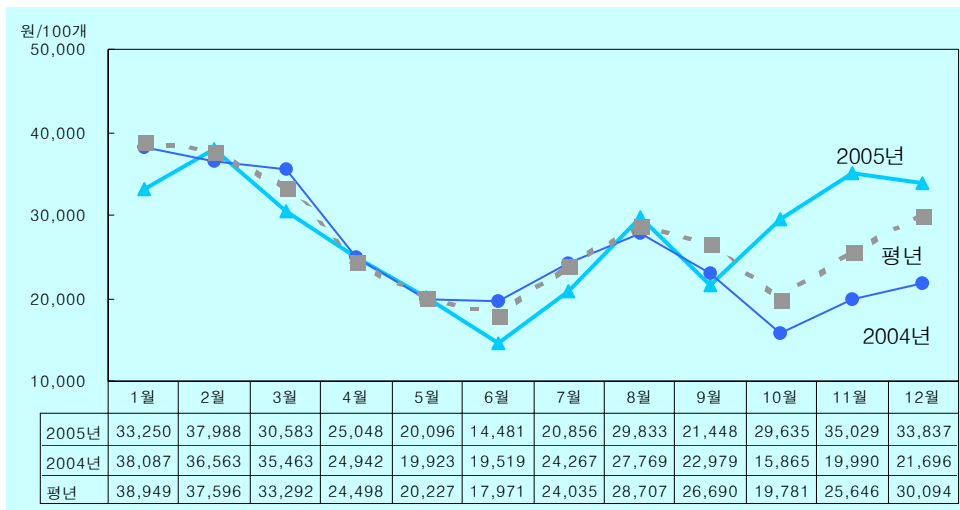
4.1. 오이

- 백다다기 오이의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0개당 10월 2만 9,600원, 11월 3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87%, 75% 상승하였음.
- 10~11월 오이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오이 주산지인 충남 공주·부여·천안 등지의 8~9월 억제 및 축성재배 정식면적의 감소로 출하면적이 줄어든 데다 가을철 주산지에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기온도 낮아(11월 대전기준 최저기온 1.4℃ 하락) 출하량이 작년보다 각각 27%, 22% 감소하였기 때문임.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부연구위원(kihwan@krie.re.kr), 정학균(hak8247), 김원태(wtkim), 최익창(cic),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12월 오이 도매가격은 백다다기 상품 100개당 3만 3,800원으로 작년보다 56% 높은 수준임. 이는 전남 순천, 구례 등지에 지속적으로 내린 눈으로(광주기준 적설량 99.2cm) 일조량이 줄어 출하량이 18% 감소하였기 때문임.
- 내년 1월 오이 출하면적은 금년 1월보다 8%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됨. 그것은 전남 순천·구례의 축성작형 취청오이 농가들이 고령화로 정식면적을 줄였기 때문임.
- 내년 1월 오이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20% 감소하고, 2월은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최근의 유가 상승에 의한 난방비 부담으로 반축성 오이 주정식 지역에서 정식기를 늦추려 하기 때문임. 내년 반축성 오이 재배는 유가상승으로 정식시기가 크게 변동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오이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소폭(2%) 감소할 전망이다.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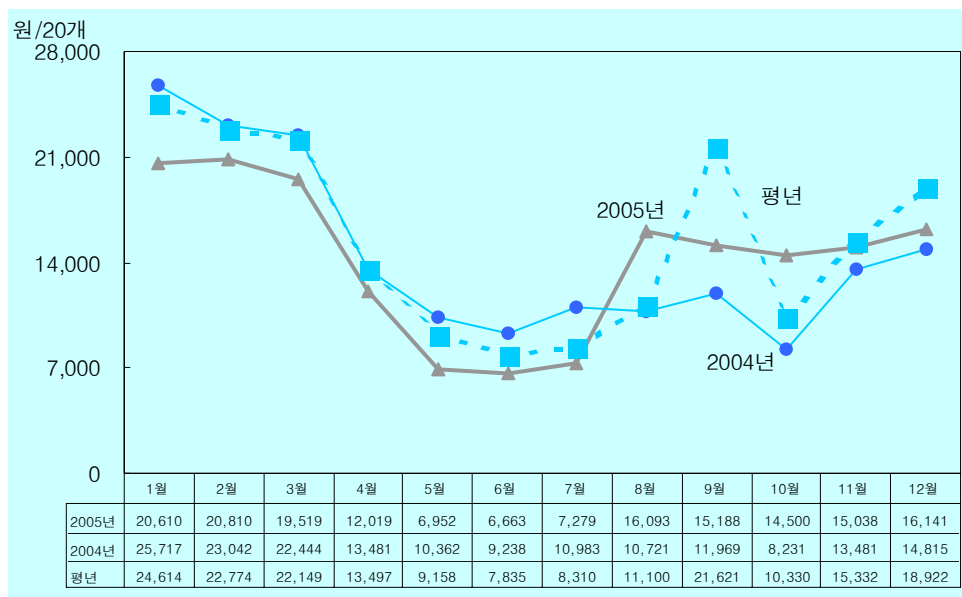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005년 12월은 27일까지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2. 호박(애호박)

- 애호박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20개당 10월 1만 4,500원, 11월 1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76%, 12% 상승하였음.
- 10월 애호박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애호박 주산지인 충남 부여, 충북 청원 등지에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대전기 준 작년대비 강수량 510% 증가) 출하량이 작년보다 14% 감소하였기 때문임. 11월은 출하량이 작년과 비슷하였으나(작년대비 11월 0.4%) 10월 가격 상승의 여파와 11월 상순 출하량 감소에 따른 애호박 상순 가격의 상승으로 11월 전체가격은 작년보다 높았음.

호박(애호박)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005년 12월은 27일까지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2월 애호박 가격은 상품 20개당 1만 6,100원으로 작년보다 9% 높은 수준임. 12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4% 증가하였음에도 12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소비대체재인 쥬키니 가격이 상승하여 애호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내년 1월 애호박 축성작형 출하면적은 금년 1월보다 4%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됨. 그것은 경남 진주, 전남 광양에서 오이, 풋고추, 피망 등을 재배하던 일부 농가가 정식기에 유가가 높아 난방비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 저온 작물인 축성작형 애호박으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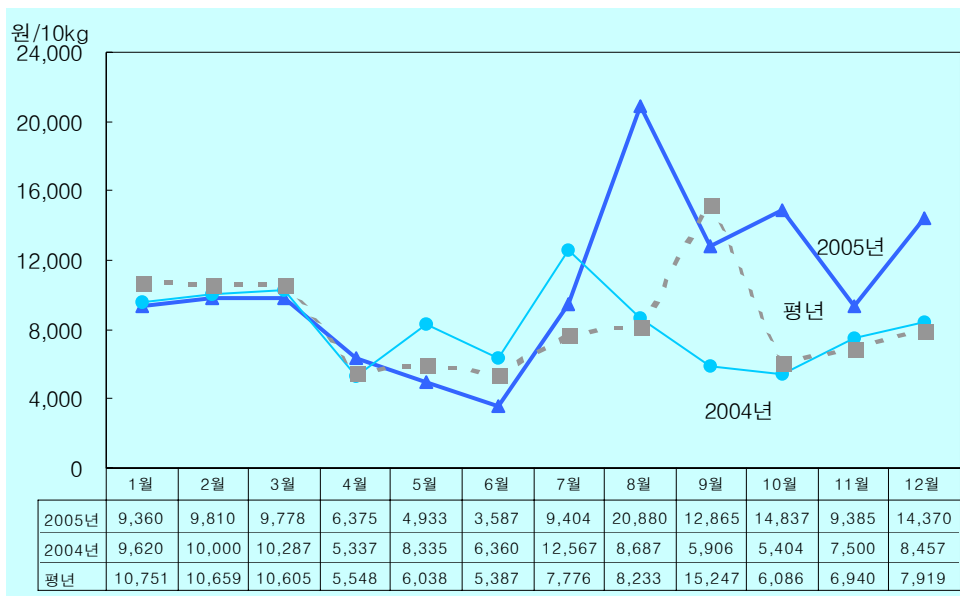
4.3. 호박(쥬키니)

- 쥬키니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10월 1만 4,800원, 11월 9,4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75%, 25% 상승하였음.
- 10~11월 쥬키니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주산지인 충남 논산·공주 등지에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 일조시간이 부족하고(대전기준, 작년대비 10월 강수량 510% 증가), 기온도 낮아(대전기준, 작년대비 최저기온 11월 1.4℃ 하락) 출하량이 작년보다 각각 19%, 11% 감소하였기 때문임.
- 특히 10월 상·중순 쥬키니 출하량이 작년보다 31% 감소하여 쥬키니 도매가격은 228% 상승하였음. 쥬키니는 요식업소에서 고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쥬키니 단경기인 10월에 출하량이 감소한 것에 비해 가격 상승폭은 크게 확대되었음.
- 12월 쥬키니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1만 4,400원으로 작년보다 70% 높은 수준임. 이는 충남 논산·공주 등지에서 12월의

기온이 낮아 (대전기준 최저기온 7.0℃ 하락) 출하량이 작년보다 35% 감소하였기 때문임.

- 내년 1월 주키니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2% 늘 것으로 전망됨. 이는 주키니 축성작형 정식기인 10월의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높았기 때문에 주산지인 경남 진주·의령의 10~11월 정식면적이 늘었기 때문임.

주키니 호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005년 12월은 27일까지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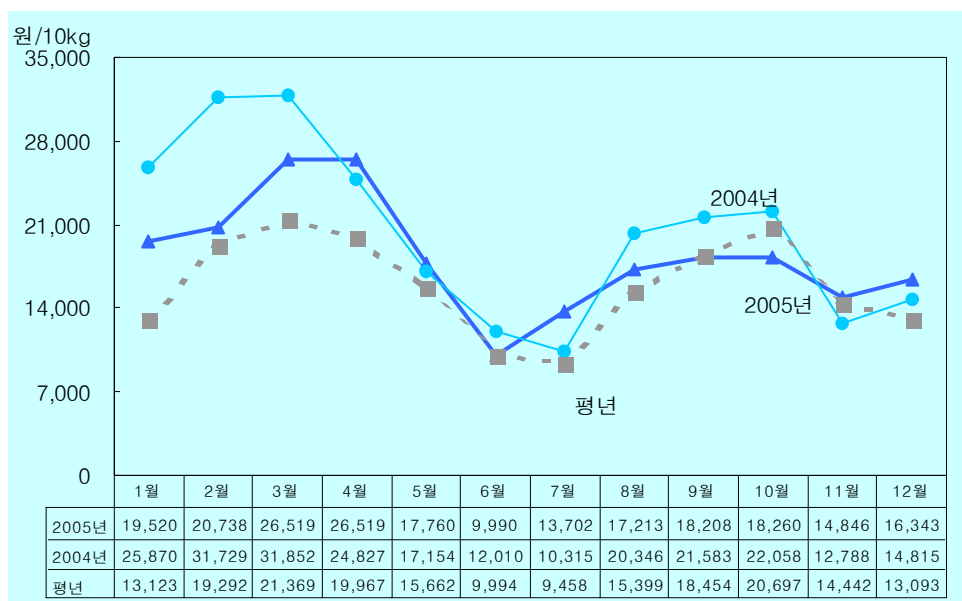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4. 일반토마토

- 4/4분기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10월 1만 8,300원, 11월 1만 4,800원으로 10월은 작년보다 17% 낮았고, 11월은 16% 높았음.

- 10월 토마토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최근 2~3년 동안 토마토 가격이 높아 강원, 충남, 전남 등 전국적으로 토마토 재배면적이 늘어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11월 가격은 작년보다 출하량이 많았으나 작년 가격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높았음.
- 12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10kg 상자당 1만 6,600원으로 작년보다 12% 높은 수준임. 이는 대체과일인 감귤, 딸기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체과일의 품질이 좋지 않아 수요가 토마토로 집중되었기 때문임.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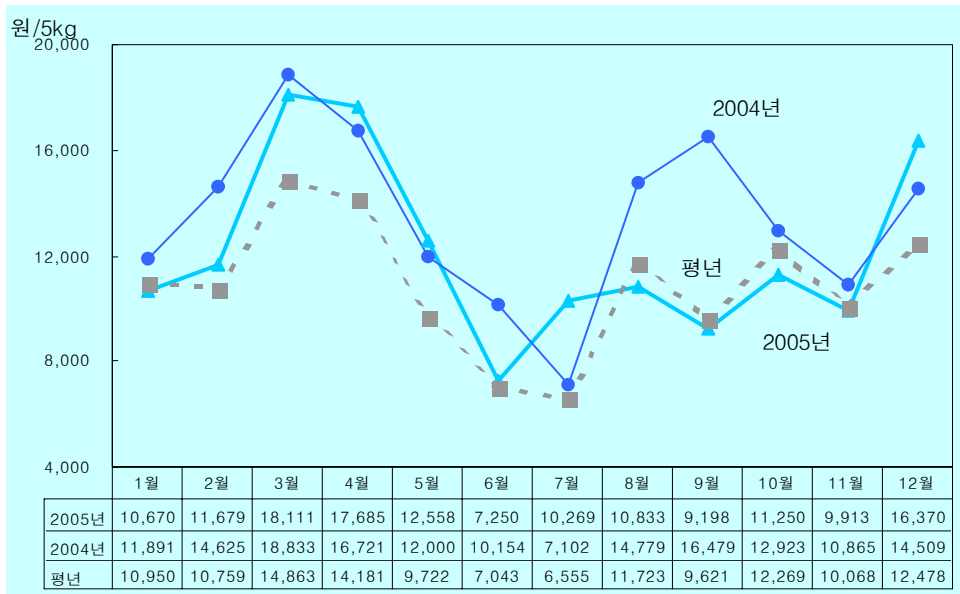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0~04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005년 12월은 27일까지의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일반토마토 금년 12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1%, 내년 1월은 금년보다 5%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부산광역시, 충남 부여, 경남 김해, 전북 익산 등지에서는 가시오이, 가지, 방울토마토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는 일반토마토로 작목 전환하려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임.
- 내년 2월 정식면적은 금년에 토마토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던 경기 평택지역에서 가지, 호박을 작목을 전환할 농가들이 많아 금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5. 방울토마토

- 4/4분기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당 10월 1만 1,300원, 11월 9,9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3%, 9% 낮았음. 10~11월 토마토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방울토마토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대체과일인 일반토마토 출하량도 많았기 때문임.
- 12월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은데도 상품 5kg 상자당 1만 6,300원으로 작년보다 12% 높은 수준임. 이는 가정에서의 방울토마토 수요가 작년보다 증가하였고, 대체과일 출하량도 작년보다 적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좋지 않기 때문임.
- 방울토마토 12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6%, 내년 1월도 금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는 일반토마토로 작목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고, 충남 공주는 최근 오이 가격이 높아 방울토마토에서 오이로 전환할 면적이 많기 때문임.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005년 12월은 27일까지의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 2월 방울토마토 정식면적은 금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충남 예산, 충북 충주 등지에서 일부 수박, 엽채류 농가들이 작목을 전환하고, 충북 청원은 고유가로 정식을 내년 2월로 늦출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 12월~내년 1월보다 정식면적 감소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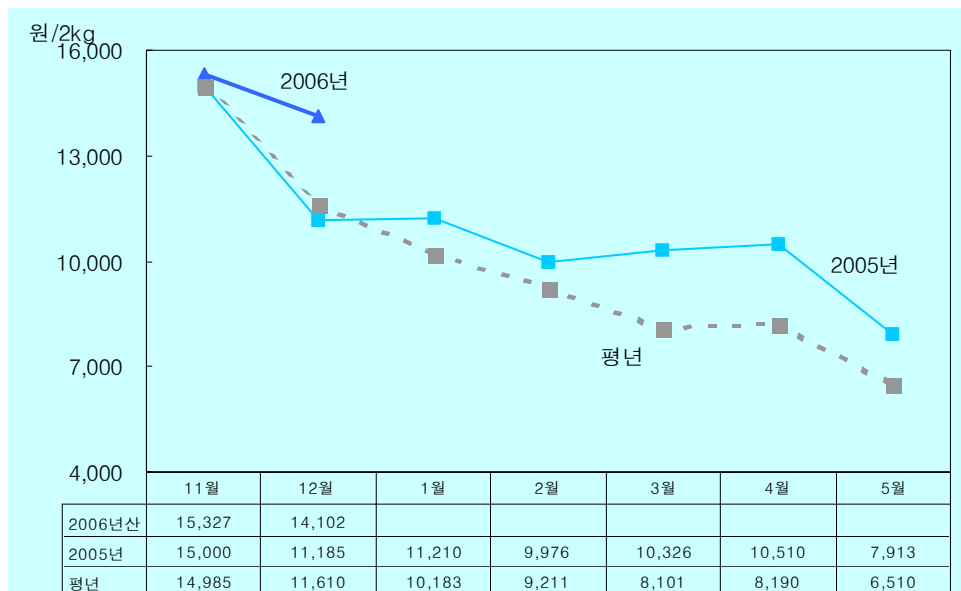
4.6. 딸기

- 2006년산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작년보다 2% 적은 6,816ha 수준으로 추정됨. 지역별로는 영남 지방은 작년에 비해 딸기 재배면적 감소 폭이 작았으나 호남, 충청 지방에서는 농가의 고령화로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딸기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은 육보 53%, 장희 33%, 매향 9% 순으로 육보 품종은 작년보다 2%p 감소한 반면 장희, 매향은 각각 1%p, 2%p 증가하였음. 특히 국내 품종인 매향의 재배면적은 전 지역에 걸쳐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남 지방이 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일본 딸기 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과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딸기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006년산 12월은 27일까지의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 11월 딸기 출하량은 축성면적이 늘고, 정식시기도 앞당겨져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올해 주산지인 경남 지방에 정식기 탄저병 등으로 미숙과가 많고, 정식 후 과비대기인 10월 기온 상승(진주기온, 상·중순 최고기온 작년대비 2℃ 상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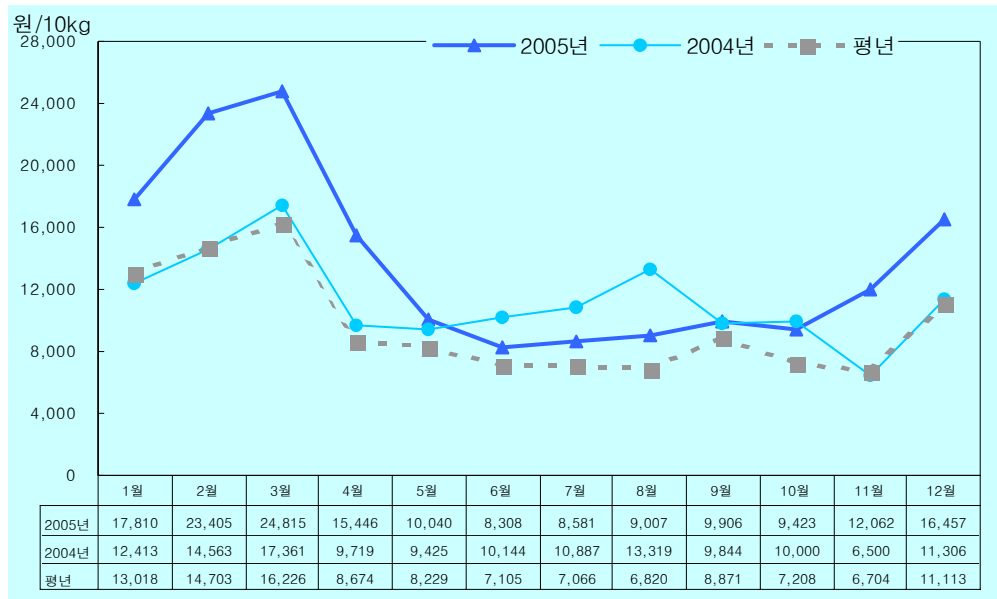
열매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해 작황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 12월은 작황이 좋지 않은데다 주산지 경남 지방의 저온피해로(진주기준 12월 최저기온 작년대비 5℃ 하락) 단수가 크게 감소하여 출하량이 작년보다 감소하였음.

- 이 때문에 11~12월 딸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각각 7%, 32% 감소해 11월 딸기도매가격은 상품 2kg 상자당 1만 5,300원으로 작년보다 2% 높았고, 12월은 1만 4,500원으로 작년보다 32% 높은 수준임.
- 내년 1월 딸기 출하량은 금년보다 많고 2월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딸기 작황 불량으로 단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 이후의 딸기 출하량은 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7. 수박

- 4/4분기의 수박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10월 9,400원, 11월 1만 2,1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6%, 86% 상승하였음.
- 10~11월 수박 가격이 높았던 것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각각 8%, 22% 적었기 때문임.
- 12월 수박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7% 감소하여 상품 10kg 상자당 1만 6,500원으로 작년보다 47% 높은 수준임.
- 내년 시설수박 정식의향면적은 금년보다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금년 후작수박의 가격이 기대보다 낮아 후작으로 수박을 정식하던 농가들이 메론, 참깨, 고추 등으로 품목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수박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0~04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005년 12월은 27일까지의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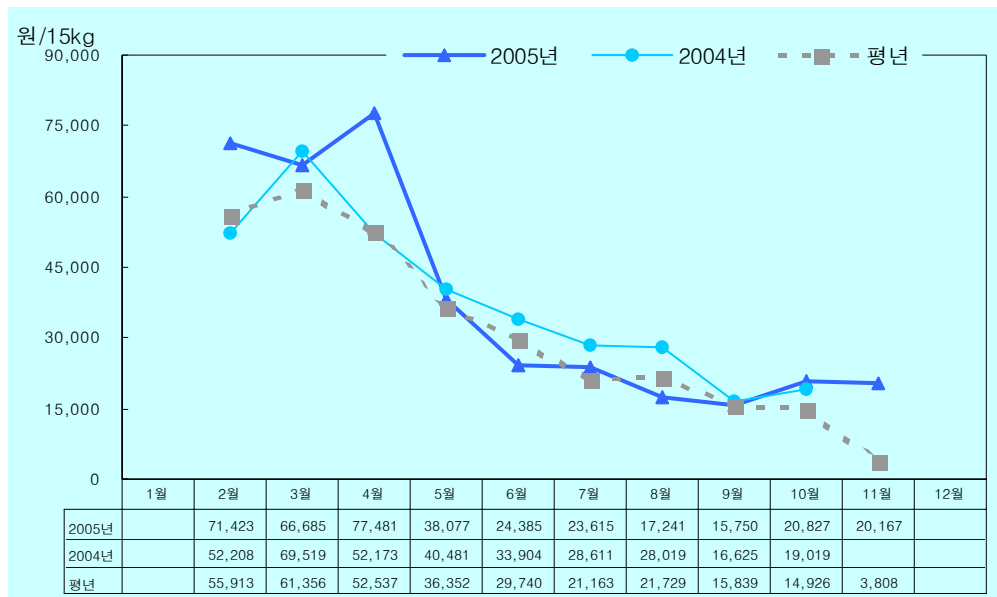
- 내년산 축성수박 정식시기는 금년산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 이는 남부지방 수박농가들이 중부지방 첫물 수박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해 정식을 앞당기려는 의향이 많기 때문임.
- 반축성작형인 내년 2~3월의 정식의향면적은 참외, 고추 등에서 수박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아 금년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8. 참외

- 10월의 참외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당 2만 800원으로 작년보다 10% 높았음. 이는 금년 추석이 빨라 작년보다 일찍 수확을 종

- 료하고, 토양관리에 들어 간 농가가 많아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작년대비 63% 감소).
- 금년 참외의 출하량은 가락동 도매시장이 작년보다 2% 감소하였지만, 주산지인 성주지역의 산지거래량은 작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11월 참외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하였음. 이는 저온에 강한 품종의 보급이 확대되었고, 금년에 일찍 출하된 참외의 가격이 높아 주산지인 경북지방에서 정식시기를 앞당기려는 농가가 많기 때문임.
 - 12월 참외 정식면적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조기출하를 목표로 정식을 앞당기는 농가가 늘어 작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참외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0~2004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 1~2월 참외 정식면적은 금년보다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경북지방에서 12월로 정식을 앞당기려는 농가가 많고, 전북과 경기지방에서 참외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오이, 호박, 멜론, 수박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3월 정식면적은 경북 성주지역의 신규 시설재배 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5. 축산⁹⁾

5.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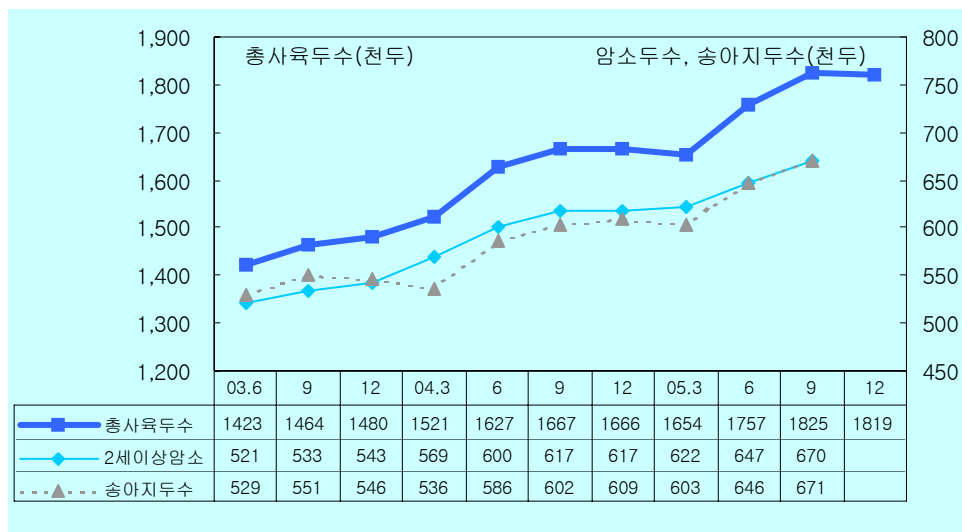
- 2005년 12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181만 9천두로 전분기에 비해 6천두(0.3%)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5만 3천두(9.2%) 증가하여 사육두수 증가세가 지속됨.
- 한육우 사육두수 중 한우 사육두수는 163만 4천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만 1천두(10.9%) 증가하였으나, 육우는 18만 5천두로 전년에 비해 8천두(4.1%) 감소함.
- 2005년 12월 가임암소 두수는 77만 7천두로 전분기에 비해 8천두(1.0%), 전년동기에 비해 7만 2천두(10.2%) 증가하였음.
- 연중 한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우 사육농가수도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정민국 연구위원(mkjeong@krei.re.kr), 송우진 연구원(gnos@krei.re.kr), 이형우 연구원(ihw0906@krei.re.kr), 김현중 연구원(kim1025@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논의되면서 12월 사육농가수가 감소함. 12월 한육우 사육농가수는 19만 2천가구로 전년에 비해 2천호 증가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1천가구 감소함.

- 한육우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도축두수도 증가하여 1~11월 도축두수는 47만 9천두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9.8% 증가함.
- 11월과 12월에 가축방역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사육농가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한육우 도축두수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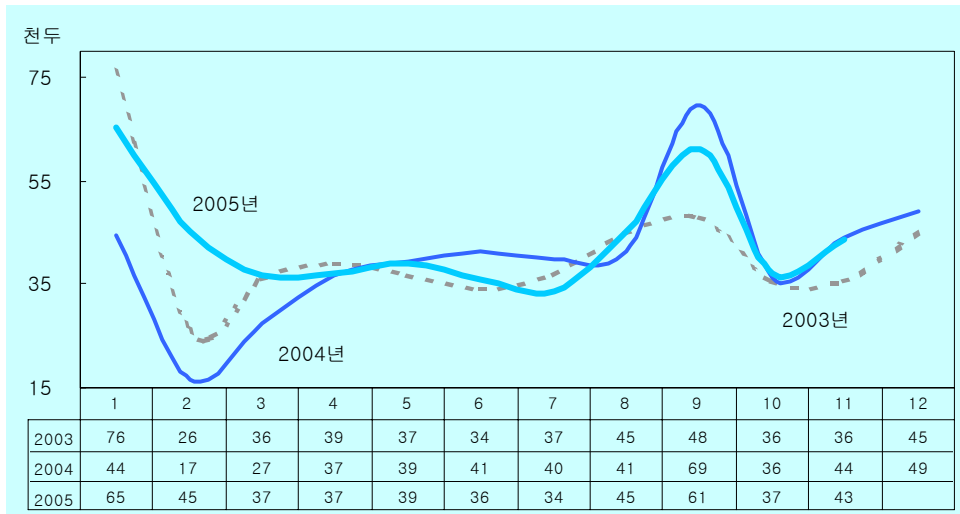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자료: 농림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 1~11월 한우 도축두수는 35만 4천두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21.6%, 육우 도축두수는 14만 5천두로 13.2%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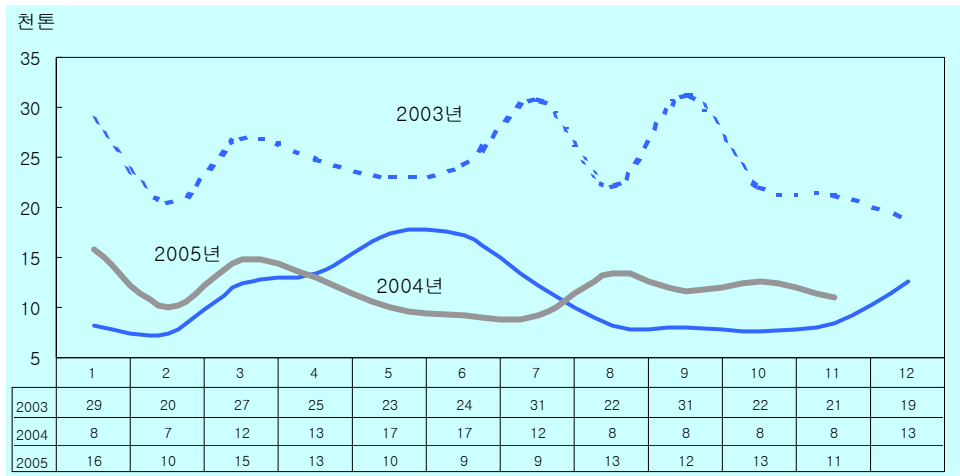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 2005년 1~11월 쇠고기 수입은 13만톤으로 전년동기간에 비해 8.3% 증가함. 수입량 중 호주산 쇠고기가 70.4%, 뉴질랜드산이 28.2%, 멕시코산이 1.5% 수입되었음.
- 2005년 6월 미국에서 2차 BSE가 확인되면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음. 11월 1차 가축방역 협의회, 12월 2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가 급진전되었음.
- 일본은 12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재개 하였음. 수입재개 조건은 20개월령 이하 쇠고기(뼈 포함)임. 우리나라도 2006년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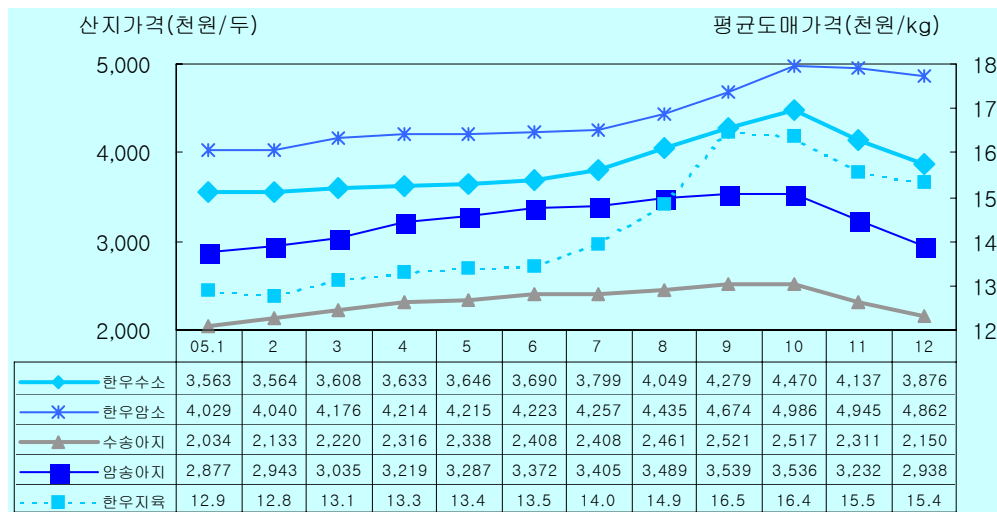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한우 산지가격은 연중 상승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 하락세로 반전함. 쇠고기 도매가격도 추석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함.
- 12월 한우 산지가격은 수소(500kg) 389만원, 암소(500kg) 486만원, 수송아지 가격은 215만원에서 형성됨.(12월 22일까지 평균)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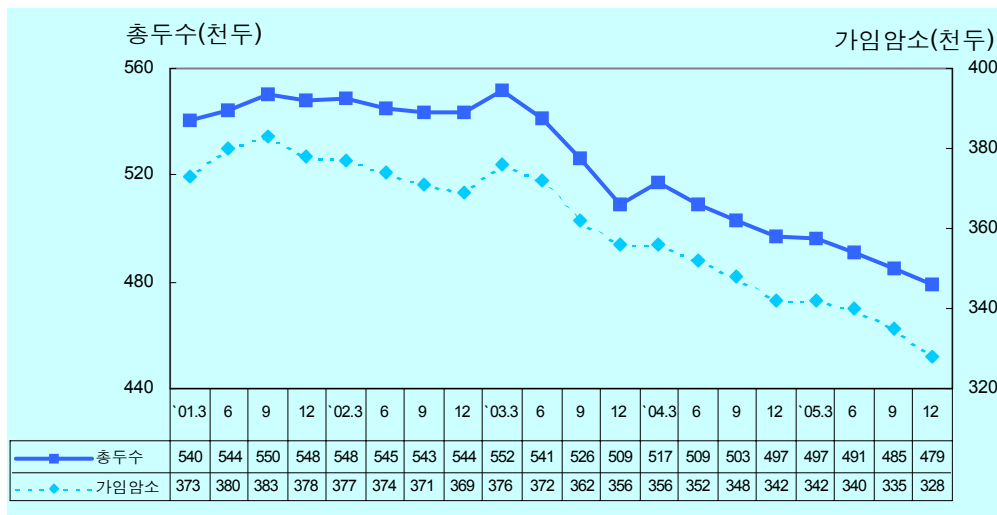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2. 젓소

- 2005년 12월 젓소 사육두수는 지난해 인공수정 실적 감소와 송아지 생산 감소로 2005년 1세 미만과 1~2세 두수가 감소하여 2004년 12월보다 1만 8천두($\Delta 3.6\%$) 감소한 47만 9천두 였음. 가임암소 두수도 32만 8천두로 전년동기보다 1만 4천두($\Delta 4.1\%$) 감소하였음.
- 9월 1세미만 두수는 9만 5천두로 전년동기보다 2천두($\Delta 2.1\%$) 감소하였고, 1~2세 두수는 11만 1천두로 전년동기보다 5천두($\Delta 4.3\%$), 2세이상 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만 1천두($\Delta 3.8\%$) 감소하였음. 2세 이상 두수 중 착유우 두수는 23만 1천두로 전년동기보다 9천두($\Delta 3.8\%$) 감소하였음.

젓소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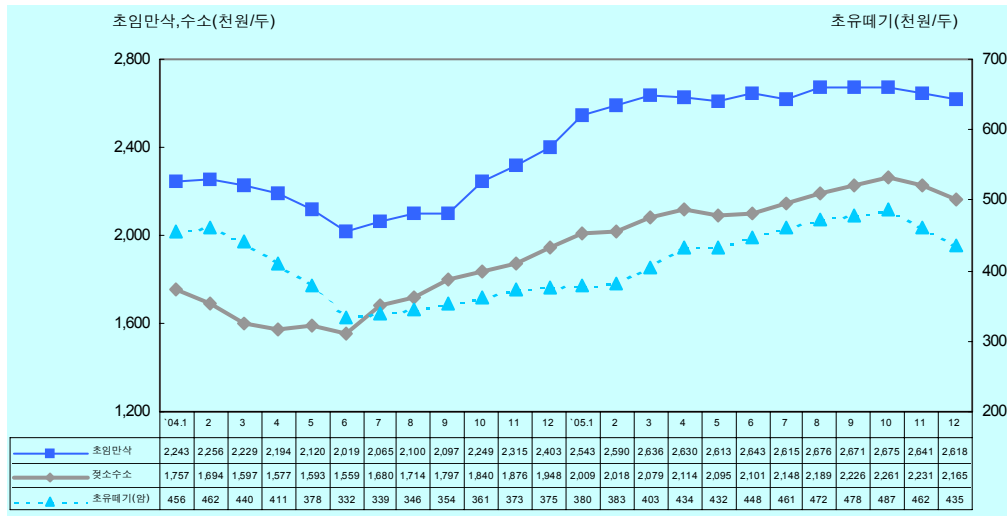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 9월 젓소 사육호수는 9천 2백호로 전년동기보다 8백호($\Delta 8.0\%$) 감소하였음.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호수는 전년동기보다 8백호($\Delta 14.5\%$) 감소하였지만 50두 이상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 9월 50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만 9천두(Δ 11.8%) 감소한 반면,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천두(0.3%) 증가하였음. 9월 호당 사육두수는 52.9두로 2004년 9월보다 2.4두(4.8%) 증가하였음.
- 젓소 산지가격 변동
 - 초임만삭우: 원유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와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초임만삭우 산지가격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강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젓소 사육농가에도 영향을 미쳐 10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음. 2005년 12월(20일까지) 평균 산지가격은 262만원으로 전년동월보다 9% 상승하였지만 전월보다는 0.9% 하락하였음.
 - 초유떼기(암송아지): 초유떼기 암송아지 산지가격은 원유가격 상승 영향으로 2004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10월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음. 12월 산지가격은 43만 5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6% 상승하였지만 전월보다는 6% 하락하였음.
 - 젓소수소: 국내산 쇠고기 수요 증가로 2005년 10월까지 상승하였던 젓소 수소 산지가격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대한 불안 심리로 출하가 증가하면서 10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음. 12월 산지가격은 216만 5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는 11% 상승하였지만 전월보다는 3% 하락하였음.

젓소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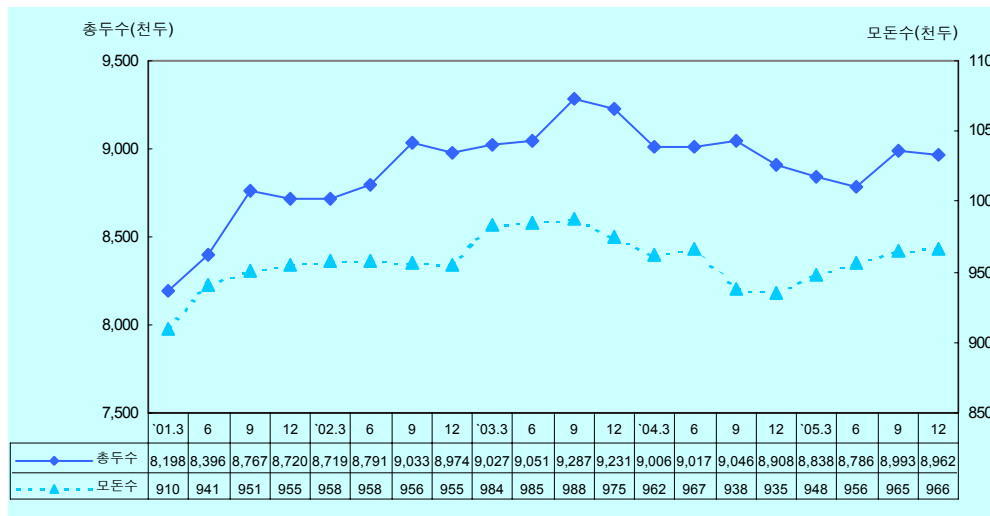
주: 12월 산지가격은 20일까지 평균 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3. 돼지

- 2005년 12월 돼지 사육두수는 2005년 9월 모돈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0.6% 증가한 896만 2천두 였음. 산지가격이 2004년부터 높게 유지되면서 모돈수가 2005년 3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12월 모돈수는 96만 6천두로 2004년 12월보다 3.3% 증가하였음.
- 9월 돼지 사육호수는 1천두 미만 사육농가수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1,060호(△8.0%) 감소하였지만 1천두 이상 사육농가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전분기보다는 40호(0.3%) 증가한 1만 2,190호였음.
- 9월 10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수는 전년동기보다 1,110호(△10.7%) 감소하였지만 1000두 이상 중·대규모 사육호수는 전년동기보다 소폭 증가하였음.

- 9월 1000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21만 2천두($\Delta 9.4\%$) 감소한 반면, 10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15만 9천두 증가하여 10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가 전체 사육두수의 77.4%를 차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2004년 12월 671.4두에서 737.8두로 66.4두 증가하였음.

돼지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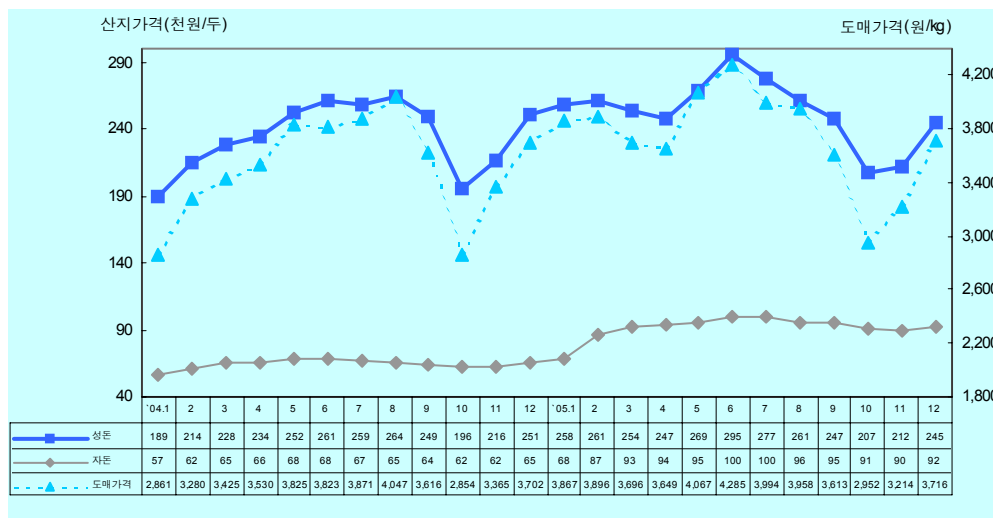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 돼지 산지가격 변동

- 성돈(100kg)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2004년에 이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TV 홍보가 지속되었고 계속되는 질병 피해로 출하두수가 감소하여 2005년에도 돼지 산지가격은 상승하였음. 2005년 상반기 가격은 26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14.9% 상승였고, 하반기 산지가격은 24만 1천원으로 0.8% 상승하여 연평균 25만 3천원으로 2004년보다 7.7% 상승하였음.

- 자돈: 자돈 산지가격은 올해 2월 크게 상승한 이후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음. 상반기 가격은 8만 9천원으로 2004년 동기간보다 39.2% 상승하였고 하반기 가격은 9만 4천원으로 46.5% 상승하여 연평균 9만 2천원으로 42.9% 상승하였음.
- 도매가격: 도매가격은 산지가격 등락과 비슷하게 변동함. 상반기 도매가격은 kg당 3,910원으로 2004년 동기간보다 13.1% 상승하였고 하반기 도매가격은 3,575원으로 2004년 동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어 연평균 3,742원으로 2004년보다 6.4% 상승하였음.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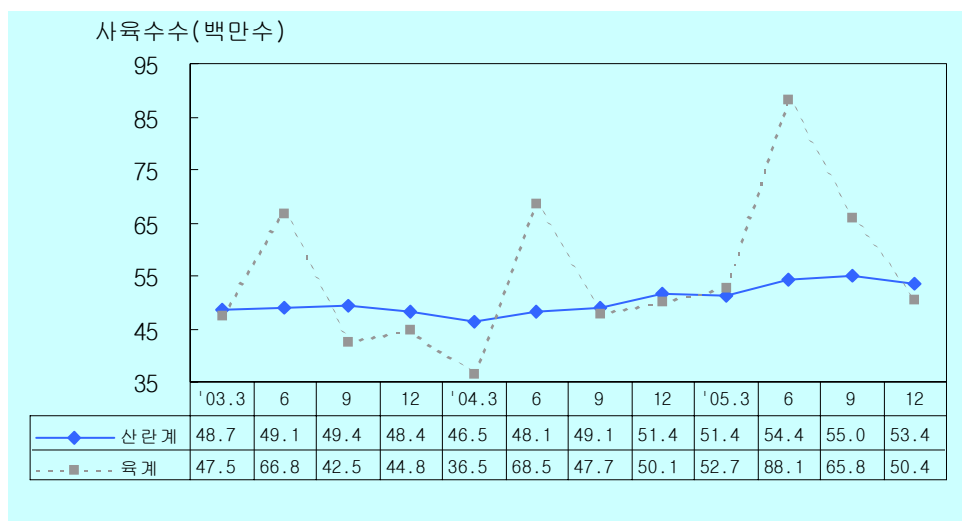
주: 12월 산지 및 도매가격은 2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돼지고기 수입: 1~11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2004년 동기간보다 64.4% 증가한 16만 1천톤 이었음. 국별 수입량 중 미국산이 3만 9천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24.1%)을 차지하였음.

5.4. 닭

- 계란 산지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생산비(847원/10개) 이상에서 형성되어야 하나 농가들의 도태의향이 낮아 12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증가함.
- 12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5,343만수로 3개월 전보다 2.9%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보다 3.9% 증가하였음.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자료: 농림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전년보다 크게 높았으나 종계도태와 생산성 저하로 12월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동기보다 다소 증가함.
- 12월 육계 사육수수는 5,042만수로 3개월 전보다 23.4%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보다 0.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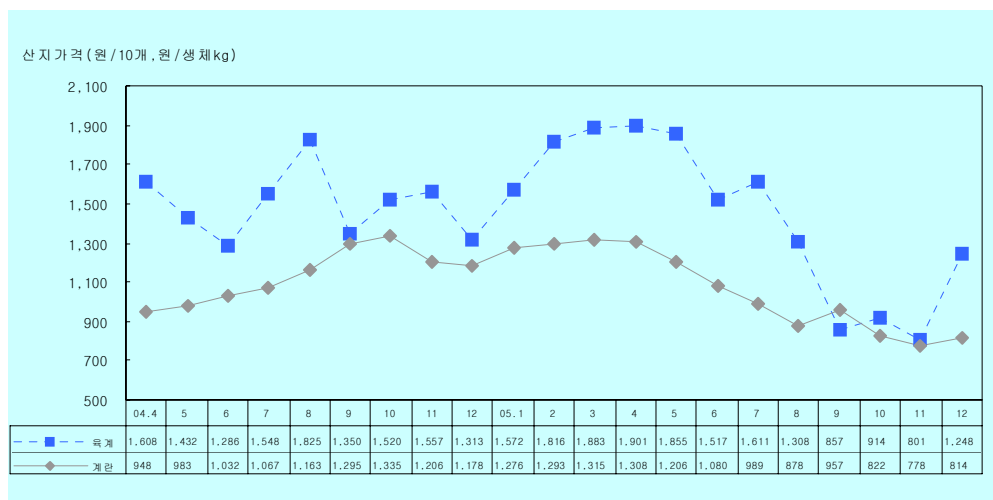
○ 계란 산지가격 변동

- 3/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산란용 마리수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보다 19.9% 하락한 941원이었음. 4/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산란용 마리수가 증가한 반면,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보도로 소비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보다 35.1% 하락한 805원이었음.

○ 육계 산지가격 변동

- 3/4분기에는 육계 생산성이 회복되고 백세미의 증가로 육계 평균 가격은 전년동기보다 20.1% 하락한 1,259원이었음. 4/4분기에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보도로 닭고기 소비가 침체되어 육계 평균 가격은 전년동기보다 32.5% 하락한 988원이었음. 12월 들어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심보험가입)와 강추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육계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음.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주 :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기준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 종계 병아리 생산

- 3/4분기 산란용 종계 병아리 입식수수는 12만 8천수로 전년동기보다 11.3% 증가하였음. 10~11월에 입식된 산란용 종계 병아리수는 4만수로 전년 동기간보다 69.1% 감소하였음.
- 3/4분기 육용 종계 병아리 입식수수는 180만수로 전년동기보다 47.1% 증가하였음. 10~11월에 입식된 육용 종계 병아리수는 59만수로 전년 동기간보다 15.2% 감소하였음.

○ 닭고기 수입(통관기준)

- 1~11월 닭고기 수입량은 52,414톤으로 2004년 동기간보다는 2배 증가하였으나 2003년(83,492톤)보다는 37.2% 감소하였음.

V. 특별주제

1. 소비자의 과채류 구매행태 분석과 시사점
2.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이후 양계산물 소비 변화

소비자의 과채류 구매행태 분석과 시사점¹⁰⁾

- 오이 · 토마토 · 수박을 중심으로 -

1. 머리말

- 과채류는 전체 채소류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0%인데 비해 채소 생산액에서의 비중은 48.0%(2004년 기준)로 단위 면적당 생산액이 타 채소류보다 높은 고부가가치 부문임(조미채소의 경우는 면적기준 42.8%, 생산액 기준 29.7%).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채류 재배면적은 1995년 90,362ha에서 2004년 66,378ha로 26.5% 감소하고 있으며, 과채류 중 생산액 비중이 높은 수박, 오이 등의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있음(동년대비 수박 52.1%, 오이 29.5% 감소).
 - 특히, 대표적인 여름 과채인 수박의 재배면적 감소율이 가장 높음.
- 이와 같이 과채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토마토는 재배면적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동년대비 49.8% 증가).
 - 이는 최근 2~3년간 토마토 가격이 좋아 동종 과채류인 오이, 호박 등에서 토마토로 작목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토마토로 작목전환 한 농가 중 오이 33.3%, 호박 9.9% 등, 과채월보 6월호 참조)
- 그러나 특정 품목으로의 생산 집중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므로 이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박기환(kihwan@krei.re.kr) 부연구위원, 정학균(hak8247) 전문연구원, 김원태(wtkim) 연구원, 최익창(cic)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문의 사항은 전자메일로 연락바람.

- 이러한 대응책의 하나로써 과채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즉, 소비자 니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비확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하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비확대에 의한 생산유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과채류의 소비자 구매행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조사 품목은 토마토로의 작목전환이 많았던 오이, 재배면적이 급증한 토마토, 과채류 중 재배면적 감소 폭이 가장 큰 수박임.
 - 본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소비자 패널(전국 8대 도시) 1,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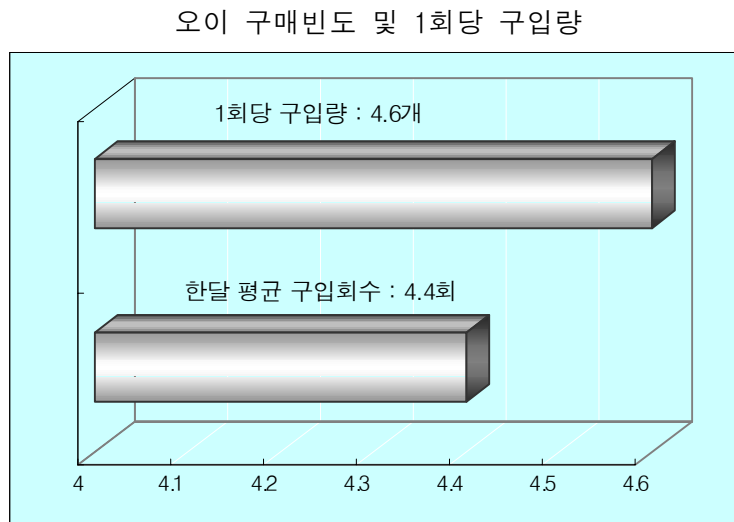
	오 이	토마토	수 박
조사 세대수(세대)	577	585	504
조사 기간	2005.10.14~10.19	2005.7.15~7.22	2005.5.24~6.30

2. 오이 구매행태 및 금년도 오이소박이 김장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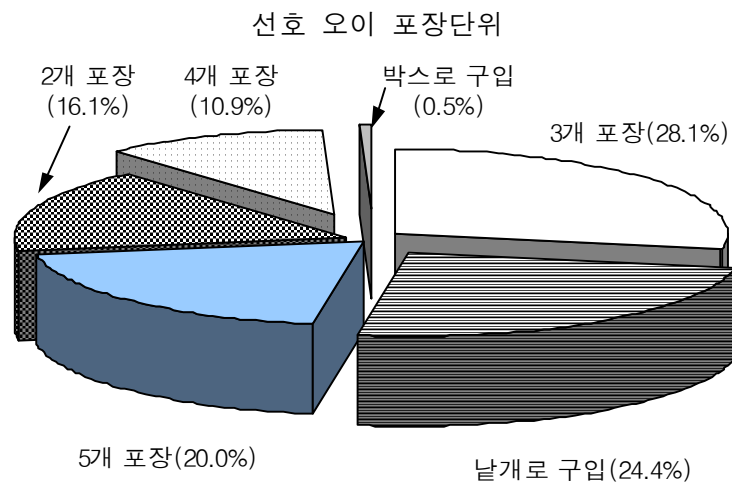
2.1. 오이 구매빈도 및 소비용도

- 오이의 구매횟수는 1달에 4.4회로 소비자는 1주일에 1회 정도 오이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당 구입량은 평균 4.6개임.

- 즉, 소비자는 오이를 비교적 자주 구입하는 편이며, 한번에 소량의 오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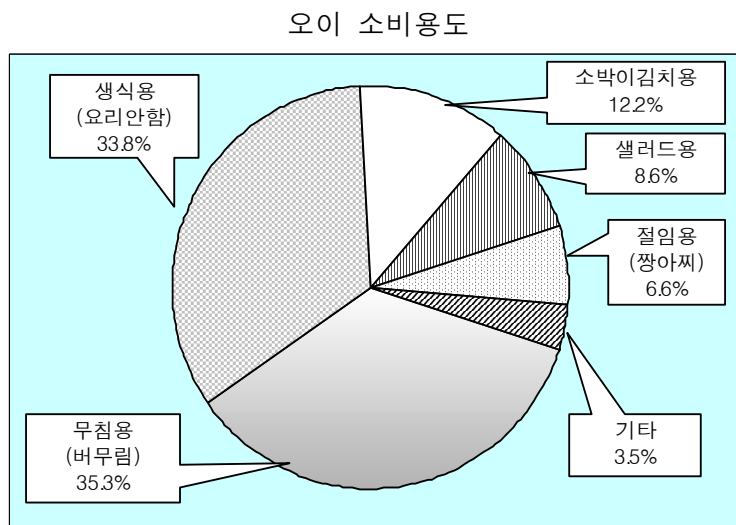


-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소량의 오이를 자주 구매하기 때문에 낱개 구입이나 소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5개단위의 소포장이 전체의 75.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선호하는 포장 개수는 3개들이 포장이 28.1%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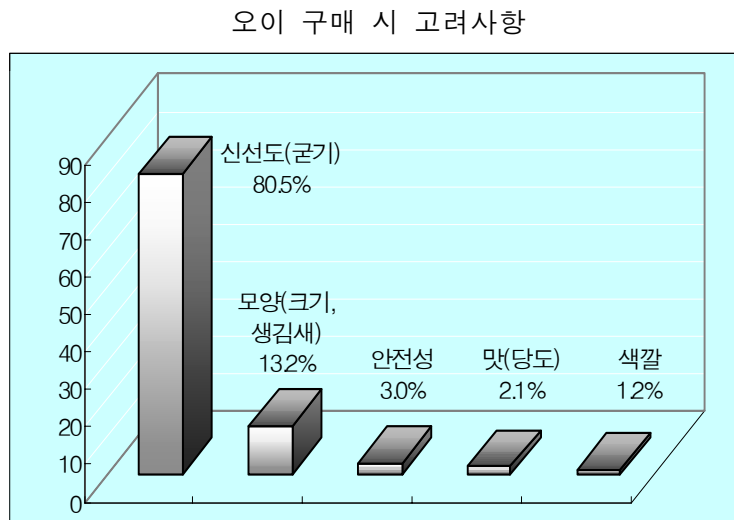
○ 오이의 소비용도는 무침용 3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식용 (33.8%), 소박이 김치용(12.2%), 샐러드용(8.6%) 순으로 나타났다.

- 오이는 무침용이나 생식용으로 주로 소비되기 때문에 소량으로 자주 구입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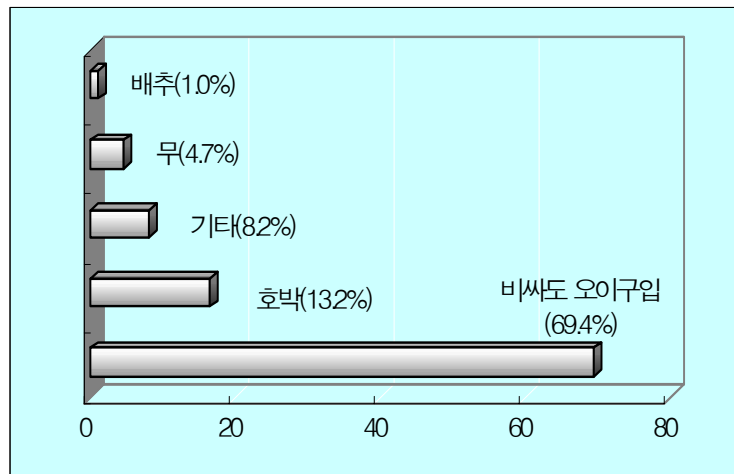
2.2. 오이 구매 시 고려사항

- 소비자가 오이를 고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신선도(굳기)’로 전체의 80.5%를 차지하였음.
- 이는 오이가 무침용이나 생식용, 샐러드용 등으로 소비되고 있어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임.
- 특히, 오이의 ‘모양(크기, 생김새)’을 먼저 고려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3.2%로 나타나 ‘안전성’, ‘맛(당도)’, ‘색깔’보다 응답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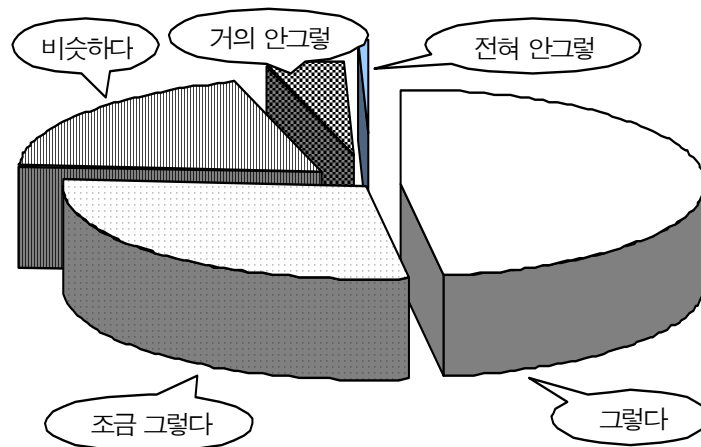
- 오이 구매 시 가격비교 대상품목에 대한 질문에 소비자는 ‘비싸도 오이를 구입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9.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이가 소비의 특성상 대체될 만한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임.
- 한편, 기타 품목으로는 풋고추, 피망, 가지 등이 있음.

오이 구매 시 가격비교 대상품목



- 소비자는 기온이 높을 때 오이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76.0%) 기온이 높을수록 생식용, 소박이김치용, 냉면의 고명 등의 오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고온 시 오이소비 확대 여부



4.3. 금년도 오이소박이 김장 의향

- 그 동안 배추김치나 오이소박이를 직접 담가 먹은 소비자는 58.6%, 친지(친정이나 시댁 등)가 담은 것을 갖다 먹은 비율은 35.3%, 사먹은 소비자는 6.1%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금년에 배추김치나 오이소박이를 직접 담가 먹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66.8%로 증가한 반면, 사먹겠다는 응답자는 3.9%로 감소하였음.
- 특히, 그 동안 김치를 사먹었던 소비자의 45.7%가 올해는 직접 김장을 하거나 친지 것을 갖다 먹겠다(14.3%)는 의향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 중국산 김치 파동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70.8%)으로 작용하였음.

배추김치 및 오이소박이 김장 의향

단위: %

	배추김치만 담글 계획	배추김치와 오이소박이 같이 담글 계획	친지가 담은 것 갖다 먹을 계획	사먹을 계획	합 계
그 동안 직접 김장했던 소비자	55.9	40.5	2.4	1.2	100.0
친지 것을 갖다 먹었던 소비자	10.0	11.0	77.0	2.0	100.0
사먹었던 소비자	34.3	11.4	14.3	40.0	100.0
평 균	38.4	28.4	29.4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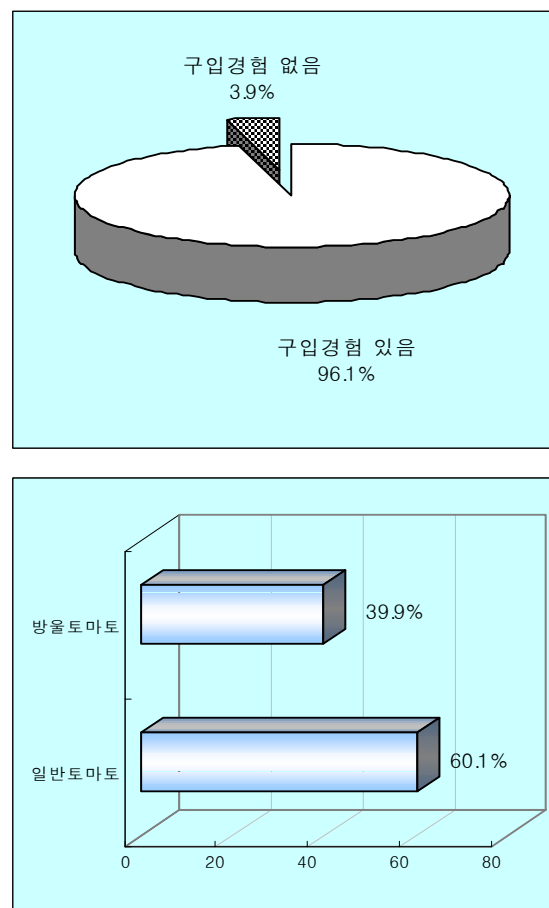
- 한편, 소박이김치를 담글 계획으로 있는 소비자의 경우 오이소박이는 평균 16개 정도 담글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3. 토마토 구매행태 및 향후 소비 전망

3.1. 토마토 구매경험 및 소비용도

- 올해 토마토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96.1%로 대부분의 세대가 토마토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마토 형태별 구입비율은 일반토마토 60.1%, 방울토마토 39.9%로 가정용은 일반토마토의 비중이 높은 반면, 방울토마토는 급식용, 요식업체 등에서 소비되고 있음.

금년도 토마토 구입경험 및 형태별 구입비율



- 소비자는 토마토를 ‘생과 그대로’ 먹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작년보다 7% 포인트 감소한데 비해 ‘요리 및 샐러드용’으로 먹거나 ‘주스 형태로 갈아서’ 먹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각각 4%, 3% 포인트 상승하였음.
- 토마토의 소비용도가 주스형태로 갈아 먹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보다는 일반토마토의 구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토마토 소비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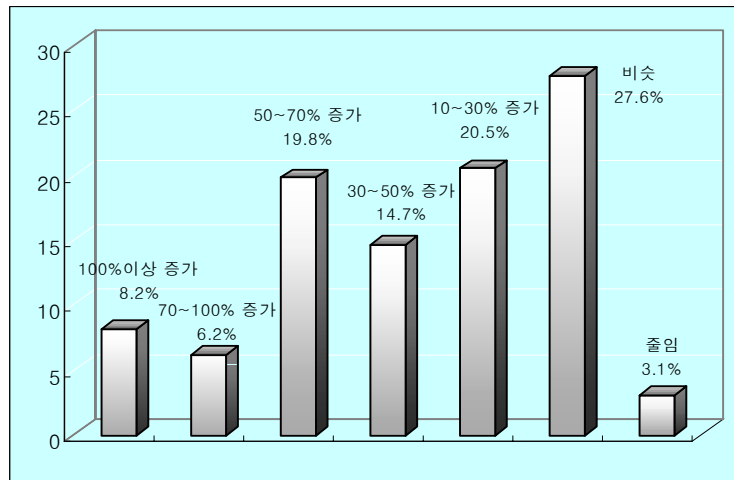
단위: %

	생과 그대로	주스형태로 갈아서	요리 및 샐러드용	기 타	합 계
2005년	50.9	43.7	5.1	0.3	100.0
2004년	58.0	40.6	0.8	0.6	100.0
변화율	△7.1	3.1	4.3	△0.3	—

3.2. 토마토 구매확대와 원인

- 작년에 비해 토마토 구입량을 50% 이상 늘린 소비자는 48.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토마토 구입량이 확대한 소비자 비중은 69.4%로 지난해보다 토마토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작년대비 토마토 구입량 증감



○ 소비자가 토마토 구입량을 확대한 이유로는 ‘건강에 좋아서(영양가)’가 5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맛이 좋아서(품질)’ 20.1%, ‘가격이 저렴해서’(15.0%)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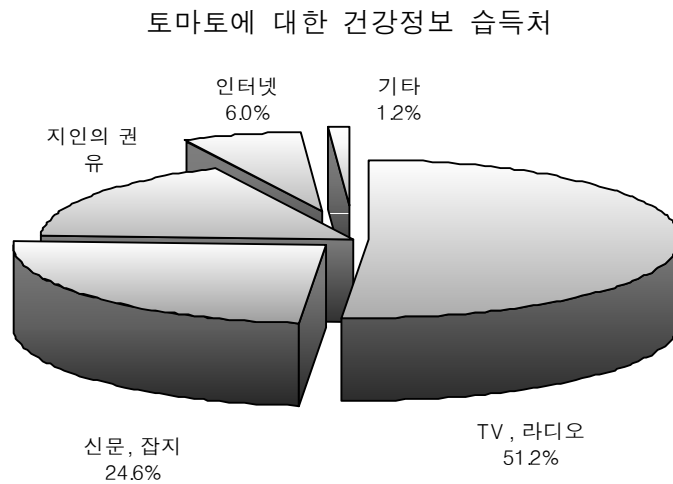
-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보다는 토마토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도 지난해보다 향상되어 소비가 확대한 것으로 보임.

토마토의 소득별 소비증대 이유

단위: %

	건강(영양가)	맛(품질)	저렴한 가격	기 타	합 계
100~199만원	50.9	17.8	17.2	14.1	100.0
200~299만원	55.0	23.1	16.1	5.8	100.0
300~399만원	56.3	20.5	14.0	9.2	100.0
400만원 이상	61.9	19.0	12.4	6.7	100.0
평 균	56.0	20.1	15.0	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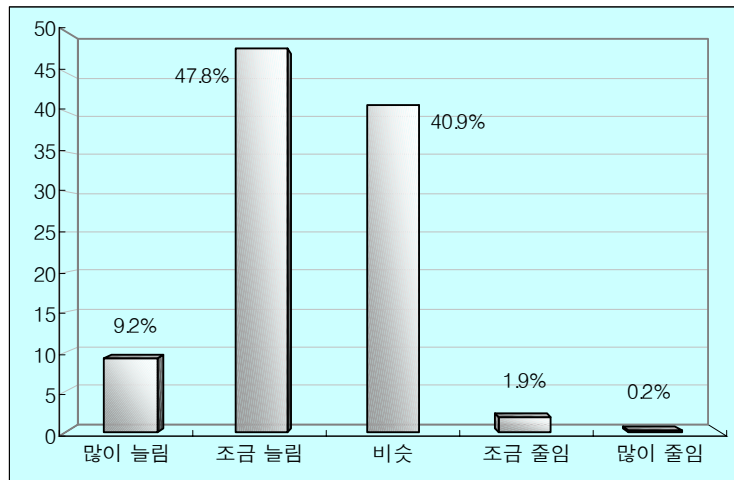
- 토마토가 건강(영양가)에 좋아 구입량을 늘린 소비자의 경우 그 정보는 TV, 신문 등의 매스컴을 통해 습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75.8%), 지인(가족, 친척, 친구 등)에게 정보는 얻는 경우도 16.9%로 나타났다.



3.3. 향후 토마토 구매의향

- 향후 토마토 구입량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는 2.1%에 불과한 반면, 구입량을 확대할 소비자 비율은 57.0%, 현재와 비슷하게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는 40.9%로 추가적인 소비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향후 토마토 구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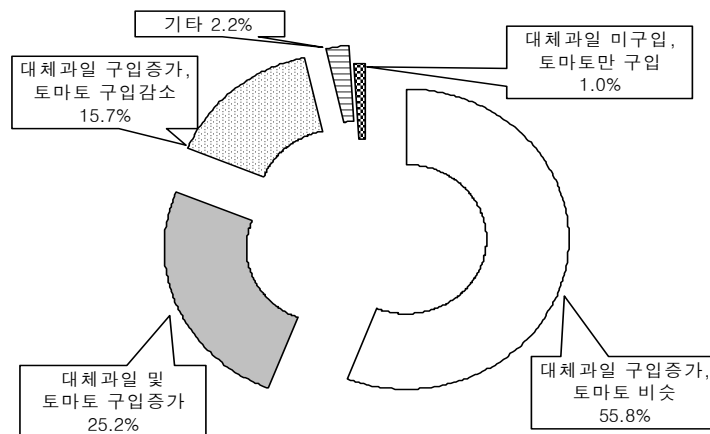


○ 그러나 토마토보다 건강에 더 좋은 대체과일이 등장할 경우에도 토마토의 소비를 확대할 의향은 26.2%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대체과일의 구입은 확대하는 대신 토마토는 현재와 비슷하게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55.8%, 대체과일 구입은 확대하고 토마토 구입은 줄이겠다는 비율은 15.7%로 나타남.

- 따라서 이 경우 토마토의 소비는 정체할 것으로 예상됨.

토마토 이외 대체과일 구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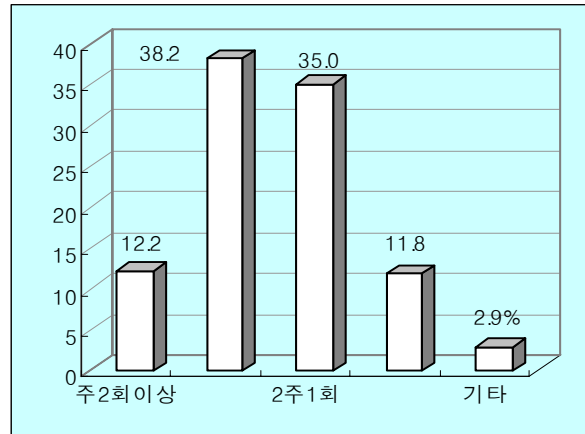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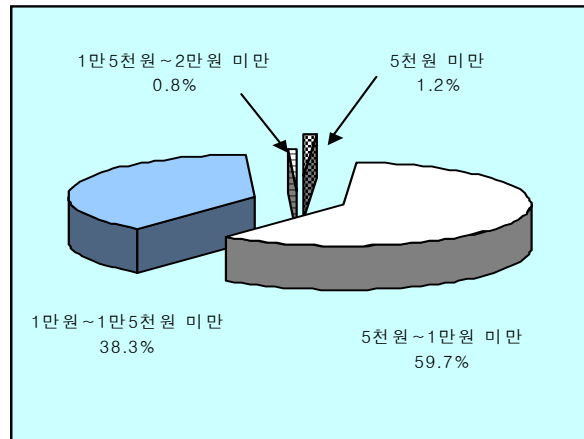
4. 수박 구매행태 및 기능성 수박의 선호도

4.1. 수박 구매빈도 및 구입액

- 여름철 수박의 구매횟수는 주 2회 이상이 12.2%, 주 1회가 38.2%로 소비자의 절반 정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수박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소비자는 한달에 1~2회 정도 구입하고 있음.
- 소비자의 1회당 수박 구입액은 5천원~1만원 미만이 5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만원~1만 5천원 미만은 38.3%임.
- 즉 대부분의 소비자는 중저가라 할 수 있는 평균 1만원 정도의 수박을 구입하고 있는 반면, 저가인 5천원 미만이나 비교적 고가인 1만 5천원 이상의 수박은 구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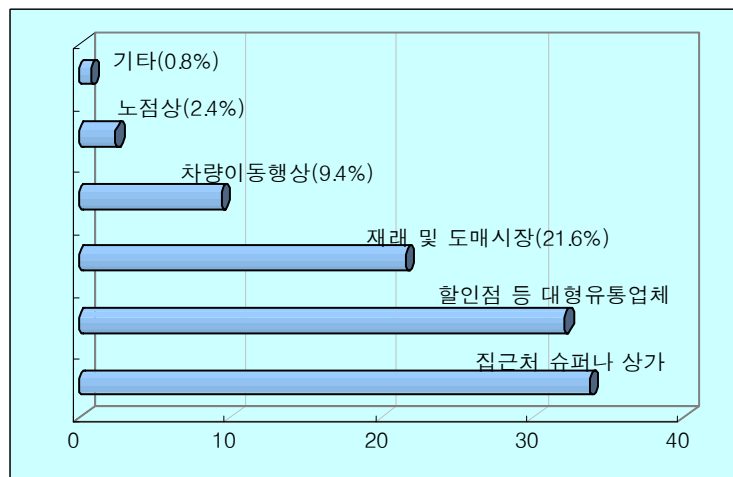
수박 구매빈도 및 1회당 구입액





- 소비자는 수박을 주로 집근처 슈퍼나 상가(33.7%)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박이 타 과채품목에 비해 무거워 조속히 집으로 가져오기 편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가격이 일반 슈퍼나 상가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들 구매처의 구입 비중도 높은 편임(각각 32.1%,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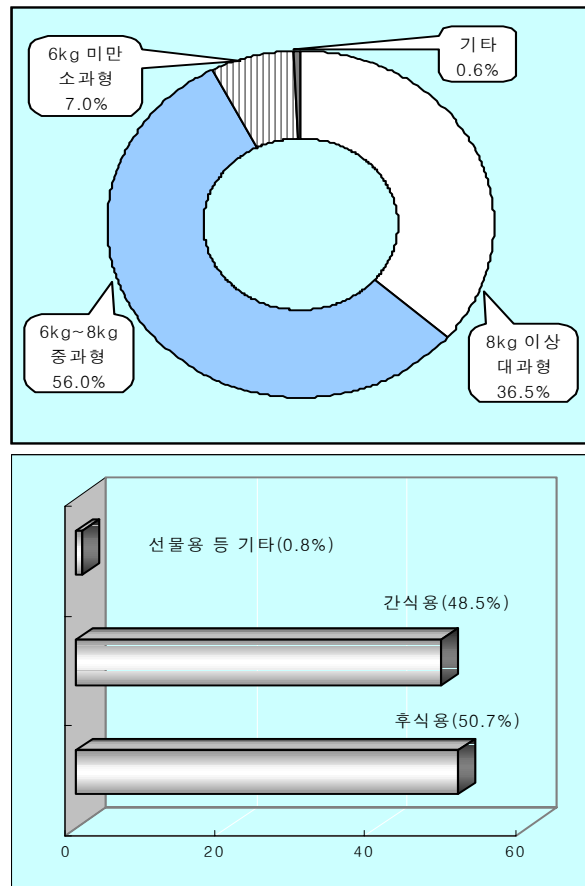
수박 구매처



4.2. 수박 선호과형 및 고려사항

- 수박 구매 시 선호하는 크기는 8kg 미만의 중소과형이 전체의 66.0%인데 비해 8kg 이상의 대과형은 36.5%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은 대형과보다 중소형과를 더 선호하는 것은 수박의 특성 상 부피가 커 냉장보관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로 대형과가 먹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 수박은 주로 가정에서의 후식용(50.7%)이나 간식용(48.5%)으로 소비되고 있으나,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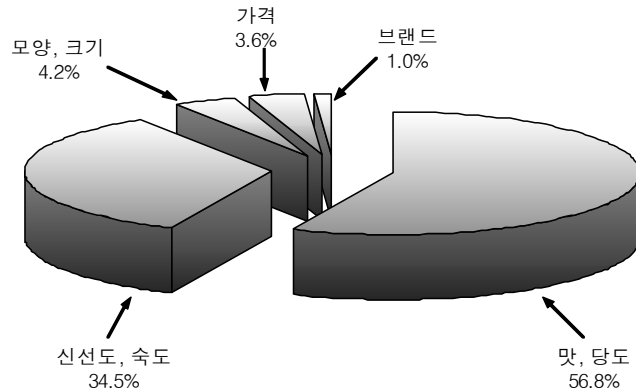
선호 수박 과형 및 소비용도



○ 소비자가 수박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맛·당도가 56.8%로 상당히 높아 수박은 당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함.

- 또한 신선도·속도를 고려하는 비율도 34.5%로 높게 나타났으나 모양이나 가격, 브랜드에 대한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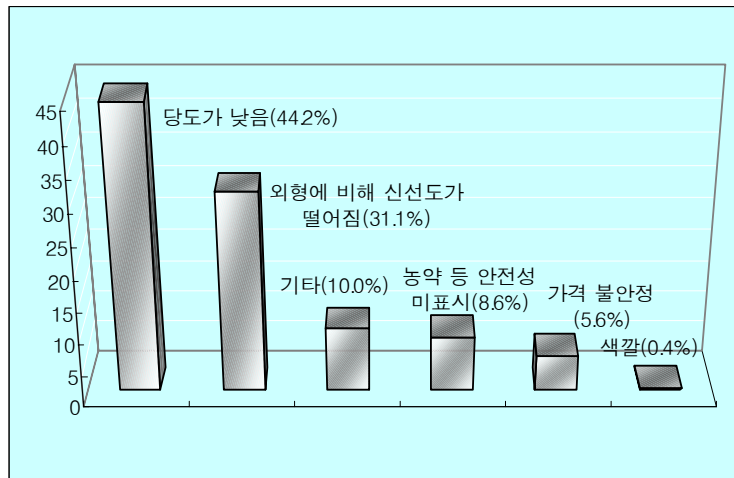
수박 구입 시 고려사항



○ 수박 구매 후 소비자의 불만사항으로는 ‘당도가 낮음’이 4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형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짐’ 31.3% 순으로 나타남.

- 기타 불만사항으로는 ‘수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움’, ‘껍질 두꺼움’, ‘쓰레기 문제’ 등의 지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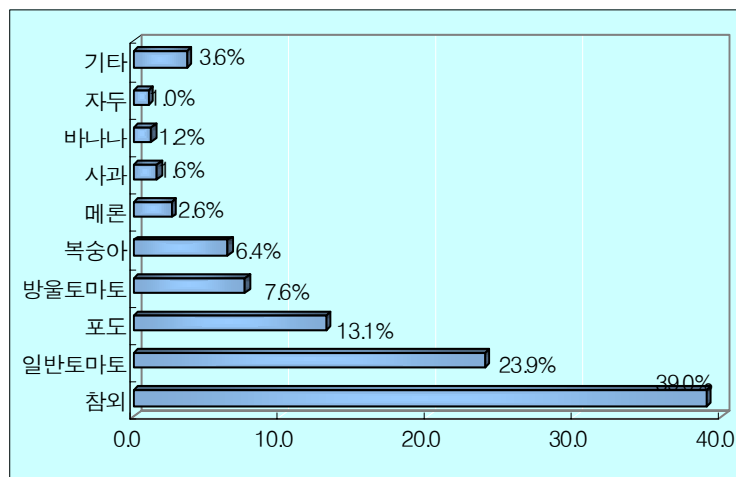
수박 구매 후 불만사항



4.3. 기능성 수박 구매의향

- 수박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는 참외(39.0%), 토마토(31.5%), 포도(13.1%), 복숭아(6.4%) 등을 대체과일로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수박 가격상승 시 대체 구입과일



- 친환경수박, 기능성수박 등 고품질 수박은 일반수박과 가격이 비슷하면 구입하겠다는 소비자가 가장 많지만(47.6%), 소득이 높을수록 고품질 수박에 대한 구매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 수박 · 기능성 수박 등의 소득별 구입의향

단위: %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좋다면 구입	가격이 일반수박과 비슷하면 구입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구입안함	기 타	합 계
150만원 미만	33.3	47.9	14.6	4.2	100.0
150~249만원	34.6	50.3	9.4	5.7	100.0
250~349만원	41.5	47.2	7.8	3.6	100.0
350만원 이상	48.0	44.0	2.0	6.0	100.0
평 균	39.8	47.6	7.8	4.8	100.0

5. 분석 결과의 시사점

5.1. 오이

- 오이는 주로 무침용이나 생식용 등으로 소비되어 소비자는 오이를 자주 소량 구입하므로 소포장 선호
 - ➡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 등과 직거래 시 소포장 단위 출하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 필요
- 소비자의 오이 구매 시 우선적 고려사항은 신선도와 모양
 - ➡ 오이의 크기나 생김새 등 모양이 좋도록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고, 출하 시 선도 유지에 노력
- 소비자는 기온이 높을 때 오이의 소비를 확대하는 경향
 - ➡ 고온 시에도 오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도록 노력하여 하계의

가정용 소비나 업소용 소비(냉면의 고명 수요 등)에 부응

- 최근 일련의 중국산 및 국내산 김치 파동으로 김장을 직접 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 증가 추세
 - ➡ 오이의 상대적 안전성(배추에 비해 기생충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오이소박이 김치 등의 소비확대 유도

5.2. 토마토

- 최근 토마토 소비가 확대한 주요 요인은 마스크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홍보 효과
 - ➡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주도하여 웰빙식품으로써의 토마토 효능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향후 토마토 구입량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 매우 높게 나타나 추가적인 소비확대 예상
 - ➡ 수량성 위주 생산체제를 고품질 토마토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소비확대에 부응하도록 하며, 맛이 좋아 토마토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상당수 존재(20.1%)하므로 특히 품질관리에 유념
- 토마토 소비증대로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어 공급과잉, 가격폭락 가능성 우려
 - ➡ 고품위 토마토의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출국 기호에 맞는 품종을 정식·재배하는 수출용 전문 생산단지 지정 운영
- 향후 토마토를 대체할만한 과일 등장 시 대체과일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아 이 경우 토마토 수요 다소 정체 전망

- ➡ 친환경 토마토, 기능성 토마토 등의 생산 확대와 생산자단체의 홍보 강화로 토마토가 웰빙식품이라는 현재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안 마련

5.3. 수박

- 소비자는 중저가의 8kg 미만 중소과형 수박 선호
 - ➡ 핵가족화, 대과형 수박의 냉장보관 곤란, 음식물 쓰레기 문제 등으로 향후에도 중소과형 선호도 상승이 전망되므로 중소과형 수박의 재배 확대 필요
- 소비자는 수박 구매 시 맛·당도를 가장 중요시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 후 가장 큰 불만사항은 낮은 당도
 - ➡ 수박의 당도 증대를 위한 재배기술 향상 노력과 함께 당도가 낮은 수박인 피수박, 공동과 등이 유통될 수 없도록 엄격한 선별 중요
- 친환경수박, 기능성수박 등 고품질 수박 수요확대 전망
 - ➡ 소득이 높을수록 고품질 수박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수박이나 기능성수박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마케팅 전략 필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이후 양계산물 소비 변화¹¹⁾

1. 문제제기

- 지난 2003년 12월 국내에서는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¹²⁾가 최초로 발생한 후 2004년 3월까지 19건이 발생하여 닭·오리 등 530만수를 살처분 함으로써 양계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바 있음.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의거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9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상황을 동 기구에 통보하였음.
- 해외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31일 대만에서 보고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음.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 14개국(일본은 2004년 7월 종식선언)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였으며 이 중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사망 사례도 보고되었음(2003년 말~2005년 12월 현재).
- 2004년 초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였으며 또한 태국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을 공식 보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에 태국산과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¹³⁾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정민국(mkjeong@krei.re.kr) 연구위원, 이형우(lhw0906)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문의 사항은 전자메일로 연락바람.

12)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는 닭·오리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고병원성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러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1종 법정 전염병,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A급으로 분류된다.

13) 미국은 2004년 8월, 캐나다는 동년 11월에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선언을 하였으며 미국산 닭고기 수입은 2005년 4월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여 2005년 7월부터 정상화되었으며 태국산은 열처리 가공육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러시아를 경유하여 유럽(루마니아, 터키, 그리스 등)까지 확대되었음.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보도이후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닭고기 소비량이 감소하여 닭고기 가격은 크게 하락하였음. 이러한 질병의 발생은 국내 양계산물 수급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축질병 발생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¹⁴⁾
- 본 고에서는 최근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보도로 인한 양계산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질병발생과 관련한 보도가 소비자의 양계산물 소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양계업계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2. 국내외 AI 발생 이후 양계산물 가격 변화

- 2003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전후 양계 산물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닭고기의 경우 33.9%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계란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
- 2005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보도로 인해 닭고기 가격이 크게(44.8%)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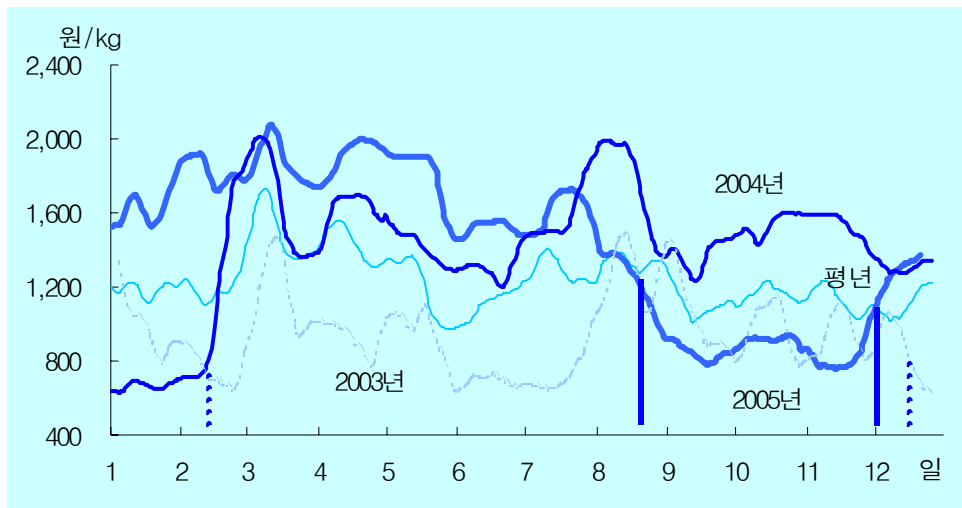
14) 「최근 가축질병이 육류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농정연구속보 2004년 제6권 참조.

국내외 AI 발생 전후 양계산물 가격 변화

비 고		2003년(국내 AI 발생 전후)			2005년(해외 AI 보도 전후)		
		12.5~ 12.14 (a)	12.15~ '04.1.31 (b)	등락률 (b/a)	8.3~ 8.14 (c)	8.15~ 11.30 (d)	등락률 (d/c)
평 균	육계 (생체1kg, 원)	1,008	667	-33.9%	1,395	910	-44.8%
	계란 (특란, 10개)	794	797	0.3%	858	859	0.1%

주: 2003년은 발생 전 10일과 발생 기간을 비교, 2005년은 8월 14일(말복)전 10일과 집중 보도기간(8월 15일~11월 30일)을 비교함.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점선구간은 국내 AI 집중 발생(2003년 12월 15일~2004년 1월 31일) 기간임.
 실선구간은 해외 AI 확산 집중 보도(2005년 8월 15일~11월 30일) 기간임.
 자료: 농협중앙회.

- 12월 들어 육계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심보험가입)로 소비가 회복된 반면 강추위로 인해 닭고기 생산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3. 해외 AI 보도 이후 양계산물 소비자 조사 결과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보도 이후 지난 10월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패널 574명을 대상으로 양계 산물 소비 변화에 대한 이메일 및 전화조사를 실시함. 응답자의 99%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었음.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보도 이후 닭고기 소비에 대해 소비자의 46.8%는 소비를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란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21.5%가 소비를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음.
- AI 확산 보도 이후 양계 산물 가격과 소비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소비자들은 양계 산물중에서 닭고기의 소비가 계란보다 훨씬 AI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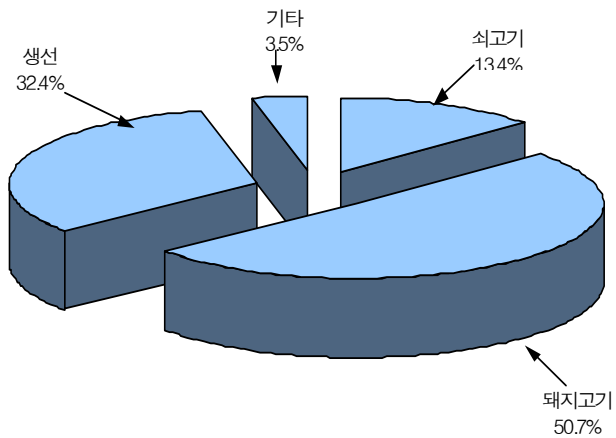
해외 AI 발생 보도 이후 양계산물 소비 변화

	해외 AI 발생 보도 이후 닭고기 소비	해외 AI 발생 보도 이후 계란 소비
소비하지 않거나 줄이겠다	46.8%	21.5%
소비에는 변동이 없다	53.2%	78.5%

주: 응답자수는 568명임.

- 해외 AI 확산 보도 이후 닭고기를 소비하지 않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돼지고기(50.7%), 생선(32.4%), 쇠고기(13.4) 순으로 소비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닭고기 소비가 감소한 경우 대체 육류



- 2003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당시 양계산물 소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 닭고기 소비에 대해 소비자의 80.5%는 소비를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란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59.1%가 소비를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음.

2003년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양계산물 소비 변화

	2003년 국내 AI 발생 이후 닭고기 소비	2003년 국내 AI 발생 이후 계란 소비
소비하지 않았거나 줄였다	80.5%	59.1%
소비에는 변동이 없었다	19.5%	40.9%

주: 응답자수는 568명임.

- 2003년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닭고기 소비가 계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실제 가격 하락 또한 닭고기가 크게 나타남.

-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을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응답자의 83.4%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은 알을 낳지 못하여 실제 유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소비자는 19.6%에 불과하였음.

AI 감염 양계 산물에 대한 안전성 인지 여부

	닭고기를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사실	AI에 걸린 닭은 알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있다	83.4%	19.6%
모른다	16.6%	80.4%

-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닭고기 소비에 대해 소비자의 84.5%는 소비를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란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3.0%가 소비를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음.
-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도 ‘닭고기를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킨 후에 닭고기 소비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75.9%로 나타나 인지전과 비교시 약 11%p 감소하였음.
- ‘고병원성 AI에 걸린 닭은 알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킨 후 계란 소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는 41.1%로 나타나 인지전과 비교시 약 32%p 감소하였음.
- 닭을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응답자의 83.4%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소비자 심리위축은 닭고기가 계란보다 큰 것으로 판단됨.

국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양계 산물 안전성 인지 후 소비 변화

	닭고기		계란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할 경우	닭고기를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사실 인지 후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할 경우	고병원성 AI에 걸린 닭은 알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 인지 후
소비하지 않거나 줄이겠다	84.5%	75.9%	73.0%	41.1%
소비에는 변동이 없다	15.4%	23.5%	27.0%	57.1%

4. 시사점

-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소비자의 양계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을 야기시켜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양계 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킴.
-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구제역 등) 발병으로 야기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회복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축산물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소비자 조사결과, 양계 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한 후 소비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닭고기의 경우 11%P, 계란의 경우 32%P 감소하였음.
-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축질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잘못된

소비자 인식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과 오리의 경우 2~3일 만에 폐사해 시중 유통이 불가능하고, 오리고기와 닭고기를 익혀 먹었을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구제역 등)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축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와 체계적인 가축방역 활동으로 사전적 차단방역에 힘쓰고 질병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2005 겨울
농업·농촌경제동향

등 록

인 쇄 2005. 12.

발 행 2005.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11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